

周時經先生遺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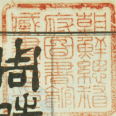
朝

40

12

古朝
40
13

PL /



周時經先生遺稿

京城 中央印書館 藏版

中央印書館 寄贈本



蘇 颯 山 中 失 點

京 城 中 央 印 書 館 藏 本



周時經先生肖像



周時經先生遺稿目次

卷首

小傳

哀辭

卷一

朝鮮語文典音學

卷二

朝鮮語文法

卷三

말외소리

周時經先生遺稿卷首

小傳

哀辭

小傳

權 應 奎

先生은 丙子(四二〇九)十一月七日에 黃海道 鳳山郡 錢山坊 茂陵에서
生하니 父는 冕錫이오 母는 李氏夫人이며 兄弟四人에 第二位로 後에 仲
父 冕錫에게로 出繼하다.

生後에 乳道가 豊富치 못하여 啗죽을 먹는데 生年 丙子와 翌年 丁丑은
무서운 凶年이라 糧米가 떠러져서 이 嬰兒의 積은 먹어도 때를 闕하여
三次나 氣盡하였다가 積우 다시 깨어나니 하늘이 거룩한 사람을 내며
그 生初부터 試鍊이 있음을 알리라. 六歲에 入學하여 十二歲까지 漢文
을 배우다가 京城에 來寓하는 養父宅으로 率養되어 十三歲부터는 京城
에서 師傳에 出就하여 十七歲까지 漢文을 繼續하다.

先生이 八歲時에 이숙아이로 더불어 門 밖에 나가 놀다가 南으로 덕령峰
아란 山에 하늘이 맞닿은것을 보고 하늘이 어찌한가 만지어 보자 하고

이웃아이와 作伴하여 山에 오를새 同行하던 아이는 山中턱에서 草花折
取하기에 着味하여 하늘 단질 생각을 아주 잊되 先生은 危險을 무릅쓰
고 期於此 山꼭대기에 홀로 올라오니 거기서도 하늘이 석 달뿐더러 집
있는데를 바라보며 하늘이 도리어 낮음을 보고 비로소 하늘이 참 보고
크어 私覆함이 없어서 놀게도 보이고 낮게도 보임은 다 사람의 눈의 錯
覺임을 알고 解惑함이 시원하여 떠돌며 집에 도라온 일이 있으니 研究
誠과 智識慾이 어러서부터 強盛함을 넘쳐히 짐작하겠도다.

十八歲 甲午更張되던前 一年에 時運에 感悟함이 있어서 그때 培材學堂
敎師 朴世福 鄭寅德 諸氏에게 數學이며 內外 地理 歷史等 當時 所謂 新
學問이란것을 배우니 이때로부터 가슴이 천이 열려서 一種 新異한 世界
를 心中에 베풀하기 시작하더라.

이듬해 十九歲는 곧 甲午年이니 暫時 鄉里에 歸留하다가 五月에 日清戰
爭이 일어나서 時勢가 갑자기 둘러지며 靑年된이들의 退嬰姿態할때가
아니라 하여 新時代理解와 新智識修養의 必要上 奮然히 京城에 上來하
야 培材學堂에 入學修業하니 沈潛重讀하여 그 봉오리가 들어나지 않나
하니 時艱에 對한 深切한 걱정과 新銳한 氣概가 감출수욕 더욱 나타나

서 같은 情狀의 推重을 입었더라.

그러나 이 동안 그 經歷한마가 平夷하지 아니함이 많으니 혹 他人의 履
 備이 되며 혹 印刷所의 雜役을 하야 써 學費를 도우며 方便을 지으며
 艱困辛勤의 想像의 及할마가 아니라 然이나 千辛萬苦를 奮闘力排하면서
 終始如一하게 所志를 勵하고 所業을 勉하니 모는이가 嘆賞하지 아니할
 이 없더라.

此後 暫時時間은 學問上 職務上으로 여러가지 所經歷이 있으나 玆거함을
 避하야 述하지 아니하고 마로 先生의 平生 大精神의 存한마 朝鮮語研究
 事業에 對하야 略言하겠노라 先生이 朝鮮語研究에 立志하기는 實로 十
 七歲적 壬辰(四二二五)이라 이때에 李進士會鍾氏에게 漢文을 배울새 每
 樣 그 文義를 解釋할때마다 반드시 우리 말로 翻譯함을 보고 속으로 해
 아리되 글이란것은 말을 적으면 足하리로다. 그러나 玆는 方法 卽 符號
 가 이 漢文가치 거복하고 어렵고야 學識을 얻기에 어찌 極難하지 아니
 하리오 후에 우리의 글로 이를 代하면 참으로 事半功倍하리로다. 그러
 나 이를 琢磨의 功을 加하지 아니하면 어찌 能히 實効를 거두리오 하고
 이에 慨然히 憤을 發하야 우리 言文을 研究하기로 志를 立하고 먼저 文

法을 究明하기로 着手하니 이는 實로 朝鮮에 言文이 있은 뒤 初有한 學
요 朝鮮人 스스로 科學的으로 自家의 言文을 解明한 嚆矢라 此人此時의
自覺과 決心이 참으로 朝鮮語復興의 新機運이로다.

처음에는 自家의 言文을 自己가 研究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되겠다는 單
純한 自覺만으로 着手한 것이나 步武가 漸進하는대로 朝鮮語 그것의 本
質이 善良하고 語彙가 豊多하고 音響이 雅好하며 言文 그것의 形式이
便美하고 條理가 詳明하고 音彙가 饒足함을 知하므로부터는 더욱기 埋
沒한것을 發出하고 淆亂한것을 釐正하여야 이 價値와 이 效用을 하로바라
弘大하게 하겠다는 생각조차 熾燃하여 實로 廢寢忘飧하다 실이 研究에
從事하기를 二十年 하로와 가지 하였도다.

그生涯는 決코 單純하지 아니 하였으니 혹 航海業을 練習하고 혹 測量
術을 研究하고 혹 工場의 職工이 되고 혹 商店의 雇員이 되고 혹 郷里
에 歸하여 家業을 助하고 혹 師友를 隨하여 學業을 事하고 혹 新聞家가
되고 혹 教育家가 되며 一時는 政治的運動에 參加하여 京師을 上下하며
變化가 甚多하였으나 그 朝鮮語研究의 誠心은 일즉 一時의 減退가 없었
으며

그生涯는 자못 困縮한 편이니 祖業은 거진 없고 所奉은 不少한대 所業이 또한 報酬의 넉넉한 것이 아니며 家産經紀가 자못 煩雜한 것이 어늘 一戶를 別立한 後로 内外事間 顧護하는이 幾無한 살림을 獨自按排하면서 도 그 朝鮮語의 研究의 努力은 일즉 一時의 間斷이 없었으니

이 사의의 苦心과 費力이, 어떠한 至極하였을것은 到底히 富者막에 能히 想像할바가 아닌데 大概 先生은 朝鮮語研究앞에 二 아모것도 없었다 할지니 身家도 없었고 名利도 없었고 困難도 없었고 不可能도 없었으니 오즉 此를 爲하야 至誠을 輸하고 至善을 致하였을뿐 아니라 차라리 말하자면 그는 此를 爲하야 受하는 至極한 苦勞를 最大한 快樂으로 알았다 할지로다.

은갖 事力을 모두 朝鮮語研究앞에 犧牲한 것처럼 온갖 機會를 朝鮮語研究속으로 利用하야 이대문에 心勞와 身勞이 無限히 增大하였으나 그가 그대로 奮進하야 顯함이 없었으니 此는 그 平常을 知하는者가 特別히 驚嘆하는 點이라 理想을 어떠한가 하면 實現할가 하며 그 努力이 尋常하지 아닐수 없었도다. 늘 무엇이든지 計劃하고 늘 어떠한지 運動하였도다.

培材學堂 在學時에는 同門生으로 더불어 協成會를 組織하였으며 獨立新聞社 在任中에는 同業者와 한가지 朝鮮文同式會를 經營하였으며 尙洞에 學塾이 私立되매 朝鮮語文法科를 特設하게 하며 當時 醫學校에 知己가 有하며 그안에 朝鮮語研究所를 設行하며 夜에는 夜學講習所 日曜에는 日曜講習所를 設行하며 學部內에 朝鮮語研究所가 另設되매 그 研究의 中樞가 되며 外人間에 韓語研究會가 設立되매 그 辨雜의 標準이 되며 公私學校에 朝鮮語科程을 教授케 하고 그 任을 自擔하여 培根發源의 運動을 開하며 朝鮮光文會가 設立되매 朝鮮言文에 關한 文書校正과 辭典編纂의 指導에 致力하며 自家平生研究의 根柢있는 運動을 삼으려하여는 朝鮮語講習院을 創立하여 英俊을 會하여 教導에 盡誠하니 그 學不厭教不倦의 至誠이 身勢를 이려듯 수고롭게 하였도다。

敎育界 學閥界에 在하여 先生의 于今까지 功績과 今日의 地位와 今後의 期待는 아무든지 明知하는바나 다시 何言으로 讚하며 何辭로 頌하리오 마는 先生으로 言하면 多年編纂을 快히 發現할 機가 已熟하고 世間으로 言하면 倚信仰望이 特深殊切한 이때에 三十九의 야숙 有爲한 壯年으로 甲寅 七月二十七日 午前六時 于萬夢外에 此世를 永棄하시니 自他의 大

悲痛과公私의 大損失을 如何히 補充할지 아! 勸慰할 말이 無하도다.
그러나 先生에게 感慕할 것과 追頌할 것은 그 學問뿐만 아니라 特別히 景仰
할것은 그 天成의 崇高한 人格이니 平生心事가 남에게는 자랑할만 하고
스스로는 부끄럼지 아니한 點으로 先生과 같은 이는 實로 一世의 儀範이
오 萬人의 師表라 할지라 여러가지 高尚한 美德이 強烈한 印象으로 現
在 人을 感化함이 大한 것처럼 偉大한 遺風이 永遠히 後人을 感奮케 할지
니 朝鮮語가 存하기까지 先生의 勳業이 光大할 것처럼 그 人格의 感化는
永遠히 우리사이에 生命이 있을지로다.

哀辭

崔 南 善

아름답고 가진소리 눈헌외를 예뵈려서
한대모아 감추시니 환의 뜻을 어이알리

임의손에	광이들때	무척던것	드러나고
임의입에	나발볼때	장장런것	올러났네
배달말의	환한빛이	해와가치	번져갈때
사람들의	얼진힘이	새김일을	얼엇도다
셈이되어	숫아나때	큰옥숨이	지호르코
이말의꽃	여름되때	새봄음이	비웃도다
말으심이	크도할사	지으심도	거룩도다
간얼피고	어런우리	혈얼으렵	더말더니
누리며나	돌아가심	슬픔이야	끝있을간
다만트신	바른길로	속누기며	힘써엘가

힘을리신 이팔독은

지선점을 더높이며

만물리신 기쁨은

겨센해를 더밝힐뿐

아득하나 환한알길

가다듬어 나가라다

더가까이 잠으실줄

임의검을 믿노이다

周時經先生遺稿卷一

朝鮮語文典音學

序

稿我

世宗大王이 訓民正音을 創制하시니 字簡音備하여 轉換記事에 不通함이 無호며 習用호기 極宜且便호기 自來에는 是로 朝鮮語를 記用호는 者一其宜를 多失호시어 言文이 相協치 못호시어 簡音이 煩호고 精音이 粗호기 되어 濁亂無稽호는 弊를 致호시라 周時經氏가 是를 慮호시어 十餘年 朝鮮文를 潛心호시어 自然호는 管理가 固有호는 朝鮮語에 一音一畫이라 도다 그 正當호는 音法이 有호는 愛得호시라 昨今 夏期에 朝鮮語講習所를 設호고 그 研究호는 音學字分學變體學格學等科로 分호시어 教授호기 로 余가 同所에 就호시어 始終을 講習호니 其法이 綜詳호시어 朝鮮도 言의 指南이 되는 지라 此法이 廣行호시어 야 朝鮮文의 行用호는 正當호시어 正當호시어 正當호시어 正當호시어 야 國民의 教育이 發興호는 지라 이에 余가 徐友相 揆氏로 더불어 商協호시어 講習호는 中에 音學一科가 朝鮮文 流弊를 澄清호는 本源이 되는 故로 爲先 博文書館에 委託호시어 發行호는 이라

隆熙二年八月

日

朴兌相書

朝鮮語文典音學

한헌생 周 時 經 著

發端

朝鮮語는講習이라언爲先自國의言文이그民國에對하여如何關係가有함을講究함이可호故로此說을左에略陳하여發端의言을삼노라

浩蕩無極하여上中外가업는적宇宙에一이存하여四方에充滿하니生滅과始終이無호지라其間에無數호物體가有하니다此로從하여成호고또모든物體가各各此로從하여命호性이有호지라此는萬有의源이오萬有의主니天이라上帝라理라호이다此를謂호이라吾人이寄息호는地球도天體의一이라其面이水陸으로分호여水는五大洋을成호고陸은六大洲로劃호고洲마다또區域이分호여人種이生存호는지라人種도此陸의界境을從하여洲洲不同호고區區又不同호여各人種의言語도此를依호여洲에大分호고區에又分호여各自不同호니此는天이其域에其種을命호고其種에其言을命호여一境의地에一種의人을産호고一種의人에一種의

言을發케호이라是以로天이命호性을從호여其域에其種이居호기宜호며其種이其言을言호기適호여天然의社會로國家를形成호여獨立이各定호니其域은獨立의基호其種은獨立의體호其言은獨立의性이다

我朝鮮은亞細亞洲東方溫帶에在호여北으로靈明호長白山을負호고東西南으로溫和호三海를面호半島라天이此域을界호고我人種을祖産호고土音을命호며此人種이此音을發호여此域의言語를作호니檀祖開國後로만計호여도四千餘年을傳用호며此는我朝鮮의語니天然의特性으로獨立되는表니라

世宗이서朝鮮音을依호여朝鮮文을親製호사至今四百六十三年을傳用호며此는我朝鮮의文이니天然의으로發호는言語를記用호는特色의文字니라某國은天下에最強호여其威가萬國에蓋호지라도其民의自國性이最弱호면其國은畢竟天下에最弱호을末免호것이오其國은天下에最弱호여他人의凌駕를受호며呼吸을自意치못호지라其民의自國性이天下에最強호면其國은畢竟天下에最強호을期望호지라도以로自國을保存호며自國을興盛케호는道는國性을獎勵호에在호고國性을獎勵호는道는自國의言文을崇用호이最要호으로自國의言과自國의文이某國의言과某國의文만不知호지라도自國의言文을磨호여光호며求호여補호여期於此萬國에並駕호기들은國호기능睦我禮朝以來에德政을行호던優等の言語와

子母의 分別이 簡要하여 記用이 便利한 文字를 開國四千餘載에 研究가 寂然하여 語典一卷도 尙此未成흥으로 近者에 朝鮮語로 著作하는 文字가 各自意를 從하여 言語의 說傳흥과 文字의 誤用하는 弊가 相雜하여 正當한 言文이 되지 못함으로 國民이 自國의 言文을 愛重흥 思想이 發起 못함은 甚다 此時를 乘하여 外國의 言文은 風海에 狂潮와 如히 驅人하고 微弱한 國性은 敗壞에 倦旗와 如히 退縮하니 今日를 當하여 國性을 保存하기 에 最重要 自國 言文을 此境에 置하고 度外로 視하면 國性도 日衰할 것이 國性이 日衰하면 그 影響의 所及이 可測지 못함境에 至하여 國勢의 回復은 期望도 無호지라 自國 言文을 講究하여 釐正하여 獎勵흥이 今日의 急務라 함은 노다

音學

音은 天地에 自在호는 者라 故로 何人이 듣지 能히 加減도 못하고 變易도 못함은 니라 音은 形象의 無호는 者라 是以로 形象을 感하는 眼으로는 音을 見치 못하고 耳로 만聽하는 니 耳는 形의 感官이 안이요 無形호는 音의 感官임이 니라

音은 空氣의 波動이니 空氣가 無하면 音도 無하니라 故로 眞空에서 는 鐘을 打하여도 聲이 無호니라

音은 有別聲과 無別聲의 別이 有호니 雷聲과 風聲과 木聲과 石聲과 如호는 者는 無別聲

이요 人類의 言語와 如ᄃᆞᆫ者는 有別聲이니라

音은 有無別을 勿論ᄃᆞᆫ고 音色의 別이 再有ᄃᆞᆫ니 그 激動된 物體의 性質을 隨ᄃᆞᆫ여 各異
ᄃᆞᆫ니라

有別聲은 人類社會에 實用이 最緊ᄃᆞᆫ디 또 子母의 別이 有ᄃᆞᆫ니 自發ᄃᆞᆫ는 者를 母音이라
ᄃᆞᆫ고 其音은 自在ᄃᆞᆫ되 自發ᄃᆞᆫ치 못ᄃᆞᆫ고 母音에 依附ᄃᆞᆫ後에야 發ᄃᆞᆫ는 者를 子音이라
ᄃᆞᆫ니 子音이 母音에서 生ᄃᆞᆫ은 안이요 母音을 依ᄃᆞᆫ여 發ᄃᆞᆫ는 니 譬ᄃᆞᆫ면 太陽의 光은
七色이 도되 尋常ᄃᆞᆫ 物體에 照ᄃᆞᆫᄃᆞᆫ 淡色을 呈ᄃᆞᆫ나 菱形玻璃에 反照ᄃᆞᆫ면 本色을 見ᄃᆞᆫ
는 니 七色이 琉璃에서 生ᄃᆞᆫ이 안이요 太陽의 本色이 琉璃를 藉ᄃᆞᆫ여 見ᄃᆞᆫ과 如ᄃᆞᆫ히 子音
이 母音에서 生ᄃᆞᆫ이 안이요 母音을 依ᄃᆞᆫ여 本音을 發ᄃᆞᆫᄃᆞᆫ니라 人의 音은 肺經이 그
神의 命에 感ᄃᆞᆫ여 聲膜을 激ᄃᆞᆫ면 空氣의 波動이 起ᄃᆞᆫ여 無別聲이 成ᄃᆞᆫ여 聲管으로 通
出ᄃᆞᆫ다 가 喉에 達ᄃᆞᆫᄃᆞᆫ 牙舌唇齒喉로 節制ᄃᆞᆫ여 子母의 分別과 子母가 또 各各分別됨
을 作ᄃᆞᆫ는 니라

人類의 音이 普通은 如ᄃᆞᆫ히 相同ᄃᆞᆫ되 區域과 人種이 不同ᄃᆞᆫᄃᆞᆫ으로 語音도 各異ᄃᆞᆫ니 此
는 天然의 理라 故로 音을 依ᄃᆞᆫ여 文을 制ᄃᆞᆫᄃᆞᆫ에 나라 마다 不同ᄃᆞᆫᄃᆞᆫ이 此故니라 是以로 鄭
公麟趾의 訓民正音序에 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이라 ᄃᆞᆫ니라 漢文과
如ᄃᆞᆫᄃᆞᆫ者는 事物을 圖ᄃᆞᆫ여 表ᄃᆞᆫ는 文字로 音은 다시 其圖를 稱號ᄃᆞᆫ라 고 付ᄃᆞᆫᄃᆞᆫ 것이로되

朝鮮文과 日本文과 英國文과 如 如 者는 音을 記는 文字니라

事物을 表는 文字는 音을 足히 讓論할 바가 無고 音을 表는 文字라도 文字가 音을 盡하지 못할지언정 音이 文字를 盡하지 못하고 文字가 音에 遠할지언정 音이 文字에 遠함은 無고 文字가 音에 不足할지언정 音은 文字에 不足함이 無호니 文字가 音에 外호 音文字가 安이니라

音學은 子母를 分別함이 最緊호니 文字가 無호면 子母를 說明하기 不便함으로 國文의 子母를 下에 略陳하여 普通의 子母까지 解코자호노라

「가」라호면 ㄱ은 ㄱ이 無호여도 自發호는니 此外如 如 者를 母音이라호고 ㄱ은 如此호 音이 ㄱ에 先호여 分明히 發호지마는 ㄱ을 除호면 ㄱ音이 發치 못호는니 此外如 如 者를 子音이라호는니라 ㄱ은 自在호 音으로 ㄱ이 依附호여 發호
어유 ㄱ音이 ㄱ에 先호음인이라

訓民正音

國之 語音異乎 中國與 文字不相流通故 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然 新製 二十八字 欲使 人人易習 便於 日用 耳

ㄱ 牙音如君字初發聲

ㅋ 牙音如快字初發聲

ㆁ 牙音如業字初發聲

ㄷ 舌音如斗字初發聲並書如單字初發聲

ㄸ 舌音如吞字初發聲

ㄹ 舌音如那字初發聲

ㄱ 舌音如驚字初發聲並書如步字初發聲

ㅋ 舌音如漂字初發聲

ㆁ 唇音如彌字初發聲

ㆁ 齒音如即字初發聲並書如慈字初發聲

ㆁ 大齒音如侵字初發聲

ㆁ 人齒音如成字初發聲並書如邪字初發聲

ㆁ 舌喉音如挹字初發聲

ㆁ 舌喉音如虛字初發聲並書如洪字初發聲

ㆁ ○ 喉音如欲字初發聲

ㆁ ㄷ 半舌音如闊字初發聲

ㆁ △ 半齒音如穰字初發聲

ㆁ 、如吞字中聲

ㆁ 一如即字中聲

丨如侵字中聲

上如洪字中聲

卜如覃字中聲

丁如君字中聲

十如葉字中聲

止如欲字中聲

卜如穰字中聲

可如戍字中聲

卩如驚字中聲

終聲復用初聲

止可附書初聲之下

則上聲無則平聲入聲加點同而促急

此訓民正音也

世宗卅二 二十八年丙寅에 頒布하시섯으니 距今(隆熙二年)四百六十三年이라

保蘭齋申叔舟梅竹軒成三同學易齋鄭麟趾太虛亭崔恒等諸公은 贊하고 開國

重臣들과 集賢殿學士들中에 不可리호이 가多하시엇느니라

訓民正音略解

國之語音으로便於日用耳_사지는 觀序니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이라_는 심은 朝鮮과 支那는 天然의 區域이 不同_한 때 氣候 水土와 性質 習尙도 相異_한 여 支那의 文字가 朝鮮에 不_適함으로 流通치 못_한 다_는 심이니 夫 朝鮮에서는 朝鮮에 適宜_한 文字가 有_한 여야 故 流通되리라_는 심인디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으로 頭句를 삼_은 심은 正音은 朝鮮의 語音을 爲_한 주_한 여 制_한 시는 主義요

故로 愚民은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_다 _는 심은 支那文은 朝鮮人民이 學習_한 기 極難_한 여 智者가 안이면 不能_함 으로 其餘 凡常_한 愚者는 至極히 冤屈_한 情을 抱_고 且도 其情을 記出치 못_한 여 伸冤_한 道가 無_한 다_는 심이니 支那文字가 朝鮮에서는 習用_한 기 極難_한 여 流通되지 못_한 는 証據와 其害의 曲盡_한 實情을 例舉_한 심이요 그 多字는 世上에 智者는 少_한 고 愚者는 多_한 여 國民의 多數가 能히 文字를 習用치 못_한 여 其害가 隨多_한 다_는 심이요

予——爲此 憫然이라_는 심은 朝鮮에 不_適한 漢文을 移用_함 으로 智者라도 其文字를 學習_한 노라고 歲月을 太費_한 여 智_한 여 지기에 害가 되고 愚者는 智_한 여 道가 全塞_한 여 人民의 學識과 才藝가 不興_한 고 國家의 政事가 未洽_한 여 全國의 莫甚_한 害가 되고 他國文字를 永用_한 면 此害도 永久_한 여 民國萬世에 無限_한 大弊가 될 尙憫然히 역이 노라_는 심이요

新制二十八字호니欲使人人易習호고便於日用耳로라호심은此二十八字는我國에서用호기에適當호여智愚貴賤貧富老少男女를勿論호고學習호기易호며日用호기便호다호심이라

ㄱ如君字初發聲은君의ㄱ을除호고其餘音이라호심이요並書如爾字初發聲은爾의前音과의나를除호고其餘音이라호심이라

ㅋ如快字初發聲은快의快를除호고其餘音이라호심니라

ㅇ如業字初發聲은業의前音인의ㅇ을除호고其餘音이라호심이니수예行用되는終聲ㅇ과如호音이요

ㄷ如斗字初發聲은斗의ㄷ를除호고其餘音이요並書如單字初發聲은單의前音ㅁ의ㅇ을除호고其餘音이라호심이라

ㄴ如吞字初發聲은吞의ㄴ을除호고其餘音이라호심이라
ㄴ如那字初發聲은나의ㄴ를除호고其餘音이라호심이라

ㄹ如能字初發聲은能의ㄹ를除호고其餘音이라호심이요並書如步字初發聲은步의前音ㅍ의ㄷ를除호고其餘音이라호심이라

ㅈ如漂字初發聲은漂의ㅈ를除호고其餘音이라호심이라
ㅊ如彌字初發聲은미의ㅊ를除호고其餘音이라호심이라

又如卽字初發聲은 卽의 卞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요 並書如慈字初發聲은 慈의 前音의 ㅈ의 ㅈ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라

又如侵字初發聲은 侵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라

又如成字初發聲은 成의 ㅈ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요 並書如邪字初發聲은 邪의 前音의 ㅅ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라

又如挹字初發聲은 挹의 前音의 ㅍ이나 ㅃ의 ㅍ이나 ㅃ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니 ㅎ보다 輕호고 軟호음이라

又如虛字初發聲은 虛의 ㅈ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요 並書如洪字初發聲은 洪의 前音의 ㅎ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라

○如欲字初發聲은 欲의 ㅍ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라 然이나 欲의 音은 ㅍ뿐이요 初發聲은 音이 無호나 ㅎ은 有若無호니라

△如闕字初發聲은 闕의 ㅈ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라 然이나 欲의 音은 ㅍ뿐이요 初發聲은 音이 無호나 ㅎ은 有若無호니라

△如穰字初發聲은 穰의 前音의 ㅎ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니 ㄱ나 ㄴ의 ㅅ음이 다

吞字中聲은 吞의 初聲인 ㄷ와 終聲인 ㄴ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니 一의 ㅅ음이 다 證明이 下에 在호

○如欲字初發聲은 欲의 ㅍ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라 然이나 欲의 音은 ㅍ뿐이요 初發聲은 音이 無호나 ㅎ은 有若無호니라

△如闕字初發聲은 闕의 ㅈ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라 然이나 欲의 音은 ㅍ뿐이요 初發聲은 音이 無호나 ㅎ은 有若無호니라

△如穰字初發聲은 穰의 前音의 ㅎ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니 ㄱ나 ㄴ의 ㅅ음이 다

吞字中聲은 吞의 初聲인 ㄷ와 終聲인 ㄴ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니 一의 ㅅ음이 다 證明이 下에 在호

吞字中聲은 吞의 初聲인 ㄷ와 終聲인 ㄴ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함이니 一의 ㅅ음이 다 證明이 下에 在호

證明이 下에 在호

一 如御字中聲은 즉의 初聲 ㄸ와 終聲 ㄱ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ㅎ이라
 一 如侵字中聲은 침의 初聲 大와 終聲 口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ㅎ이라
 一 如洪字中聲은 滂의 初聲 ㅍ와 終聲 ㅁ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ㅎ이라
 一 如單字中聲은 單의 初聲 ㄷ과 終聲 口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ㅎ이라
 一 如君字中聲은 君의 初聲 ㄱ과 終聲 ㄴ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ㅎ이라
 一 如菜字中聲은 연의 初聲 ㄴ와 終聲 ㅂ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ㅎ이라
 一 如欲字中聲은 欲의 實은 有若無호 初聲 ㄴ과 終聲 ㄱ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ㅎ이라
 一 如積字中聲은 積의 初聲 ㅍ와 終聲 ㅁ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ㅎ이라
 一 如戍字中聲은 戍의 初聲 ㅂ과 終聲 ㅂ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ㅎ이라
 一 如鴨字中聲은 鴨의 初聲 ㅂ과 終聲 ㄹ을 除호고 其餘音이라 ㅎ이라
 終聲 復用 初聲은 終聲도 初聲을 復用호다 ㅎ이니 子音 十七字를 其漢字의 初發聲과
 如호다 但例호 ㅍ호호나 初聲으로 돈지 終聲으로 돈지 此音과 如호호는 다 此字를 用
 호호호이라 ㅎ이라 然호호나 或此義를 未解호호가 호호호다 시 解호호언호 此十七字가 다 終
 聲으로 復用호호다 ㅎ이라

○ 連書 唇音之 下 則 爲 唇 輕 音은 ㄴ을 唇音 下에 連書호호면 唇輕音이 된다 ㅎ이라
 連書는 上下로 書호호호를 謂호호호이니 ㄴ, ㅍ, ㅃ, ㅅ, ㅆ, ㅈ, ㅊ, ㅌ, ㄷ, ㅌ, ㄴ, ㄷ, ㄴ이라

가 여終結음이요 或疑호만호마의 母音도獨發치 못호다 音은안이라 此는ㅇ이有 若無호關係로可히知호마어호後生이 此를未解호辨가有호나라

左加一點則去聲은某字의音이去聲이면其字의左에一點을加호다 音이라

二則上聲은某字의音이上聲이면其字의左에二點을加호다 音이라

無則平聲은某字의音이平聲이면其字는點이無호음으로表호다 音이라

入聲加點同而促急은入聲은其終聲이 ㄹ ㄴ ㅁ 으로自表가되나 此自表外에上去平의

別이又有호나그分別되로去聲에는一點上聲에는二點平聲에는無點으로表호

외他去上平聲보다는促急호다 音이니 此는入聲이라호는終聲이 ㄹ ㄴ ㅁ 을分別호

이안이요其母音의長短을表호이라

龍飛御天歌에도朝鮮語入聲字를左加一加二無點으로表호였는디 四十六章에

열(十)一章에일(事)十章에길(路)如此히表호이有호나入聲도母音의長短을

依호여去上平으로分別호이明確호나라

洪헌은眞音集에漢文韻平聲은哀而安호고上聲은動而舉호고去聲은清而遠호

고入聲은道而促이라호였고康熙字典에平聲은平道莫低昂호고上聲은高呼猛

烈強호고去聲은分明哀遠道호고入聲은短促急收藏이라호였으나正音에去上

平入의別은如此치도안호母音의廣狹高低清濁의別도勿論호고長短만分別호

唇音

ㄱ 또는 ㄴ의濁音이니 ㄴㅇ나 ㄴㅇㄴ의 混合音인디 ㄱ은 ㄴ을 轉橫호것이니 轉橫音이 ㄴ의 音을 混合호는 것으로 代表音이요 ㄱ은 ㄴ과 함께 唇音의 同類로 相關호는 말이요 他關係는 無호며

(例) 심호를 連發호면 시포와 同호고 시포는 다시 심오와 同호

齒音

ㄷ 大는 ㄷ의濁音이니 ㄷㅇ나 ㄷㅇㄷ의 混合音인디 ㄷ上의 一畫은 ㅎ을 代表호여 加호는 요 ㅅ은 ㄷ와 함께 齒音의 同類로 相關호는 말이요 他關係는 無호며

(例) 朝鮮語習慣으로 혼이 정호지외, 들애고 줄여 정치라 호는 니 정치는 정호지의 호지 가 합호여 ㅈ가 된 것

喉音

ㅇ은 ㅎ의濁音이니 ㅎ字音보다 濁호는 音인디 ㅎ은 ㅎㅇ나 ㅎㅇ의 合音이라 고 도 호만 호니 ㅎ字의 音은 ㅎ와 相同호는 性質으로 ㅎ보다 조금더 清輕호는 故도 ㅎ音이 ㅎ에 入호여 도 ㅎ는 變호는 것이 없으며 ㅎ은 ㅎ音보다 濁호는 音이 나 實用으로 보면 濁音이라 호는 수 없으며 正音의 ㅎ을 並書호는 것으로 觀호여 도 濁音이 안이요 清音이 니라 ㅇ은 ㅎ音와 함께 喉音에 相關호는 말

이요他關係는無호되○은無音인則如此히排別호마도無호며

半舌音

△字는 ㄹ의濁音이니 ㄹ, ㄱ, ㄴ, ㅎ의混合音인되 正三角形 △字는 連曲

(例) △字의 音은 일항의 이를除호고其餘音 ㄹ 향即 旁을呼호며其初聲과

如호音이다

△字는右陳호規則를推觀호면牙舌唇齒喉五音이各各其類마다第二位字는第一
位字에音를合호音이라然호즉△字는 ㄹ의次位에載在호였으니 ㄹ호의合音형
이明白호지라此証을得호며別로他証을再要호마가無호나△字는穰字의初發
聲과如호다호였으니穰字의前音은양이요支那의北音即漢音은旁或旁이요南
音即吳音은旁이라낭의初發聲이면 ㄹ이라 ㄹ은音第三位에載在호였은즉 ㄹ
을二制치안이호였을지니△가穰字兩音의初發聲은안임이無疑호고前漢語教
師胡文煒에穰字의音을問호즉穰字를讀호면서一學生을請호여朝鮮文으로記
호라호該生이旁이라記호다然호나旁의初發聲은 ㄹ이다 ㄹ은半舌音第一
位에載在호였은즉 ㄹ을二制치안이호였을지라華東正音通釋에穰字의我漢音
을다양으로記호였으니旁의前音이 ㄹ이안이라然호나穰字의音을수에도漢人
은旁으로發호고△字가 ㄹ의次位에載호緣由도△字가 ㄹ에近호音이요 ㄹ과懸

珠호音은안음을可히破疑호지라또通釋에△字를半喉音이라호였으니喉音은
 舌호○이라然호나○은有若無호즉喉音의實音이發호는者는舌호요五音의第
 二位字는다第一位字에호가混호音이니△字는舌에富音호가合호音이分明
 호도다舌의合音은半舌音이라도호수잇고舌喉音이라도호수잇으니此等宗
 考의証호로觀호면△字는舌호의合音이確實호니半齒音이라호에亂호여誤解
 호바가안이니라

然호디前에我國에서△字호 記호漢字를 支那南方에서는△○(現在終聲과如호音)호로發
 호이 卷호故호△字의 音이△○의 合音이라호도 호고 龍飛御天歌에 記호△字를는 記호나
 古호의 合音호로發호는字호잇고 口호로發호는字호잇고 無音호는字호有호되라

○字는現今에行用호는終聲○과如호音인디明國學士黃瓚이著호韻會에三十六
 母를書日에朝鮮에서朝鮮文호로魚字母를○字호書호였으며正音通釋에平聲
 魚와上聲語와去聲御의支那音을유로記호였으니그初發聲이現今行用호는終
 聲○音이요我音은어호記호였으니通釋時에도前音을變호는것이라何故호前에
 는魚音을어라호였기에수에도口傳호여오는言語에는秀魚을송어라鯉魚를링
 어라호고鮠魚를봉어라호고鱧魚를룡어라호나秀、鯉、鮠、鱧의音에는前이
 나수이나今用○終聲이無호즉前音에는魚의初發聲이現今終聲○과如호였음

을可히知悉바요도正音通釋에魚의我音을어로記號였으니魚音어가어로變音
 과○을分別함이明白하고魚의傳來音은習慣音이如是音즉○은現今終聲○
 音과同音音인을을可히知悉바요수에鹹魚를추어다하고銀口魚를은구어라하
 는魚字의初聲을○音으로發音지아니한다고魚字의初聲이前에도○音이안
 라고斷言할수없는니다不再多言하고○字가現今에行用되는終聲○과同音音
 되는確證이有하니龍飛御天歌에現今終聲○과同音音是初聲間에다○字로書
 하고○은終聲으로書함이無함이初聲으로書함字가多하나다無聲함것이라二
 十一章에卷三十一에淸四十章에淸七十八章에淸八十章에淸八十九章에마
 음이라記號였으니此로可히○字는初終間에다今用終聲○과如音音인을可히
 知悉바요終聲으로는○을用치안이함도○이果然有若無音音인緣由니라

百字는음보다淸하고軟音音인前에는初聲을百字로記號漢文字의初聲은應當
 百도發音였겠고支那人은百字의初聲을發音는字가有하나다朝鮮語에는此音이
 無하나다

○은欲字初發聲이라하였으니欲字의音은前音이나속음이다初發聲은無하고속
 음이니有若無音것이다前이나속이나○을初聲으로用함字即아야어여오요
 우유어어가다正音에某某漢字中聲과如音다함는卜卜卜卜卜卜卜卜卜卜卜卜卜卜卜卜

故로

ㅈ는 ㄱ의 倒發音이요
ㅊ는 ㅋ에 倒發音이라

ㄱ에 |를 先發音이發音면 ㅋ니 卽 ㄱ에 |를 先發音는 合音이요
ㅋ에 |를 後發音이發音면 ㄱ니 卽 ㅋ에 |를 後發音는 合音이라

故로

ㅋ는 ㆁ의 倒發音이요
ㆁ는 ㆁ의 倒發音이라

ㄴ에 |를 先發音이發音면 ㄹ니 卽 ㄴ에 |를 先發音는 合音이요
ㄹ에 |를 後發音이發音면 ㄴ니 卽 ㄹ에 |를 後發音는 合音이라

故로

ㄹ는 ㄴ의 倒發音이요
ㄴ는 ㄹ의 倒發音이라

ㄷ에 |를 先發音이發音면 ㅌ니 卽 ㄷ에 |를 先發音는 合音이요
ㅌ에 |를 後發音이發音면 ㄷ니 卽 ㅌ에 |를 後發音는 合音이라

故로

ㅌ는 ㄷ의 倒發音이요
ㄷ는 ㅌ의 倒發音이라

ㄷ에 |를 先發音이發音면 무엇이니 卽 ㄷ에 |를 先發音는 合音이요
ㄷ에 |를 後發音이發音면 ㅌ니 卽 ㄷ에 |를 後發音는 合音이라

故로 무엇은 ㅅ의 倒發音이요

ㅅ는 무엇의 倒發音이라 할 노라

右와 如히母音의 六元素에다 ㅅ를先合하여나後合하면 ㅅ에는 ㅅ를先合하여도

ㅅ가相連하고 ㅅ에 ㅅ를後合하여도 ㅅ가相連함따름이니

ㅅ에 ㅅ를合하여發音은 그音이或長하여진다고는 하지언정 ㅅ外에무선合이더

加하여異하게發音이無호지라

故로 ㅅ에 ㅅ를合하는것은衍音이라

此로觀하면母音元素六字가 ㅅ外에는다各各先合하여도合音이되고後合하여

도合音이되나또다시解하면

ㅅㅅ의合音은 ㅅ로代表하고

ㅅㅅ의合音은 ㅅ로代表하고

ㅅㅅ의合音은 ㅅ로代表하고

ㅅㅅ의合音은 ㅅ로代表하고

ㅅㅅ의合音은 무엇으로代表할것이었

ㅅㅅ의合音은 ㅅ요

ㅅㅅ의合音은 ㅅ요

有古니 一을 二個치안이 有였을지라

然호則、는 一에 近호音이 요 音韻과 玉篇에도 吞은 音으로 思는 舌로 記호였으나
수에 吞을 단이라 讀호고 思를 사라 讀호는 中聲卜에 無關호를 再論호마가 無호
니 此는、가 一의 合音되는 第三証이라

前불어 婦라호는 朝鮮語는 朝鮮文으로 母는 二라 書호여 오는디

近來는 二의 本音即 前音을 訛호여 婦라 記호며 二리를 讀호時에는 母는 二라 호나
그냥 習慣으로 婦라 稱호는 言語를 聞호면 二리의 二를 二의 合音과 如히 發호
거나 二와 如히 發호나

前에는 二의 本音대로 婦라호는 朝鮮音을 隨호여 母는 二라 記호였음연즉

此를 推考호지라도、는 一의 合音이니 此는、가 一의 合音表된는 第四証이

요

近來는 記호호、를 讀호時에卜라 호나 正音에卜는 單字 中聲이라 호고、는 吞字 中
聲이라 호였으며 字會와 通釋에는卜는 阿라 호고、는 思_{不用初聲}이라 호였으니卜
、가 相同치안이 確實호지라

母音字은 已說호과 如히卜나 卜一卜나 卜一卜나 外에 又有호면 一의 合音別表
外에는 更有호者가 無호것은 즉卜는 阿가 爲면、는 一의 合音別表된 事實外

에他理由가無호니此는、가一一의合音表되는第五證이요

수에支那人에게阿恩의音을問호츄阿는聲卜다호고恩는스나시으의合音과如
히發호고

全韻을볼지라도司士事等字는다스르달았는디수에支那人에게問호여도스나
시으의合音이나의나시로發호되

沙查等字의音은사로달았는디支那人에게問호여도사라호고日本音으로도如
此호分別이有호니日本音도支那音으로도本을삼은緣由라此로推考호여도、
는一一의合音이니此는、가一一의合音表되는第六證이라호노라

政卜는高호고、는低호다호는者가有호니同音의高低로其字를異制호였으면
卜外에卜卜卜卜고卜卜一一는異制치안이호였을理由가有호며正音例에去
上平入分別호는表를써로만들었으리요卜高、低라호은足히介論호하가無
호니라

漢文思士等字를漢學家에서說讀호여사라호는習慣이已熟호고또朝鮮文은조
금도研究호여모지안이호는所以로漢文說讀의影響이朝鮮文에及호여、를
卜라호게되었으며朝鮮文의朝鮮語를誤讀호며誤書호여無法不一케호는弊
가거진다漢學家로流出되었는니라

요其餘는 다律呂로歸함이可하다云노라

正音에 無點、一點、二點으로 平上去入聲을 分別함은 母音의 長短廣狹의 分別을 表함인디 漢文韻을 依倣함이 안이니 漢文韻에 入聲이라 함는 것은 그 母音이 하나 히다 促急함여 ㄷ ㄹ ㄱ ㄴ은 終聲으로 表가 되느니라 다시 表함 것이 無함의 朝鮮語는 入聲의 母音도 長短廣狹의 分別이 有함여 無點、一點、二點으로 分別함은 그 子音을 分別함이 안이요 母音만 分別함이니 此三種 分別表가 母音의 長短廣狹만 分別함는 表가 됨이 明確함니라

然호나 此三種表로만 母音의 分別을 繼細히 表함은 못되 고 實用만 爲함이니라 高低長短廣狹은 母音에 當호 分別이요 子音에 關係가 無호 奇 此를 分別함는 表는 母音字에 附함이 音理에 適當함니라

權氏宗訓에는

四聲分點標式

ㅍ	一	上聲	入聲之上同
ㅑ	一	去聲	入聲之去同
ㅓ	二	平聲	入聲之入聲

原書點法廢失玆用細珠圍各於縱橫一大畫上分表而入聲之入聲은 宜乎終聲畫이다

음이라하고 음은濁音이라든지重音이라고만함이可하다 할노라

高低長短廣狹清濁輕重의別도天地의自然을理라我國特異한性을表準하여適當히分別함이오漢文의音韻만依倣함이바안이라 할노라

子音의接變 子音이相接하여發音時에는그相接하는形勢로自然히變하는것

기은시, 리, 口上에서○今用總聲과如호것으로變함

니과 리은如何히相連하는지니이리로變치안으면리이니으로變함

하디지리大는니리口上에서는니으로變함 은와 리는古가合音인디古外에디스만니으로變함

口은기上에서音의鍊連이無호는은이○으로變하여發音되此는本音대로發

音수잇는것이라然하나鍊連이無호者가○으로變하는것도口이기를違하여

얼마큼○으로變함만호形勢가有함으로變하는것이니此도天然의勢가안이

라할수업는나라

남이시, 리, 口上에서는口으로變함

기디남스는如何히相連하는지下字의發音은重호듯함

古는他子音과如何히相連하는지混合됨

言外에諸子音은如何히相連하는지先後대로加疊됨

何子音이든지同音이相連하면重音即雙音이됨

兩母音間에 幾何의 子音이 有는지 連讀를 면合音으로 發는지 上母音의 終聲
이든지 下母音의 初聲이든지 合하여 發는지니라

單音은 發하기 易하고 合音은 發하기 難함으로 幼兒가 山形을 各讀하여 山이라 稱
이라 呼時에는 山의 ㄴ과 形의 ㅎ을 다 發할 수가 山形을 連讀呼時에는 ㅎ을
다 發하지 못하고 혼이 ㅎ는 때에 山形이라 呼이 ㅎ을 한 聲에 發하기 難호 緣
由니라 此는 ㅎ가 軟音으로 幼兒가 安이라 도 예기가 易하거나 他子音의 合호
것은 더 易發하기 難호니라

某某國民들은 如此호 接變을 의 是러는 本音대로 強發하는 習慣이 有함으로 音理
에 違件됨이 有호되 朝鮮의 接變을 聞호고 도 是러 朝鮮의 習慣인 가거나 此接變
은 朝鮮의 習慣이 안이요 音理에 自然호 形勢니라

子音初聲의 形勢 子音은 始發호되 終發하는 形勢도 相異함이 有호니 初聲으로
는 本音대로 發호되 終聲으로는 變호거나 減함이 有함

(例) ㅅ ㄷ이 初聲으로 사 다 라 呼時에는 各各本音대로 發호되 終聲으로 止호여
ㅅ ㅈ 이 라 呼時에는 ㅅ이 ㄷ과 同호여 ㄷ이 ㅅ과 同호

ㅈ ㅊ 이 라 呼聲으로 止호면 ㅅ ㄷ과 相同호여 그 分別이 無함

ㅋ ㆁ 이 라 呼聲으로 止호면 ㆁ ㄷ과 相同호여 그 分別이 無함

나만發호과如호

終聲으로發호는合音도그位次를換호면一音은不發호이有호

(例) 肅 리이善發호의肅의리를換호여肅호면그을發호즉근은發호지안이
호고근을發호즉근은發호지안이호

朝鮮의習慣으로變호는音과發호치안이호는等音이有호니如左호

근을終聲으로止호면근로變호

근을音外에諸子音上에서는근로變호니此는근이音外에諸子音上에連호여發

호時에는單로發호기難호여근로變호이라故로接變이라고도호만호니라

근을卜그그卜一의初聲으로始發호면니으로變호

니어나근을나先合호母音即卜그그卜一의初聲으로始호여發호면그니이

나근은發호치안이호

근을나先合호母音即卜그그卜一의初聲으로는근로變호니畿湖黃江의方

音이根本됨

근을근으로變호는平安道の方音이根本됨

근을卜그그卜一의初聲으로는근로變호니畿湖黃江의方音이根本됨

근은수예行用을보면終聲으로는發호호고初聲으로는發호치안이호는근이初聲

으로書호오이其上에母音을連호면兩音을分호여合音되지못호게호는것이
習慣을成호지라龍飛御天歌에도호을初聲으로書호것이多호지다有若無호
表가되엿으니此는變音은안이나習慣이니라

ㅏㅑㅓㅕ는ㅓ이나ㅗ이나ㅜ나ㅛ나ㅜ로初聲됨을讀호時는ㅏㅑㅓㅕ로發호나
此는全國一般의習慣이다間或原音되도發호는者가有호나偶然音에不過호
으로準則호마가못되느니라然호나ㅓ이初聲된ㅑ는畿湖黃江에게는本音대
로發호느니라

ㅏㅑㅓㅕ는ㅓ로初聲됨을讀호時에는ㅏㅑㅓㅕ로發호고ㅓ은ㅓ으로變호여發
호나此는平安道の方音의習慣이라

子母의 分列과 子母가 各各 分合호과 子音의 接變과 習慣音을 辨論호 文字가 從來로 無호
나 此等分析의 實用에 益을 有호호호호右의 如히 略陳호노라

中聲獨用十一字

卜 阿 卜 也 才 於 才 余 上 吾 止 要 下 牛 可 由 一 應 不用 一 伊 只用 一 恩 不用
終聲 初聲

此는 中宗朝二十二年丁亥에 崔公世珍이 撰定호 訓蒙字會에서 朴公性源이 撰定호 華東正音에 附載호 것이다 訓蒙字會는 漢文을 類聚諺韻호 四字書로 作호 것
이요 總字數가 三千三百餘나 朝鮮文으로 義와 音을 載호 여 漢語의 初習으로 用호
것이다 正音이 頒布된 世宗朝丙寅年과 相距가 八十二年이요 今

隆熙二年戊申과 三百八十二年이다 朝鮮文의 큰 變革은 訓蒙字會에 在호 故로 字會
의 朝鮮文例를 正音과 悉互호 여 그 變革됨을 左에 略說호 노다

正音에는 子母字를 다 橫書호 엇는디 訓蒙字會에는 子音은 五音으로 分호 여 各音을
一行으로 記호 且 其頭에 角徵商羽宮은 正音에 無호 것이요 己은 徵音行의 下로 間
距호 여 記호 且 變徵이라 호 且 洪武韻作 半徵 半商이라 호 且 正音에 無호 것이요 △
字는 宮音行의 下로 間距호 여 記호 且 變宮이라 호 且 洪武韻作 半商 半徵라 호 且 正
音에 無호 것이요 正音에 半商音이라 호 且 是은 半喉音이라 호 且 是호

正書에 連書호 是輕唇音口○을 橫方字○로 代製호 여 唇音行에 連載호 且

正音喉音行에 有호 舌字를 廢호 且 華東正音의 前에 漢字의 舌初聲은 ○으로 換호 且

記호 且

은스이니스은디에當치안이홍즉議論홍마가업고其時에는宋의朝鮮語가쌍이던지知치못할거니와宋은恒用하는言언즉傳하는習慣이變하기容易치안이할엇으리니此는聲을알므로誤認하고디을名홍이리라何故오디을獨用初聲이라홍으로推觀하면朝鮮語에三終聲이有홍을知치못홍이니라或朝鮮語에三終聲이有홍을知하고디을終聲으로用치말라홍이면三終聲은디으로換用하라홍이니라

始는通釋에支那音과我音을다치로달았으나三韻聲彙에는我音치支那音지又次又次又次로달았으나此時에는티라할엇으리라

而는通釋에支那音을我音으로달았으며三韻聲彙에는我音이支那音지又이又시로달았으나此時에는티라할엇으리라

伊는通釋에支那音과我音을다이로달았으며三韻聲彙에는지又이又시로달았으나此時에는티라할엇으리라

並書의說은無하고通釋에漢文字를我音으로는並書한것이無하니以來로朝鮮語에도並書를終聲으로用치안이홍도此에서出홍이라호노라

卜 阿卜 也 卜 於 卜 余 卜 吾 止 要 卜 牛 可 由 一 應 不用 終聲 一 伊 只用 思 不用 此母音十一字的音을如

有音호 ㅊ을 엮지相近라 할지오此는此를謂호미 안이라 前에 漢文의 ㅊ ㅊ ㅊ로記호字의 初聲을 朝鮮에서는相近라기發호나 漢字의 我音은發호는대로音을書호 것이요此三字를廢호자호은안이니라 何故호此說은其히 模糊호여 何를謂호인 지解기難호나 通釋에 漢字의 音을 朝鮮文으로記호것을보면 支那音에는 ㅊ의 初聲으로記호미有호고 其字의 我音의 初聲은 ㅊ으로記호고 支那音의 初聲을 ㅊ로記호字는前에 ㅊ으로記호던字니 我音은 ㅊ으로記호엮으니 不必異호라호미 我音은異記호것이엮고 ㅊ은 ㅊ으로用호고 ㅊ은 ㅊ으로만호자호이라

ㅊ字는伊라호엮으니伊의音은수음이안이요 前音을謂호미며 ㅊ은異聲이라호엮으니 異는古수음이다이요 擬의終聲은天伊의前音初聲과同호音이라 初終間에同音이면同字로記호호여可호나 一例를舉호호각으로觀호면卜의初終聲이다同호故도初終에다同字기으로記호나此例를依호면相同호音을相異호字로初聲에는 ㅊ字로終聲에는 ㅊ으로書호미不可호지라 然호즉字 ㅊ을用호면 初終間에다 ㅊ字로만書호것이요 ㅊ을用호면 初終間에다 ㅊ으로만書호미可호지라 然호즉有音호字에만 一表를擇定호호여 初終에다同字로用호것이요 無音호은表도用치안이호미可호다호노라

通釋凡例에 華音之수者는수우之間音이라호은 漢文字가 支那音이든지 我音에 ㅊ

의初聲으로 △^ㄹ ^ㄹ가無聲여通釋에도수로음을記호것은一字도無聲고尤韻投
 搜鷹脯撤鐵漱澗澗搜外有韻投搜數數搜撤搜外有韻搜撤漱澗澗搜子의支那音
 을수로記호엇으니스의上畫人과下畫一가近着호면△가되기易호지라此는刊
 板時에制剛의過失도수로誤列호이니우者는수우의韻音이라호우는수
 가안이요수를謂호이니라

同音이라호기甚히 檢釋호 名稱인기 韻에 同音이라호는 實也 觀호면 아 合音이니라

通釋凡例에凡字皆有初中終三聲必將三聲併合然後乃成一字라호엇으니가字로
 만觀호여도기과卜兩聲이合호여一字를成호엇거늘必將三聲併合然後에乃成
 一字라호은不可호니라

俗用十六行反切은何時에何人이始稱호인지未微이어니와그次序가三韻彙의例
 와同호나此後로行用된듯호며俗에人一○을시외니병이라호은異凝以外十五
 行의各字에一發後合^{俗稱}호는字가朝鮮語와漢文音에多호고異의音이一와同
 호여기ㄹㄷㄱㄴㄹㅁㅂㅅㅇ은다後合호는字들인故로一도此行에記호고此를讀호
 時에人의名時[○]의上音을下호고異凝의一音을上호여외라稱호인가보며○을
 병이라호은凝의誤讀인디此는轉說의尤甚호者라足히辨論호마가못되느니라
 自來로自國言文을學習호며研究호며正誤호는者가無호고惡好凝孩에기만一

고同字의音으로도만議可연文과音이相同하고또역혀은不可호니라如何호든
지同歌의朝鮮文은可取호字가不少호나音理와語式이相當호못호이또호不少
호여朝鮮文의弊가此歌에서始出호니라

龍飛御天歌에人을兩名號間에置호이가호고上名號末에附호도有호니六章에東
海之濱을東海人이라호고五十五章에天星을하하리라호이라發音으로는一般
이나人을上名號를形名體로變호기爲호여加호는것이요下名號에는關係가無
호즉上名號에附호이可호니라又△△△卽△△△호고△△△字를終聲으로書
이호有호니라朝鮮語에可호기記호도有호고不可호기記호도有호며△漢字音下
에附書호이가호니라又一百九章에金孫△이라書호것인디此△은들을△로줄여
서發호는것을書호이라나들의들을줄여△만發호을남△로書호니此例를依호면
朝鮮文을交用에호時도漢字下에附發호는音도附書호이可호니라

同歌의朝鮮文의語體와音理에下可호기記호것이不少호나如何호子音이든지
初終에通用호이証據됨으로子母字를轉換隨用호은束縛이無호나中葉으로誤
解註用호는弊를辨明호고朝鮮語의音대로任意取用호자호기에確實히証據의
는文字니라

近來로는△을終聲에廢호고△으로通用호니此는偶然히成習된弊라然호나自初

구 羅 무릇 凡 이우 部 (并名) 字

빛 洗 벗 脫 손 握 밧 披 잇 有 때 貸 (并動) 字

반듯 正形 (字)

ㄷ 終聲

단 田 말 受 견 檢 민 個 번 覆 돌 昇 上 생 生 열 習 (并動) 字

곧 直 곧 堅 (并形) 字

ㄹ 終聲

물 陸 亦 곧 末 亦 밑 本 경 榜 (并名) 字

말 任 喜 散 밧 漢 近 곧 附 看 부 辱 研 때 貸 吐 (并動) 字

연 淺 同 似 如 (并形) 字

ㅅ 終聲

낮 午 (名) 字

샷 毒 맛 迺 맺 結 잇 繫 잇 冠 잣 桐 貸 植 짓 濕 부 習 질 吐 부 受 辱 (并動) 字

낮 低 낮 晚 맛 合 (并形) 字

大終聲

숯 從 受 逐 (并動) 字

고終聲 일로 앞 前 열 圖(并名)

덜 禮 앞 特例(并動)

높 高(字形)

ㅎ終聲 쌍 續 낫 重 넣 入 놓 重 앞 圖(并動)

종 好(字形)

ㄱ終聲 작 刺 닷 沈 적 或 穢 식 和 북 妙 남 釣 魚

밖 外(字名)

ㄴ終聲 닭 雞 샅 裡 ㅅ 土(并名)

의 義 ㅅ 括 ㅅ 擘 오 網(并動)

말 情 ㅅ 明 ㅅ 赤 ㅅ 厚 大(并形)

ㄹ終聲 여 婦 人(字名)

밧 用(字動)

昌 廣 (形)

西 終聲

倉 麻 (字動)

卽 終聲

倉 文 (字動)

少 (字形)

悉 終聲

失 服 (不圖)

不 圖 (并動)

可 可 (并形)

不 不 (并形)

臥 終聲

無 用 (動形通)

亦 亦 (字名)

以 終聲

坐 (字動)

正 終聲

既 (字動)

以 終聲

亦 亦 (字動)

右陳玄朝鮮語中에 人終聲字는 俗에서 도 本體더 로 記用을 나 此는 人이 亡 又 大 云 等 字의 終聲과 不同을 辨別을 기 爲을 하여 同列에 記用이 宜 則 卽 等 終聲字는 前을 하여

本體대로記함이不無하니其體가如此함을未解하는者도多함으로同列에記함이
 요其餘는余가研究호愚見으로그朝鮮語의本體가如此하다함이더니隆熙元年十
 二月日에池松村錫永氏를尋訪호奇同氏가龍飛御天歌를求來하여余의게示하거
 뇨余가此歌를閱覽하다가大고를終聲으로記호字가有함을見하고大喜하여言
 하되朝鮮語에ㄷ大고ㄷ大고ㄷ大고等音이終聲으로發하는字가有하니此
 等字音을終聲으로도用함이事理에當當호지라然호奇他証을再要호마가無하니
 謝民正音에終聲復用初聲이라호엇고此歌에도大고等字를終聲으로書함이有
 하니前日에도此理를申復하陳說호마어니와如是함을未解호獨用說에牽引되어
 朝鮮文을永永誤用케함은決코不可하니俗習을改호고音理와語體에正當하게記
 用하여可히萬世에法될만호朝鮮文을成케하자호엇노라

記音文字는言語를本音여그言語대로記하는것이니記호文字가言語와相同호後
 에야可히文을成호것이어호以來의朝鮮文諸籍을觀하면語體와音理의如何함은
 不究호且僅僅히連發의音만強擧함이多호뿐더러連發音도不洽함이不少호여言
 語와文字가相左됨으로記文이其言과不同호여全히爲文의道를失호지라一例를
 舉호건대말은受則
 면을받으면. 받드면. 바드면. 으로各各己意를從하여書하니 받으
 면을連發호면바스면이요 받드면을連發호면바드면이니其音其體가其言과相背

古고마드면은連發는音은本語와相同호나말의ㄷ을移호여으면에冠호엇으니
 如此히書호을醫호면三二兩字를連發호時에三字의下畫을移호여二字에冠호여
 三字는二字로作호고二字는三字로作호여上下兩字의本體와本數를다變호여書
 호과如호호니此를엇지可호다謂호리오
 朝鮮文은朝鮮語의影子요朝鮮語의寫眞이라影子가其體와不同호면其體의影子
 가안이요寫眞이其形과不同호면其形의寫眞이안이라호文字와其體와不同호면
 朝鮮文의沿革을觀호면初也에는모든子音을初終에다通用호다가中葉에는ㄱ
 ㄷㄹㅂㅅ만初終에通用호고ㅇ은終聲으로만發제호여나近日에는ㄷ도終聲으
 로用치안이호호니此는言語가如此히變호여안이요文字로만變호것안디如此히變
 호호獨文字는管理와語式에漸漸違反됨으로流弊가甚多호여文이可호文됨에未
 及호호니此는朝鮮文의發達됨이안이요降衰됨이라
 天下萬事에다其理가有호호니理를順호면便호호興盛호고理를違호면難호호降衰
 호호니朝鮮文이今日에如此히降衰호은正音이頒布된지四百六十有餘載에語典
 一卷도未成호호懸準의無호을因호호일뿐더러從來로朝鮮語의研究는尙今默然호
 여可否의別을未詳호호으로用法이其理에違反호호이來호緣由니라
 余가十七歲壬辰에英文萬國地誌를學習호호여나英文의子母音을解호고轉호호여朝

의 思想을 引導하는 것이요

此 音學은 總히 文典을 學習하는 準備料가 되는 故로 題를 朝鮮語文典의 語學이라 하니
못 朝鮮文의 音學이니라

隆熙二年七月 日

大韓京城尙洞第二回夏期朝鮮語講習所講師 周時經

[Faint bleed-through text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mostly illegible.]

序

宇宙自然의 理도 地球가 成하며 其面이 水陸으로 分하고 陸面은 江海山岳沙漠으로 各丘域을 界하고 人種도 此를 隨하여 區區不同하며 그 言語도 各異하니 此는 天이 其 域을 各設하여 一境의 地에 一種의 人을 産하고 一種의 人에 一種의 言을 發하게 함이 是是以로 天이 命한 性을 從하여 其域에 其種이 居하기 宜하며 其種이 其言을 言하기 適하여 天然의 社會로 國家를 成하여 獨立이 各定하니 其域은 獨立의 基요 其種은 獨立의 體요 其言은 獨立의 性이라 此性이 無하면 體가 有하여 도 其體가 아니오 基가 有하여 도 其基가 아니니 其國家의 盛衰도 言語의 盛衰에 在하고 國家의 存否도 言語의 存否에 在한지 是是以로 古今天下 列國이 各各自國의 言語를 尊崇하며 其言을 記하여 其文을 各製함이 다 此를 謂함이라 我朝鮮은 亞洲東方 溫帶에 在하여 北으로 靈明한 長白山이 特秀하고 東西南으로 溫和한 三面海가 圍繞한 半島니 古時에 是 長白山이 中央이요 北은 滿野를 盡하고 其餘 三面은 突東西南海라 天이 此域을 界하고 我人種을 産하고 其音을 命하며 此域에서 此人種이 此音을 發하여 言語를 作하고 其言語로 思想을 相達하여 長白四疆에 繁衍하며 許多年代를 經하여 檀祖의 開國하신 以來로 神聖한 政教을 四千餘載에 傳하니 此는 天然特性의 我朝鮮語라 世宗朝에

서天縱의 大聖으로 朝鮮語에 相當한 文字가 無함을 憂慮하시 朝鮮文二十八字를 親割하시매 字簡音備하여 轉換記用에 不通함이 無하니 此는 天然特性的의 我朝鮮文이라 朝鮮文이 成한 後에 朝鮮語로 著作하는 文字가 繼出하여 其籍이 頗多하나 오히려 朝鮮文을 鮮用하고 漢文을 是崇하더니 往年甲午에 科擧法을 廢한 後로 漢文의 聲勢가 退縮하여 學習하는 者가 稀置할 뿐더러 近者에는 朝鮮에 教育新法이 行하며 前日과 如히 專業하고자 하나 不得할지니 漢文의 衰殘은 免하기 不能한마요 朝鮮文은 近來로 公私間에 盛行하니 可히 漸進의 連을 當하엿다 謂할지라 然이나 至于 今字典을 未修하여 由來의 文字와 今日의 行用함이 다 正音의 原調과 朝鮮語의 本體를 未得하고 其連發의 音만 僅構하며 此音을 彼音으로 記하고 彼語을 此語로 書하며 二音을 一音으로 合하고 一音을 二音으로 分하며 上字의 音을 下字에 移하고 下字의 音을 上字에 附하며 書書不同하고 人人異用하여 一語을 數十種으로 記하며 文字를 誤解하는 弊가 語音에 及하고 語音을 未辨하는 害가 文字에 至하여 文言이 不同하며 前人之 謬를 後人이 襲하고 彼人之 誤에 此人이 醉하여 苟且 相因하고 混亂相尋에 穿鑿無稽한지라 今曰로 觀하면 漢文은 已衰하고 朝鮮文은 如斯하여 有함이 無함과 一般이요 進함이 退함과 同歸함이니 我朝鮮이 엿지 有文의 國이라 謂함을 得하리오 噫라 文政의 任에 據하며 教育의 壇에 立하신 諸公은 此를 深思할지어 다 余가 鹵莽의 見으로

去戊戌에 此書를 著하며 友人이 有하여 刊行하기를 言하거늘 그 研究가 鄙拙하며 措辭가 粗雜함으로 辭却하고 高明한 研究家의 出함을 是嫉하더니 近者에 國文 研究所가 官設되어 朝鮮語를 研究하는 人士가 日增月加할서 此書에 參互할마가 有할가하여 請求하는이 가 一二에 止하지안이 함으로 이에 井蛙의 觀이 萬一의 補가 될가하여 割剛에 付하노니 有志諸公은 我言文을 深究精研하여 字典文典을 制하며 後生을 獎勵하여 我朝鮮의 萬幸이 되게 하소서

隆熙二年七月 日

周時經書

朝鮮語文法

한헌생 周 時 經 著

朝鮮文의 소리

(此는言語를記用하는文字의音學인故로 그規模가律呂나物理의音學과不同 하되其理은一般이니라)

音의發源 物振이니라

音의퍼짐 氣波니라

音性 發體의性을隨하여相異한바라(本)人人의不同。木石의不同

無別聲 웃음소리와불음소리의分別이無한聲이니라(本)風雷木石等聲

有別聲 웃음소리와불음소리의分別이有한聲이니라(本)動物聲

웃음소리 · 自發하는音(本)卜等

불음소리 웃음소리에附發하는音(本)丁等

(종이)가卜은丁이無하여도自發하고丁은其音이自在하되發하지못하고卜에附發하여見하니라

卜卜이러니止丁可一一、 다 웃음소리

를觀하면 ㅁ字를 ㅅ音과 如히用한지라 本歌에 X語記法은 不精함이 不少하니
오심게도 正當히記함이 認하지 못할 것이오 正當히記함을 認하지 못하면 오
심게에서 ㅁ字의 原音을 求하기 不能한지라 國音을 考하니 漢文影母와 如한音
卽 ㅁ音은 得보하지 못할지라 故도 오심게는 朝鮮語니 挹字初發聲卽影字母 ㅁ
字는 本語에 不當한音이라 然한즉 ㅁ字는 漢文影母에 當한音이요 朝鮮語에 無
한音일뿐더러 ㅁ에 ㅁ字가 안이라도 朝鮮語를 記하지 못할바가 無하니라
朴通事釋證에 不六을 如此히懸함이 有하더라

訓民正音에 唇輕音이라 한 ㅁ ㅂ ㅅ ㅆ ㅈ ㅊ ㅅ ㅈ ㅊ 이 有한데 申公叔舟四聲通釋凡例에 合
唇作聲爲日 而曰 唇重音爲日之時 將合勿合 吹氣出聲爲日 而唇輕音制字 加空
圈於日下者 卽虛唇出聲之義也 ㅁ ㅂ 二母亦同이라 하니 此에 唇輕音을 可히 知
할바요 龍飛御天歌에 朝鮮語音도 ㅁ을 記한字 有하니 六十一章에 ㅁ字를
저의라함이 有함 其後에 唇
輕音字를 朝鮮語에 用함이 無하오 朝鮮語에 唇輕音이 無하며 假使唇輕音이
有하다 할지라도 ㅁ에 唇輕音이 안이라도 朝鮮語를 適合하게 記하지 못할바가
無하니 朝鮮語에 唇輕音을 要할바가 無하니라

四聲通攷凡例에 凡齒音齒頭則舉舌點齒故로 其聲淺整齒則卷舌點腭故 其聲
深我國齒音 ㅁ ㅆ 大在齒頭整齒之間於 訓民正音無齒頭整齒之別 今以齒頭爲

全濁

羣 ㄑㄩㄥ 定 ㄉㄧㄥ 並 ㄉㄧㄥ 奉 ㄉㄥ 從 ㄉㄥ 牀 ㄉㄥ 匣 ㄉㄥ

不濁

疑 ㄩㄝ 泥 ㄋㄧ 明 ㄇㄧ 微 ㄨㄟ 邪 ㄒㄩㄝ 禪 ㄔㄩㄝ 心 ㄒㄩㄝ 審 ㄒㄩㄝ 喻 ㄩㄝ 來 ㄌㄟ 日 ㄉㄟ

全清

全濁

訓民正音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余爲此闕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并書如韻字初發聲

ㅋ 牙音 如快字初發聲

ㆁ 牙音 如藥字初發聲

ㄷ 舌音 如斗字初發聲並書如單字初發聲

ㄸ 舌音 如吞字初發聲

ㄴ 舌音 如那字初發聲

卜	上	丨	一	●	△	己	○	ㄅ	ㄆ	人	大	丩	口	正	日
如	如	如	如	如	半齒音	半舌音	喉音	喉音	喉音	齒音	齒音	齒音	唇音	唇音	唇音
單字	洪字	侵字	即字	吞字	如穰字初發聲	如圓字初發聲	如欲字初發聲	如虛字初發聲	如搨字初發聲	如成字初發聲	如侵字初發聲	如即字初發聲	如彌字初發聲	如漂字初發聲	如鸞字初發聲
中聲	中聲	中聲	中聲	中聲				並書如洪字初發聲		並書如邪字初發聲		並書如慈字初發聲			並書如步字初發聲

리(理)等 몇소리

웃음불음두소리가各各호(呼)음의別이有하니호(呼)소리는淸하고음(音)소리는濁하니라

(잡이) 漢文淸濁法은初聲되는불음소리만論하니大槩그호(呼)소리는全淸이라하

고서(耳)소리는次淸이라하고적(息)소리는全濁이라하고疑(疑)尼(尼)明(明)微(微)喻(喻)來(來)日(日)母(母)는
不淸不濁이라하는四種의別이有한데朝鮮에는不淸不濁의音이無하니라

漢文의淸濁別을精히研究할從經(從經)은朝鮮文淸濁으로相照함이在하니라

(잡이) 喻母 웃음소리뿐이랴

漢文唇音에輕重의別이有하니라

漢文齒音에齒頸正齒의別이有하니라

낮내 웃음소리뿐이든지웃음소리가불음소리를附하여發합이든지獨發합이든지
發發합이든지一團으로發하는音을다낮내라이름이니例로우리가 밝고곧다

라하면우와리와나와라와가와밖과과와금과다를各各한낮내라하니모도아
흠낮내니라

웃음소리의 때 때는發하는時間의
長短을이름이라

웃음소리는此淸濁別外에高低長短廣狹強弱의別이有하니高低는振數요長短

은時間이요廣狹은器作 物理學의廣狹
說가不同함 이요強弱은振境이니라 發聲은곳
發聲니라

그에 卜 가連하면 訖 치기 쉽고
丁에 ㄱ 가連하면 訖 치기 쉽고

卜에 丁 가連하는지 ㄱ에 卜 가連하는지 ㄱ에 丁 가連하면 訖 치어 내기 難하니 此는 朝鮮의 習慣이니라

〔잡이〕 訖 訖 치는 것도 位次를 換하면 訖 訖 치지 안이 하는 것이 되는 者가 有하고 難

合音도 位次를 換하면 善合音이 되는 者가 有하니라

웃음소리는 다 訖 訖 치고 쉬이어 訖 치는 것이 無하여 같은 소리가 서로 訖 치면

곳할 소리가 訖 卜에 卜 가 相連하여 訖
訖하면 卜 가 訖는 類 으로 붙음소리와 如히 變合되는 것은 無할

붙음소리의 合性 붙음소리는 쉬이어 訖 치는 것도 有하고 訖 訖 치는 것도 有한데 訖

訖 치는 2 位次를 換하면 거진 다 兩音이 並發하지 못하니 본 으로 訖 土의 訖 소리

리은 ㄱ이 先發하고 ㄱ이 後發한 者라 그 先後를 換하여 訖로 ㄱ을 先하고 ㄱ을 後하

여 並發하면 ㄱ을 發한 ㄱ을 不發하고 ㄱ을 發한 ㄱ은 不發하여 如此한 類가 多

하니 此는 其性 訖 이 使然함이니라

〔잡이〕 세 소리의 訖 以上이 連發하면 其中에 訖이 不發하는 者가 有하니 此로 其性이

使然함이요

또 웃음소리는 지 붙음소리의 訖은 發하기 易하고 訖은 發하기 難한지라 故로 訖

上에 | 를先合하여發하면고니即上에 | 를先發하는겹소리요
上에 | 를後合하여發하면고니即上에 | 를後發하는겹소리라

故로

고는그의例發함이요
니는그의例發함이라

下에 | 를先合하여發하면고니即下에 | 를先發하는겹소리요

下에 | 를後合하여發하면고니即下에 | 를後發하는겹소리니라

故로

고는그의例發함이요
니는그의例發함이니라

一에 | 를先合하여發하면무엇이니即一에 | 를先發하는겹소리요

一에 | 를後合하여發하면고니即一에 | 를後發하는겹소리라

故로

무엇은一에例發함이요
고는무엇에例發함이라

右와如히六元素을들소리에다 | 를先合하거나後合하면一에는 | 를先合하
여도 | 가相連하고後合하여도 | 가相連할따름이니 | 에 | 를合하여發함은
그음이或長하여진다고는할지언정 | 外에 무슨음이더하여異하게發함은
無한지다故로 | 에 | 를合함은衍文이니此로觀하면을들소리의元素되는六
字가 | 外에는다各各先合하여도잘겹치고後合하여도잘겹치니이를다시講
면

一卜의 겹은 卜로 代表하고

一十의 겹은 十로 代表하고

一上의 겹은 上로 代表하고

一丁의 겹은 丁로 代表하고

一 一의 겹은 無엇으 代表하였을 것이요

卜 一의 겹은 기요

十 一의 겹은 기요

上 一의 겹은 기요

丁 一의 겹은 기요

一 一의 겹은 기요

二 一의 겹은 사요

三 一의 겹은 거요

四 一의 겹은 내요

一 一卜 一의 겹은 내니 餘는 다 此와 做함

또 此를 觀하면 六聲音소리 외모든 各소리의 卜 十 上 丁 一 六元素의 서로 겹치는 것
이라 故도 此六個소리가 서로 겹치는 대로 그 表도 그 各字를 合하여 卜 一의 겹소리

全韻玉篇에吞의我音을 다음으로懸하고四聲通解에漢音을 들음으로懸하였으나俗音과蒙韻은 다음으로懸하고三韻聲業正音通釋華語類抄奎章全韻에漢音을 다음으로懸하고訓蒙字會에、는思不用이라하였는데三韻聲業正音通釋奎章全韻玉篇에다我音을 스도懸하고四聲通釋三韻聲業正音通釋奎章全韻에다漢音을 스도懸하였고近日漢語學家에서도吞을吞思를 스로懸하니吞의中聲과 스의不用初聲은 다一라一는有하니一을반듯이二韻하지안이하였을것이오、는一에近할을可히知할바며近來로朝鮮에서吞을단思를사로讀하는卜와關係가無함은再論할바가無하나正音에卜는單字中聲이라하고、는吞字中聲이라하고字會에卜는阿라하고、는思不用이라하였으니卜、가相同하지안이함이明確하고、로記한朝鮮語도後來로卜라讀하는者가多하니此는漢字音에서、를卜라讀하는習慣이朝鮮語音을讀함에及한影響이라龍飛御天歌에、로書한朝鮮語音이卜나一나一로發함도有하나十에八九는다一와如하고어시닐까거늘로書함을觀하면卜下에는늘로書하고一下에는늘로書함이니前에예를一下에는흔이에로書함과如함이라할지라故로、과一一의겹소리됨이라할만하고前부터油라하는朝鮮語는기름으로書하여오는데此를讀할時에는흔이기림이라하나習慣으로油라稱하는言語를聞하면기름이라하니此言의一을前에、로

記함이니、가드한一에近함을可히知할마요韻家字會에八을여등팔로懸하였는데其後로여등팔로懸하고드土를高로懸하였는데其後로高로懸하니드한、가一에近함을可히知할마요沙字는四聲通解韻家字會三韻聲彙正音通釋奎章全韻玉篇等書에我漢音을다사로懸하였는데수에支那人에問하여도其音을사라하고由來로我音을스스로懸한모든漢字音은漢音으로는스나시로懸하였는데수에支那人에問하여도如此하며日本音으로도如此한分別이有하니日本音도支那音으로本音을緣故라四聲通攷凡例에我音、則漢音、一之間一、之間一則一一之間이라하였으니、가一와一에近함을可히知할바라一와一은다로有한즉一나一는二制하지안이하였을것이요、는一一의접소리되는近境이니此는、가一의접소리되는第三證이니라

불음소리의接變

불음소리가相連하여發할時에그連發하는形勢의自然함을因하여變함이有하니_나 適合性의關係라

가₁의₁과₂과₃과₄과₅ 수用總聲○受國語等
音字의總聲과如한것 上에서는₆ 音於聲과
如한것 으로變하니라

나₁과₂이그先後를如何히相連하든지나₁이₂로變하지안이하면나₁이₂으로變하니라

(잡이) 齊 소리의 때로 強發하면 善連하지 못하고 變하면 그 發함이 順하여 善連하
니라

웃음불음運接의異性

불음소리가 相連하여 合發함이 其間에 웃음소리가 入하면 自然相離하고 불음소
리는 더 入할지라도 相離하게 못하며

웃음소리가 相連하여 合發함은 其間에 불음소리가 入하면 自然相離하고 웃음소
리는 더 入할지라도 相離하게 못하니라 轉離에서 웃음소리의 聲不離合의
別이有함은我國의 聲價이니라

此는 불음소리와 웃음소리의 性質이 不同하여 불음소리는 불음소리끼리 접치고
웃음소리는 웃음소리끼리 접치며 웃음소리와 불음소리는 相連할지라도 접치
는 안이하고 불음소리가 웃음소리에 依하여 發할 따름인緣故니라

불음소리 初聲의 形勢

불음소리는 始發하고 終發하는 形勢로 相異함이 有하니 初聲으로는 本音대로 發
하되 終聲으로는 變하거나 未現함이 有하니라

(본) ㄱ ㄷ ㅈ ㅊ 가 사 다 자 하 라 할 때에는 各各本音대로 發하여 지되 各各終聲으로
止하여 ㄴ ㄷ ㅈ ㅊ 때에는 그 終聲이 相同하니 此는 其勢의 自然함이니라
(잡이) 大 ㄴ 도 終聲으로 止하면 ㄱ ㄷ ㅈ ㅊ 와 相同하니라

上은 초음 초음 下에 웃음 소리가連하면 本音대로發하여 지니 此는 終聲으로 止하던 形勢를 脫하여 우에 웃음 소리의 終聲으로 止하지 안이 하고 말에 웃음 소리에 依함을 得하는 緣故니라

항는 止할時라도 本音대로發하면 人 口보다 虛하니라

크 大 二 三 字가 終聲으로 止하여 上은 초음 下에 웃음 소리가 連하면 本音대로發하고 古는 不發함과 如하니 終聲으로 止하는 自의 形勢로 古의 發함을 感得하기 難한 緣故 辨안이 요 古를 들어 나게 發할 수 없음을 이니라

朝鮮語習慣소리

朝鮮語의 習慣으로 變하는 소리와 發하지 안이 하는 소리가 有하니 左와 如함

크 은 終聲으로 止할時와 古外에 모든 古음 소리 古에서는 古로 變하니 此境遇에는

古로 變하기 難하고 오히려 變古로 發하기 易한 緣故라

크 을 잇다 古음 소리와 古上에서도 古로 發함 (본) 말아가 올날과가 發할時가 古이 古發함 모래라고 도리고 古음에 이고 도이여 一二

圖인 이 古음의 發할時가 有함

크 을 卜 크 卜 下 에 初聲으로 始發할時는 古으로 變함

크 이 나 크 이 나 卜 나 先合한 웃음 소리 古 卜 크 卜 古 에 初聲됨을 始發할時에는

크 이 나 크 은 發하지 안이 함

디이ㅣ나ㅣ先合한웃등소리곳ㅣㅏㅣㅑㅣㅓㅣ에初聲으로는ㅏ로變함
ㅏ를혼이디으로變함

디를ㅣㅏㅣㅑㅣㅓㅣ의初聲으로는大로變함

ㅏㅣㅑㅣㅓㅣ가디ㅏㅓ大디로各各初聲됨은ㅏㅣㅑㅣㅓ로變함

디이ㅣㅏㅣㅑㅣㅓㅣ의初聲됨은디으로變함

디終聲을其下에某字가連發할時에는혼이發하지안이함이有하니

을지는우지라할時가有함

을는은우는이라함

ㅏㅓ도는혼이ㅏ도라함 此는을은ㅏㅣ가連發하여
아發하기難함을因함이라
어는本合에모다發할수잇는것이니라

디終聲을其下에某字와連發할時에혼이發하지안이함이有하니

ㅏㅓ지들혼이발지라함 此는을은ㅏㅣ가連發하여
아發하기難함을因함이라
어는本合에모다發할수잇는것이니라

(잡이) 발지라할時도有함

총으면이라하는말의ㅏ를發하지안이함

人終聲을其下에某字와連發할時에는혼이發하지안이함이有하니

엇째으면則을이으면이라함

○終聲을其下에某字와連發할時에는不發함이有하니

당도 초를 다 도라하는 자가 있음

○ 終聲을 其下에 某字와 連發할 때에는 不發함이 有하니

나 ㅁ으로 變의 音을 혼이 發하지 안함

높고 ㅁ을 높고 ㅁ함

○ 終聲을 其下에 某字를 連하여 發할 때에는 ㅁ으로 變함이 有하니

ㅁ는 ㅁ은 ㅁ는 이라 함

ㅁ 音 들 ㅁ와 같이나 ㅁ

ㅁ 音을 저의 소리대로 ㅁ이 기 도하 나 혼이 ㅁ ㅁ으로 나 ㅁ

ㅁ 終聲을 잇다 ㅁ ㅁ으로 變하여 發하는 者가 有하니 ㅁ모 들 或 ㅁ모라 함

ㅁ 初聲을 잇다 ㅁ ㅁ으로 變하여 發하는 者가 有하니 ㅁ모 들 或 ㅁ모라 함

(잡이) ㅁ는 ㅁ이 는 性質이 有하니 ㅁ ㅁ나 ㅁ ㅁ의 ㅁ發함이 相同한 지라 故로

ㅁ는 의 ㅁ音으로 觀하면 ㅁ와 ㅁ의 ㅁ에서 發하는 소리가 ㅁ하 라는 사

와 ㅁ에 ㅁ에서 發하는 소리와 ㅁ相同하니라

(잡이) ㅁ에 ㅁ한 ㅁ은 ㅁ地方의 다름이 잇으나 ㅁ別하지 ㅁ하 노라

以下에 ㅁ한 ㅁ의 ㅁ는 ㅁ하 하여 ㅁ正할 ㅁ를 講究하고 ㅁ함이라

朝鮮文記習

由來로 語式과 音理에 不合하게 記用함이 有하니 其概가 如下함

朝鮮語는 ㄷ과 ㅅ의 終聲이 自別한데 龍飛御天歌에 直이라 하는 朝鮮語를 ㅅ字로 記하고 得이라 하는 朝鮮語를 ㅅ字로 記하였으니 此는 朝鮮語소리와 文字를 相同하게 記함이라 然하나 由來로 ㅅ字를 終聲으로 用함이 彼此를 未辨하였으며 近日에는 ㄷ을 終聲에 不用하고 ㅅ으로 通用하여 ㅅ을 ㄷ으로 讀함이 有하니 此는 文字를 誤用하는 習慣이 尤 朝鮮語가 變함이 安이니 脫이라 하는 朝鮮語 몇의 終聲은 ㅅ으로 發하고 覃이라 하는 朝鮮語 몇의 終聲은 ㄷ으로 發하여 此兩終聲이 自別하게 記者와 讀者가 다 此를 辨別하지 못함으로 此弊가 生함이 도다

本國歌曲과 如함에 ○ 今用終聲 〇 ㅅ은 ㅅ의 終聲과 如함은 ㅅ의 終聲이 의 初聲이 有하고 此外에도 ○ 初聲의 發함이 有하나 近來에 文字로 發하지 못하니 此는 ㅅ 〇의 變革으로 從出한 弊 尤 語音의 變함은 安이 나라

訓民正音에는 終聲復用 初聲이라 하였는데 龍飛御天歌 三十四章에 深이라 하는 朝鮮語를 ㅅ字로 記하고 高다 하는 朝鮮語를 ㅅ字로 記하고 七十八章에 隨라 하는 朝鮮語를 ㅅ字로 記하고 또 ㅅ을 終聲으로 用함이 有하니 此는 何字든지 朝鮮語대로 實地에 通用한 例가 되는 지라 然하나 本歌의 朝鮮語記法은 甚히 不精한 지라 故

도池錫永氏가朝鮮文에胎病이有하다함이此를謂함이라

訓蒙字會에는朝鮮語소리에ㄱ△남等字를不用하였으니

ㄱ字는此書以前未어朝鮮語에不用하였나니

龍飛御天歌의記法을多少改良함이有未나朝鮮語에는天方大도等音이終聲

으로被하는字가多하거늘ㄱ英三治도及天之文曲田△○伊古等를一字로名하고獨

用初聲人字의說을始唱하여第二病泉을鑿한지다

是以로此病症이流하여由來文字와今日行用을觀하면朝鮮語의音理를未解하

고區區히그連發音만強擣함이多하여此音을彼音으로記하고彼音을此音으로

記하며二音을一音으로記하고一音을二音으로記하며上字의音을下字에移하

고下字의音을上字에附하며上字의音을上下字에分屬하고下字의音을上下字

에分屬하며此類에는不書하고彼類에書하며或은正을取하고或은俗을取하며

朝에는此法을用하고暮에는他意를從하여書書不同하고人人異用하며一言을

數十種으로記함이有하며文字를未解하는弊가語音에及하고語音을未解하는

害가文字에至하여言文이不同하며漢音의變를我音이被하고前人の謬를後人

이襲하여苟且相因하고混亂無稽하니이에고이研究하여크게澄清하지안이할

수없나니라

기난관

學術에 쓰는 말은 반드시 俗語로 다하지 못할 것이요。 또 맞지 안이함

과便하지 안이함이 잇음으로 여기에는 글 말로 쓰되 없는 말은 새로
表를 지어 쓰노라.

기난같은 쓰는곳

기는 낮 말을 이르는것으로도 쓰이니. 여러 가지 문 體나 파하는 말이니
어디에 있는것 이나 열

을 다르어 이르는 말을 각각 부르는 이름으로 쓰이라.

(본)우리나라가급다 하면 우리와 나라와 가와 급과 다 모도 다섯기

니라. 이러한으로기과함은漢
文字의 뜻과 다르니라

난은 分의 뜻과 같은 말이니 각 낮 기의 바탕 性質과 한가지의
뜻으로함이라 다르어 견에

發, 同種, 類의
뜻과 같은말 되는 分別이 잇음을 이름이라.

같은 研의 뜻과 같은 말이니. 배호나 알아내의 뜻과 루이나 研究의 뜻

과 한 가지로 쓰어 각기의 견예들 배음을 이름이라.

이러함으로 기난같이 다 함은 다 것을 天組인 諸語를
이르는기모함이라 을 궁일 각 낮 기를 배호

는것이라 이름이라.

기난을 들은곳이라함파한가지니 뜻一統
이름이라함파함을이름이라

여러 가지 열과 다르어 사람과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의 기는 매우 많으

되고 결에는 아홉 갈래가 있나니라.

一 입

여러가지 문과 입을 이루
하는기를 다 이름이라

〔본〕 사람게 나무 줄을 물
뚫잠 아홉

一 잇

내외가 짝잇의 합을 이
프는기를 다 이름이라

〔본〕 혀코 단말라
적하히 뜨이커라

一 음

내외가 지음속인음을 이
프는기를 다 이름이라

〔본〕 가 날자 락 다 락
잡 락이 잡 락

一 것

일기의 하나을기의 작한을 이
프는기를 가 지기를 다 이름이라

〔본〕 가 이 물 음 도 는
에 세 서 도 소 도

一 잇

음갈의 합갈에 잇어 지게 합을 이
프는여러가지기를 다 이름이라

〔본〕 좌 좌 요 면 으 면 이 면 나 으 나
이 나 다 가 는 계 사 어

一 언

일의가 지기를 다 이름이라
여러가지기를 다 이름이라

〔본〕 이 락 그 락 락 은 잇 락 한 무 손
이 락 한 락 한 락 한 무 손

一 억

늘나거나 늦거나 나늘소라
를 이프는기를 다 이름이라

〔본〕 다 실 의 락 지 락 그 락 현 현 이 락
정 락 락 네 우 락 락 락 락 락 락 락

一 늘

늘나거나 늦거나 나늘소라
를 이프는기를 다 이름이라

〔본〕 아 락
합

一 곳

한말을 다 맞서 합을 이프는
여러가지기를 다 이름이라

〔본〕 다 이 다 나 이 나 아 락 이 락
모 락 노 락

〔잡이〕 억에는 잇더하게(잇, 억)라 이르는 여러 가지기를 이르는것도
있나니라.

〔본〕 좌 우 는 잇 락 락 락 락 (잇, 소, 소)
라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깃거예는 잇기의 자리를 이르는 여러 가지 기도 잇나니라

잇 이름의 어휘로 잇
가려어 씬이라 잇 잇거하의 잇한
가려어 씬이라 움 움추의 힘음만
가려어 씬이라 깃 깃도 깃하
는 뜻이라 잇 잇한의 뜻과 한말의
깃음서로써 잇다

나게 하지 않어 하오한 나게 하지 않어 하오한
음의 뜻은 잇이라 언 언어한 의어와
나만 씬이라 억 억어하제 의어와
만가려어 씬이라 눌 눌나 의음
만 씬이라 깃 깃하 의
뜻이라 만

固有의權, 職, 任과한 固有의權, 職, 任과한
가려의 뜻으로 씬이라 자리 位置라한가려의
뜻으로 씬이라 잡이 잡아야 할 것이라 하
는 뜻으로 씬이라 본 본모기의
뜻이라

기난익힘

사람이가오

말이귀오

풀이자라오

풀이푸르오

꽃이곱다

물이맑다

얼음이차다

대가길다

아침이이르다

밤이착하다

사람일이정가음오뜻

말일이정귀음오뜻

풀일이정자라음오뜻

풀일이정푸르음오뜻

꽃일이정곱뜻다뜻

물이정맑뜻다뜻

얼음이정차뜻다뜻

대가정길뜻다뜻

아침이정이르뜻다뜻

밤이정착뜻다뜻

사람이 밥을 먹으오

소가 풀을 먹소

재비가 집을 짓소

물은 깨끗이 피오

나비와 벌이 깨끗으로 가오

적은 야기가 젖을 먹고 자오

한 사람이 노래 하면서 가오

어린 야기가 웃으면서 어머

니를 보오

그아가가 젖을 먹다가 자오

꽃에 먹을 쥘어 쓰오

저사람이 집으로 가오

그때들 집어 먹어라

배나 밤을 먹이라

가막이는 씻어도 걸다

봄이 되면 깨끗이 피오

사람이 정밥을 정먹을 오 곳

소가 정풀을 정먹을 소 곳

재비 집가 정집을 짓짓을 소 곳

물은 정 깨끗이 정 피을 오 곳

나비와 벌이 정 깨끗으로 가을 오 곳

적은 야기가 정 젖을 정 먹고 자을 오 곳

한 사람이 정 노래 하면서 정 가을 오 곳

어린 야기가 정 웃을 으면서 정 어머니를 정 보을

오 곳

그런 야기가 정 젖을 정 먹을 다 가 정 자을 오 곳

꽃에 정 먹을 쥘을 정 쥘어 정 쓰을 오 곳

저런 사람이 정 집으로 정 가을 오 곳

그런 배를 정 집어 정 먹을 으라 곳

배나 밤을 정 먹을 으라 곳

가막이는 정 씻을 으도 정 걸다 곳

봄이 정 되면 정 깨끗이 정 피을 오 곳

너는무선말을뜻하나

지금은이른아침이요

세사람이저내에있는대두사람

은고기를잡고한사람은그를

을잡소

꽃이피는데나비가오누나

솔은프르고눈은히도다

비가자조오니풍이잘크오

그사람이천천이가오

두름이가펼편날더라

몸을다잊어라

저리가오

말을정하게설어라

나는꽃학교로가오

나는학교에문저가오

그사람이담을착하게먹소

글을더읽어라

너는정우선말임을뜻뜻하나

지금일은조이른아침이요

세사람이저저내에있을대두사람

람일은조고기기를잡고한사람은꽃

그를잡을리잡소

꽃이정피는데나비가오누나

솔은프르고눈은히도다

비가자조오니풍이잘크오

그사람이천천이가오

두름이가펼편날더라

몸을다잊어라

저리가오

말을정하게설어라

나는꽃학교로가오

나는학교에문저가오

그사람이담을착하게먹소

글을더읽어라

글을 잘 읽어라

글을 더 잘 읽어라

소리가 파르게 가오

번개가 때우파르게 가오

나는 검은 고를 타고 나는 노래를

하자

아달이 밝다

한아예 들을 더 하면 빛이 오

가 랍은 내보다 크다

몸에는 나물이 혼하다

쇠는 무겁고 돌은 단단하다

뜻있는 사람은 일을 일우오

사람 말 곧 뜻 물어 봄 때 밥 제비 집 나비 벌 아기 젖어 머니 붓 먹 때 밤

가 락이 너 내 고기 그 물 술 눈 비 두름이 몸 뜰 나 학교 글 번개 검은 고

달 가 랍 나물 쇠 들 아 침 암 몸 말 지 금 소리 노래 한 아 들 셋 뜻 일 은

다 임 기 니 사 랑 말 곧 뜻 물 얼 음 때 밥 소 제 비 집 나 비 벌 아 기 젖 어

글 읽을 것 잘 의 읽을 어라

글 읽을 것 더 잘 의 읽을 어라

소리 입 가 것 파르 게 가 음 오

번 개 입 가 것 때 우 의 파르 게 가 오

나 입 는 것 검은 고 림 들 것 라 음 고 쇠 너 입 는 것 노래 입

를 잘 하 술 자

아 술 달 림 이 것 밝 혀 다

한 아 예 들 것 들 림 을 것 더 하 음 면 림 것 이 요

가 랍 림 은 것 내 림 보 다 크 크 다

몸 림 에 것 나 물 림 이 것 혼 하 려

쇠 림 는 것 무 겁 고 돌 림 은 것 단 단 하 려

뜻 림 있는 것 사 랑 림 은 것 일 림 을 것 일 우 음

머니 북의 배 밤 가막이 너 내 고기 그물 술 준비 두류이 몸짐 나 글
면찌 검은고 가람 나물 쇠 돌은 다 바탕이 있는 몬의 임연데 그 속에 너
나와 같은 기들은 다 저의 임을 더신 표하는 임이요 그 남아는 다 저의
임이며 아츨 남 불 말 지금 소리 노래 한아 들셋 뜻 열과 같은 기들은 다
바탕이 없는 임의 임연데 그 속에 아츨 불 지금과 같은 기들은 다 때
의 임이요 한아 들셋과 같은 기들은 다 행의 임이요 그 남아는 다 덧
덧한 열의 임기라.

푸르 글과 차 길 이르 착하 검히 밝 크 혼하 무겁 달단하는 다 엇기
니 푸르 글 길 검히 밝 크와 같은 기들은 다 몬의 모양이요 과 무겁 단
단하와 같은 기들은 다 몬의 품이요 같은 몬의 모양
이러고도함 착하와 같은 기들은 다 힘
위의 품이요 차와 같은 기들은 다 몬의 바탕 형질과 한가지의
뜻으로함이라 이요 이르와 같
은 기들은 다 때요 혼하와 같은 기들은 다 행이라.

가 뛰 자리 먹 짓 피 자 노래 하 웃 보 찍 쓰 짐 씻되 못 잊 잠 김 오 크
날 설 먹 원 다 하 더 하 일우는 다 응기니 가 뛰 자라 피 자 노래 하 웃
되 잇 오 크 날과 같은 기들은 다 재 몸이 응죽임이니 그 응죽임이 재

몸에 단 일음을 이룸이요 덕 짓 보적 쓰짐 셋 못 짐 김 설과 같은 기틀
은 다 남의 지 음주임이니 그 음주임이 다른 몸에게 될을 이룸이다.

이 가을으로 돌음에 남은 것은 보다는 다 벗기니 이 가을 들는은
과 같은 기틀은 다 만이요 으므로 도의 예는 만것도 짐
때가 있음 보다는 같을 기틀은
다 자리라.

와 면저 으면저 다 가 의 나 의 도 면 는 피 고 니 는 다 잇기니 와와 같
은 기틀은 다 입기를 잇음이요 면저 으면저와 같은 기틀은 다 한 때에
아우로의 음주임이요 다 가와 같은 기틀은 다 가운데 그침이요 어와 같
은 기틀은 다 잇어 함이요 나와 같은 기틀은 다 한아만 가짐이요 어도
와 같은 기틀은 다 뒤짐음이요 면저 같은 아 기틀은 거짐 뜻함이요 는데
와 같은 기틀은 다 다 시 풀어 번이요 고와 같은 기틀은 다 두 잇을 잇
어 함이요 나와 같은 기틀은 다 파함이라.

북은 적은 저 한 어 린 그 무슨 이름 세 두 잇는은 다 언기니 북은 적은
어 린과 같은 기틀은 다 문외 모양이요 저 그와 같은 기틀은 다 가르침
이요 한 세 두와 같은 기틀은 다 행이요 무슨과 같은 기틀은 다 모름이
요 이름과 같은 기틀은 다 때요 잇는과 같은 기틀은 다 음주임이니라.

잘 자조 천천이 꺾꺾 다 정하게 저리 곳 문져 착하게 더 매우빠 르게는
 다 억기니 잘 천천이 꺾꺾 따르게와 같은 기들은 다 음쪽어는 모양이
 요 자조와 같은 기들은 다 번이요 다 더 매우와 같은 기들은 다 기리요
 저리와 같은 기들은 다 뜻이요 곳 문져와 같은 기들은 다 따요 착하게와
 같은 기들은 다 힘위의 품이라

오다 으오 소어라 느나 이요 누나 도다 더라 자는 다 갖기니 오다
 으오 소이요 더라 자와 같은 기들은 다 이음^說연대 오 소이요는 말하
 는 이의 뻗을 따르어 이름으로도 쓰고 불음으로도 쓰며 어라와 같은 기
 들은 다 시김^說이요 느나와 같은 기들은 다 불음^說이요 누나 도다와 같
 은 기들은 다 홀도^說라

아와 같은 기들은 다 놀거나 늦김이니 그 갈래는 만물지 안이하노라。

右에거의말대九個名辭는朝鮮語로作함이니或은음입이오或은音합이라漢字로作하면그文字의義도
 만解得하라고하는習讀이有하여그定說을讀하지안이하면誤解하기易하니朝鮮語로作하든지漢字로
 用하든지定說을學하기는一般인대漢字로定하기는朝鮮語로定하기보다未便하며近日日本의支那에
 서漢字로文法에用하는名辭이有하나其中에本字實에相左함과不足함과朝鮮語에不適함이有한故로
 如一한지하노라고朝鮮語로作하거나如何하면朝鮮語에朝鮮語
 專用함이可하지말이하러오이러함스도以下에도如此함이有하니라

이러하게 아홉 기난이 각각 또 결역가 있는데 그 결역을 다루어 가르치
 안이하면 어느 기결역에 붙을것인지 알기 어렵음이 잇을지라 이러함으
 로 각 기결역의 난을 알지 못하면 기난의 참 뜻을 따듯기가 어렵은지라 이
 러함으로 말의 큰 들만이 말에 의히고 그 다음에 기결역의 난을 알
 하겠노라

잠들갈

잠들갈의 쓰는 뜻

잠들갈의 쓰는 뜻은 기결역의 뜻을 아함일기나 하는
 것이라 함의 요강일라 함 뜻이라

잠들갈의 쓰는 뜻은 기결역의
 뜻을 아함이라

잠들갈의 쓰는 뜻은 기결역의
 뜻을 아함이라

그러함으로 잠들갈은 다 뜻은 아함이라
 가 꿈이 어지는 여러 가지 法을 배

호는 것이라 이름이라

말들을 갈기여 뜻을 수 있는 이름을 만들고 그 뜻을 알에 말하노라

말 뜻을 나타내는데 쓰는 의미는 말뜻
기나 관말은 다름의 뜻을 나타

기 뜻말을 나타내는데 쓴
뜻이나 일음의 뜻을 나타

다 줄모음을 나타내는데 쓰는
모관말을 나타내는데 쓰는

모 관말(관말)인 의미(뜻)는 관말
함(가)있음을 나타내는데 쓰는

드 관말(관)의 남자가 있는
뜻은 말을 나타내는데 쓰는

미 관말을 나타내는데 쓰는
뜻의 뜻을 나타내는데 쓰는

그림



일

일초부터
한뜻 이 뜻

실

실은 실거리의 의미로 쓰이고
실거리의 실거리의 뜻을 나타내
실거리의 실거리의 뜻을 나타내
실거리의 실거리의 뜻을 나타내

종기 原枝 임피 枝成 솜피 枝葉 남을 다 이롭이라

가지 枝葉 밧피 枝葉 금을 다 이롭이라

잇이 잇는것이라 함이라

결예를 난호고자하면 임 솜 남 세 이를 줄기결 原枝部 이라 하고 웃을결이

라고도 하며 밧피 금을 다 가지결 枝部成 이라고 하고 불이결이라고도 함

가지결은 다시 둘로 난호아 세 밧은 만이결 萬枝部 이라 하고 세 금을 금

이결이라고도 하고 잇더함이결 如何 이라고도 함 결은결어나한 때와한것이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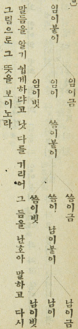


임이와 임이의 밧피 임이의 금을 다 임이불이 主枝部成 라 하고 솜이와 솜

이의 밧피 솜이의 금을 다 솜이불이 物枝部成 라 하고 남이와 남이의 밧피

남이의 금을 다 남이불이 說者部成 라 함

(기림)



자라 오 아기가 자라 오

본은 본오기라 할이오 또는 한낱의 음언말이 아모라 적니
모 남이갓 잇을을 이 불이니 본프는 본오기의 그라 할이라

(기남) 아기가 자라 오 오 곳

(음남) 아기가 임이 자라 오 남이 아기가 임이 자라 오 남이 아기가 자라 오 남이 아기가 자라 오 남이

불이나 오 가 오 남이갓갓가 자라 오 남이
가라 할 가 오 남이갓갓가 자라 오 남이

(기림)

아기 자라

가 오

이 그림의 글자 나라이 잇은 글은 이 말의 줄기임을 보면것이라

二. 굼은 술의 원연의 정제도 가늘게 가도 한 술은 입이의 자리를 굼한 것이라
삼하는 限定하라 한 가지의 뜻이라

三. 굼은 술의 원연의 가늘게 가도 정은 술은 입이의 자리를 굼한 것이라

四. 이 우알에 가도 정은 가늘 술의 원연 뜻에 나히어 정은 가늘 술은 만이길의 뜻
음란한 것이라

五. 그 품에 우에 술은 입이의 자리를 모인 것이라

六. 알에 술은 남이의 자리를 모인 것이라

(알이)이 함은 입, 남 우 굼으로 마진 마니라

알이는 알이 마 함 것이라 하는 뜻으로 함이런

마진 마는 아모리 원이 모어 우 물을 잇나니라

본드二 아기가 정을 먹소

(가남) 아기가 정을 먹소 뜻

(동남) 아기가 정을 먹소 뜻

아기가 정을 먹소 뜻

아기, 정, 먹 은을 길다 지결이 나남인 가, 술, 소 만이 길다 지결이 나남

(그림)

아기 정 먹

가 술 소

一. 굼은 술의 원연의 굼게 가늘게 가도 정은 우 물을 습이의 자리를 굼한 것이라

二. 이 물체 가 물체 가도 것은 두 물체 원천에서 나더러 것은 가운 물물 함이 몇의 자리를 보인 것이냐

(알이)이 말은 일, 함, 남의 물으로 마 권 마니라

마 권 마는 아모리 고어 도이 세 물체 함이 없나니라

음이 가 있는 마의 남이 는 한곳이 남음이 지나니라

남음은 그 음유임이 남의 물이 이르러 권함 이 물이냐

본드르

저 소가 푸른 물을 잘 먹소

(기남) 저 연소입가 푸른 연 물을 잘 먹소

(물남) 소입 물 함이 가 입이 물 함이 소입이 저 입이 푸른 소이 잘 남이 소가 입이 물을 함이 먹소

남이 소, 물, 먹 물 함이 가, 물, 소 만이 잘 저, 푸른, 잘 남이 잘 찾가지 걸이 나가지 마함 저

소가 물이 푸른 물을 함이 잘 먹소

(그림)



즐거. 만이. 금이 세 겹도 감히 어질 뿐이요 다른 겹은 없나니라
즐거겹이 모도 세 겹이니 일. 둘. 남의 세 겹이요

만이 겹이 모도 세 겹이니 일. 둘. 남의 세 겹이요
금이 겹이 모도 세 겹이니 일. 둘. 남의 세 겹이요

그러함으로 아라하게 갖가지도 감히 어질 한 냇의 어느 도든지 셋을 세울한
아름의 몸 뿐이요 다른 몸은 없나니라

또이 그림의 가운데 감은 줄 웃음을 줄은 웃음 몸 곳 즐거겹의 자미요
웃음 몸의 줄은 겹은 금이 겹의 자미요

또이 그림의 가운데 감은 줄은 줄은 즐거요
원전과 줄은 원의 줄은 금줄은 다 자미요

또이 그림의 임이 불이의 줄을은 수의 자미요
참이 불이의 줄을은 가운데 자미요

남이 불이의 줄을은 앞에 자미요

본드네 이 소는 누르 고저 말은 겹다

이 알에 불이 는 一三三드로 일어 보면 그림만 있어도 기난과 돌난을 너
너의 알것기 의 이 제는 쓰지 안이 하노다

一의 알지 또는 잊기나 돌난의 이 줄으로 모은 잊기물 다 잊이카 한(돌난은 돌을
난이 불이와 합이카)

이

소
누르

알
경

는

은
다

一, 우삼에 온몸을 사이네 고리 줄은 이 말의 우삼에 마되를 잊은 것이니 이 무마되
를 잊는 고리 자리를 모인 것이야

二, 온마되의 남이 빛 자라면서 고로 잊은 명 줄은 이 고가 온 마되의 남이 빛을 아
름으로 이려한 뜻을 모인 것이야

(일일)의 소가 누르를 온 마되라 하거나 온지 마되라 함

이 말은 김아를 알에 마되라 하거나 꽃 마되라 함

이 말은 우삼에 무마되를 고가 잊음으로 무마되로 권할 남의 이르 함

온 마되의 남이 는 남이 빛이 없고 그 한을 잊기 고가 아우로이 가짐으로 온
마되 는 다 못일 온 마되라 함

알에 마되의 남이 는 그 빛이 잊음으로 다 권 마되라 함

그 때라나 알에 마되의 남이 빛은 온 마되의 남이 빛의 말을 아우론 것이니 우

삼에 무마되를 고로 잊어 한낱 물을 언물로 한 낱의 남이 빛으로 꽃을

명음이라

이 무마되의 온지라 나름은 그 일의 온지라 나름으로 잊음이 한이요 말을

공이 노라고 온지라 나름을 잊음이니 우삼에 마되를 따구이 저 말을 건로

이 오는 두드러진 형태로 그 일은 한 가질 파악이라

(잡기) (일)은 한 대역 여러 가지가 잇흐리 그 일을 나다예는 말은 할 줄은

모노의

본드오 저사람이 노래하면서가오

저

사람 노래하

면서

가

이

오

一. 이 그림은 유대 그림을과 서로 전후어 오면 다 잘 풀이져라

二. 그려나갈지 마되 남의 가지 임이든 유대 따외의 임이 사람이 아무름이라 그려할
오로 알제 마시 그림을 그려서 이 뜻을 모이노라

저

사람 노래하

면서

(사람)

가

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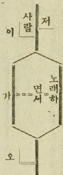
오

一. 알제 따외의 임이 풀이든 유대 따외의 임이 풀이든 풀이오

二. 그 기 따와 풀이함으로 해술은 승은 뜻으로 유대 따외의 임이 풀이거 알제 따외의 임
이 풀이 노릇까지 함을 모임이라

(잡기) 이 그림은 선제 그림의 뜻을 풀지 하라고 그려진것이라

노래하와 가는 다 이 말의 앞이 사람의 남이라 이리함으로 이 앞에 다
시 그림을 그리어 이 뜻을 더 밝히 보이노라



一, 입어의 자리를 지나 웃음 줄을 두 편으로 뿔기어 그러고 그 곳에서 다다 다시 웃음
줄을 그리고 또 그 곳에서 다다 뿔기어 그리어 한데 앞임을 두 남이를 각각 뿔어엿음
이나 두 남이가 뿔어 한 덩어리 남이가 겹을 보임이라 이리함으로 두 남이를 한
몸으로 볼 것이요 두 남이의 줄을 한 웃음 줄로 볼 것이라

二, 두 남이 사이를 그리 줄로 잇음은 몇 기 고의 자리를 점음이니 고가 두 남이를 잇어
한 덩어리의 남이 줄을 일우게 함은 보임이라

이 그림의 뜻을 알기 형제 하라고 이 살데 또 그림을 그려니 온드 六과 八도 이 줄 밑
이 볼지니라

三, 한 데 줄은 줄 앞에서 다시 한 낫 웃음 줄을 그리고 그 원 편에 남이 줄을 점으니 편
이 보임이전 두 남이를 한 낫 덩어리의 남이로 보임이요 그 원 곳에 남이 뿔어 자리를
그리고 소를 점도 두 남이가 뿔어 한 낫 몸의 남이로 삼아 한 낫 남이 뿔어 엿음
보임이라

四. 이 그림을 음은 권으로 보면 제사람의 노래하는 원 권으로 보면 제사람이 가오니까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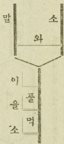
사람 노래하는 면서 오가

이 오

이 그림은 음으로 보면 건후어 불것이니 음계 그림의 뜻을 음계 마라고 쓰면것이라

(장의)이러한 법을 음은 남이 따라 하니 음모를 더하는 남이가 한명이니 남이 노래할 음이 음이라 그사람이 가면서 노래하고 하여도 한가지는 가는것과 노래하는것이 다 한데에 되는 일현 마같이라

본도六 소외말이글을먹소



- 一. 한 자리에 앉게 나뉘어 적은 음 들을 소를지 말아듣지 각각 입이가 짚을 보임이라
 - 二. 두 음의 앞에 음 몇진 음도 한데 앞입은 그 두 입이라 자리의 만이 한 입이라 입 그 남이 입의 입이 가 짚을 보임이라
- (장의) 두 입이 음 사이에 가도 것은 음을 음은 음도 五의 모리 음모 밑이 불것일때

그러기 쉽지 하므로 글을 쓸 줄을 힘써 요이 그림에는 알데 편으로 서우의 것으로
그저의만 넘기지 아니하면 이때부터 마한까지니라

三. 이 그림을 음은 편으로 보면 소가 앞을 먹소로 원편으로 보면 말이 앞을 먹소니라

(잡어) 자와 이는 마한까지로 임이 벗이 궤는 것인데 가운 웃음소리의 알데 쓰이고

이는 웃음소리의 알데 쓰이나니라

(잡어) 이러한 말을 뜻임이 드라 하니 글로 들이 되는 임이가 넘어 지어 한 글의 임

이 노릇함을 이룸이라

소와 말이 이 말에 임오는 본래와 나음이 없이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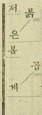
본드는 내가 소와 말과 오리와 기위를 기르오



一. 본드二字 五字 六의 뜻에 뒤우서 보편과 붙어 지니라

(본도五六七의 잘못) 뜻 임이라 뜻 함이라 뜻 남이라 뜻 씀이라 쓸을 못하나 그 못저와 나쁜은 것
더하든지 관계함이 없나니라

본도八 저북은봄꽃이급개피오



꽃
이
오

一. 임이라 저러의 음을 면대 세 가도 음을 아 임이라 뜻을 급하는 급이 급의 자러를 아도 아
도 오임이라

(급하늘 定限하와 한 뜻으로 씀이라)

(꽃이) 북은과 급개는 본도三의 우른의 권후어 불것이라 그러하나 들지는 억이니 제
는 엇기 급을의 피개하는 조니라

(말이) 뜻을 뜻 급이라 하니 저와 북은과 봄의 언기도 급함어 잇음을 이룸이라

가로 오를 갈이는 들에 우임이 우 할데로 잇을 때에는 본제 임기는 나쁜
거의 언노릇을 하나니 이 말에 봄은 일 기로피 그 뜻이 저는 때의 꽃이라오
말하는 언기가 되나니라 저러함으로 의을 속 뜻으로 두어 봄의 꽃이라오
어 그림노 음조니라

봄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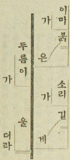
꽃

봄날이 가도 울환하는 봄은 꽃과 임이 되는 뜻이 있음을 보임이라
되는 임기봄을 언기 되게 하는 것으로 볼 것이요 또 임이 되 뜻이 잇는 봄을
봄이 가 되게 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

언기는 임기를 화하여 내는 것이라 그러하나 만물이 그 뜻한 임기를 말하나
나 이 말하여서와 봄은 임기 봄을 말하는 언의 한이요 뜻을 말하는 언기
도 봄이라 그러함으로 어떠한 말은 이 말을 말한 이의 뜻대로 볼지니라

말은 한을 뜻이라 그러함으로 말을 할이 노라고 저는 첫째 봄을 올재 봄은
셋째로 봄이요 그 일에는 본지의 나쁜지 차례가 없으니 이 세 언기의 자
라를 잊게 하게 만우본시 그 뜻은 한가지니라

본드르 이마가 붉은 두름이 가 소리가 길게 울더라



一、이마가 붉은 봄이 드라 하거나 언 드라 하니 이마가 붉은 임이 봄이요 봄은 그 날이라

그런즉 사람이 그 것은 필요 혹은 불필요를 구하여 노릇을 함으로써 이바가 되는이 마 이
우물이를 잊되 학다 하는 노가 정을 이룸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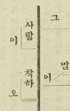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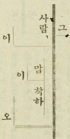
二. 소리가 길게는 말이 드러 학거나 이 드러 하니 소리가 는 임이 됨이오 길은 그 남이 하
그런즉 길의 그 것은 필요로 정을 불이 이 금이 노릇을 함으로써 소리가 길게가 마 을 기
를 잊되 학다 하고 하는 노가 정을 이룸이니라

(참의) 또는 아모리 의도 임, 남 무의가 잊음을 이룸이니라

소리가 의 가는 불로 탐구이 도말이 되니 이는 길게 들을 할 남이로 삼고 소의
는 이 남이 의 함이 가 정을 잊함이라 그런즉 길은 남이로 삼을 때에는 가
함을 음요니라

소리가 길게를 남이 자의 의 남이 그럴로 음요니라

본 三十一 그 사람이 남이 착하오



一. 남이 의 학다 하고 남이 자의 의 남이 그럴로 음요니라

하여 그것을 가르치어 내는 것이 있나니라

그러하나 적은 언기를 임기대로 배우어 지게 하는 것으로 모도 알라치럼 그러는 것으로
들으니라

이것 먹

이다

(앞의) 적은 언물의 임이라 하니, 홀로는 쓰실지 없고 할 언에 붙어야 할지 권을 이롭이

라

이것은 다 배일이라 하여 어느 것이나 일의 본 이롭을 배신하는 이롭으로 할을

이롭이라 이 말의 남이늘 임할 때 적은 임기라

이것은 곧 먹이요 적은 곧 이것이니라 그러함으로 이것은 먹의 승용이요 적은

이것의 나남이니라

비금본드二

먹는다

人 人 먹

人 人 는다

一, 이 말에 알것이 임이롭과 할이롭이 속뜻으로 잇으니 먹으면 알것이 적은 이가 잇을
지라 이든 임이요 임이가 잇으면 알것이 임이것도 잇을것이요 먹으면 알것이 먹히늘

정이 잇흔지라 어는 품이요 품이가 잇으면 받듯이 품이잇도 잇흔지라

二. 그러함으로 임의 품과 품이 품은다 그림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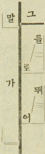
三. 임의 자리에 스는 술을 임이 곳 속뜻으로 잇는 임이 품 그림이라

四. 임이 및 자리에 스는 술은 임이 및 곳 속뜻으로 잇는 임이 및 품 그림이라

五. 품이 자리에 스는 술은 품이 곳 속뜻으로 잇는 품이 품 그림이라

六. 품이 및 자리에 스는 술은 품이 및 곳 속뜻으로 잇는 품이 및 품 그림이라

버금부스리 그림이 들로 뛰어가더라



이 이 더라

一. 이 그림은 정기와 및기를 일기에 의하여 품이 곳 속이기도 품을 말하라고 가림이라

二. 품 앞의 품이 들을 정음은 품이 이 앞의 품이 의 뜻이 잇음을 보임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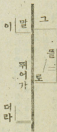
三. 품과 로를 품술 줄로 잇음을 일기 품이 정기 로를 자리에 품이 곳 속기외 품으로 품 구임을 보임이라

四. 뒤 앞의 남이 들을 정음은 뛰가 이 앞의 남이 의 뜻이 잇음을 보임이라

五. 뛰와 의를 품술 줄로 잇음을 품이 뛰가 정기 어를 자리에 품이 곳 속기외 품으로 품 구임을 보임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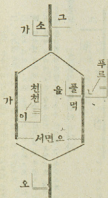
(앞의)이러한 말을 뜻함이 남이라 하니 남이 가가 품모라 뛰어 의 함으로 품같이 잇음 품이 품이라 품모는 가의 곳을 금하는 것이요 뛰어는 가의 모양을 금하는 것이

니러
 겹기로서 잇기 어는 곤드르 겹기 처게 화 한가재로 몸도 좋으니라
 뉘라 가를 잇기 어가 잇어 한 몸은 일울스로 씹고 뉘라 가를 한 놋의 일로 토마 알
 게 처럼 그 힘은 좋으니라



버금본드르

그소가푸른불을먹으면서천천이가오



一. 음이름 줄을 남이 락의 줄에 공은 락의 음이름만 되고 남이 가에 락이 없음을 락
의이 다쁘게 함이라

二. 그 남하공 다 공저 그림줄에 잇는것이라

三. 이 그림을 음은 현으로 보면 그스가 푸른 줄을 락으로 원 현으로 보면 그스가 현현이가

오라

(참이) 현현이는 현현하게 줄을 현 락인 락에 현현은 현현하게 락을 락고 현현만 음이라

그러함으로 그 락의 남이 줄을 락잇고 이는 락의 락을 락고 1 락 음이라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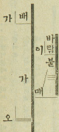
함으로 가도 음 우에 음이라

음은 락 음을 줄과 현 현 음을 줄을 락 음의 음을 음도 볼 락에는 락과 가만

한 락이 볼 락으로 볼 락이오 락의 푸른 줄을 락 우로고 가에 현현이를 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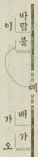
도어 볼 락에는 락과 락으로 락 볼 락이라

비금본드오 바람이 불매 배가가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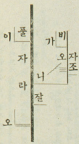
一. 바람이 불 때는 때의 가는 바람을 가르쳐는 도라 그럴 함으로 날이 가의 금이 드로 그
 림의과

(알이) 때는 바람을 말하는 잇기니 옮기 불며 피하여 같이 꽃 익기의 물을 일함이라
 때가 바람이 불며 가오 하여도 한 가지의 림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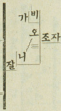
一. 이러하게 그러므로 우의 따의는 때로 말피합아 할대 따외의 가말을 이르는것이라 할수
 모었나니라

비금본드六 비가자조오니풀이잘자라오



一. 자라는 자라지. 집을 금하는 금이라 (집은 집과 한 뜻으로 함이라)
 二. 비가 자르오는 자라되. 마람을 금하는 금이도 뜻이 다르니라

(잡어) 이 그림은 적은 뜻이 있는 마를 거둬가지. 안이하고 멍멍한 동안 풀이 그림이
 마



이 물 자라 오

一. 비가 자르 오지 안이 할지라도 자라기는 할지라. 그러함으로 비가 자르오니는 자라를
 금함이 안이요. 잘의 마람을 금함이라. 이러함으로 비가 자르오니를 잘의 음을 편으로
 그러어 잘의 마람을 말하는 금이도 뜻이 다르다. 그림은 모음이니 이 그림은 그 뜻을 가
 잘 함에 들어 낸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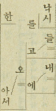
(잡어) 이기는 석기를 금함도 원이 뜻음으로 이 그림은 멍멍함 통해 거둬도 없나니라

비금본드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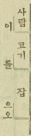
한사람이 낚시를 들고 내에 와서 고기를 잡으오

(잡어) (잡어) 는 술일지라도 글로는 그 큰 소리를 가요아 리음이 다른 일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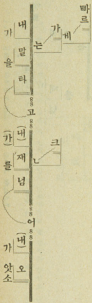
(말의) 이 말을 유언에 따르자 일의 본래의 나중이 빚을 오로 하여 하여 유언대로 그림
 이 줄이니라
 (말의) 아저는 이와 한 뜻이요 오오는 소와 한 뜻의 뜻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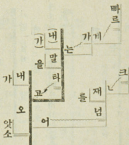
一. 이 그림이 가령 중요니라



버금본드스 내가 따르게 가는 말을 타고 큰 재를 넘어 왔소



一. 이 그림은 온드리의 형제 그림에 전후어 붙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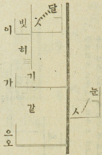


一. 파르계 가는 말을 파르는 오기를 잊되하게 하였라 할이오 재를 님어 온 온 곳이어
대라고 할이라 이르함으로 이 두 드물다 오의 음이 또 같이라

二. 각의 입이름은 내가 속뜻으로 잊음으로 세운것은 다 이를 보임이니라

(같이)년의 입이름은 내가 속뜻으로 잊고 가의 입이름은 말이 속뜻으로 잊으나
이를 그러지 한이함은 이는 곧로 그러지 한이말 뜻이 잊음을 보임이 한이오
속뜻으로 잊은 것은 그러지 한이하여도 파르함이 잊음을 보임이라

불입본드 달빛이히기가눈갈오



一. 달빛이히기를마 이 입이 자라대 좁은이 말어 다 한평이 힘기로갈의 입어로 쓰이
의진술 모입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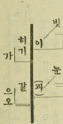
二. 그속대 그림은이 열아모 권입이 몸술 모출어 그림입대 기물그속 줄기 줄의 곳
에 문은 달빛이히의 드물입기 몸의림 쓰이제하는것이 몸을 모입이오 빛의 글이 줄
에 스은 속 뜻으로 잇는 의물 모입이요 할알에 한낫가도 줄은 말이 입이서 뜻이
잇음을 모입이라

三. 갈의 글이 줄의 스은 속 뜻으로 잇는 의물 모입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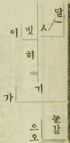
비금본드+

풍기가울퉁이면바람이라고하나니다

一、이른히기만 힘으로잡아 그림이라



一、이 그림은 눈길을 한남이로 삼은것이니 눈은 힘거외외 갈을 이하여 합계 보면 빛과 파마 하는 한 힘의 첫기라 이 외 합스르 마 남이 자라게 들리라



(기보) 공리심 가 것 응축이 응면 및 바람이라 곳 고 것 하 술 나 나니라 곳

공리 응축이

가 면

사람이라 하

사람이라 하

바람

이라

를

이 술 우의 그림의 술이

품만 술어 그림것이라

一、 바람은 심기요이 라는 곳기나 남이 술이라 그림하나 이 말에는 한 심기외 그림 술이 것을

으로 한 심기로 세고 술이로 그림이라

二、 포를 술이 및 자리에 있는 술은 그 포가 술과 한 뜻으로 쓰이어 짐은 보임이라

三、 심이 자리에 술은 속 뜻으로 있는 사함을 보임이라

四、 심이 및 자리에 있는 술은 술은 속 뜻으로 있는 심어를 보임이라

(남이) 라는 말하와 이포와 이 술하와 부포와 심 및 한 자외 뜻이라

五、 공리가 술축이이라 바람이라 부포로 공리가 술축이 면은 남의 술을 술하는 마외라 이리 함으로 하외 술이로 그림이라

공리 응축이

가 면

사람이라 고 하

사람이라 고 하

바람

이라

바람

고 하

이 술 우의 그림의 남

이 술만 술어 그림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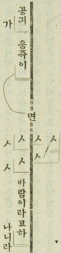
이라

一, 바람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되고 하는 데 있어 한 물기의 몸으로 바꾸어 결합
이러하여 함으로 바람이라든가 물을 한 물기의 몸으로 되고 남이로 그 면적이라

二, 일러 자리에 스는 바람이요 일러 몇 자리에 스는 이라

三, 물이 자리에 스는 속뜻으로 잇는 풍괴를 그림이요 물이 몇 자리에 스는 속뜻으로 잇는
물은 그림이요 그 물이 자리에 스는 속뜻으로 잇는 그를 그림이라

(남이) 바람이라든가 물이 몸으로 되고 남이 하를 바로 역하여 물기 몸으로 바꾸기
도 하나니라



一, 이 말의 뜻으로 단풍이, 말하면 풍괴가 용죽이면 사람이 그 용죽이는 공괴를 바람이
라고 하나니라 할지라 이러함으로 이 그림은 이러함 말로 그림이라

二, 알기 바피의 스물은 속뜻으로 잇는 말들을 그림이니 일러 자리에 스는 바람이요 그
몇 자리에 스는 이요 물이 자리에 스는 물이요 그림 자리에 스는 물이요 그림
금이 자리에 스는 그요 물제 금이 자리에 스는 용죽이는 이라

(잠이) 이러하게 그림 때에 공괴가 용죽이면이라 하는 바피를 바람이라 고하의 금이
도 그러기도 할 것이요 묻어 그림물에 남이의 금이로 그림 공괴가 용죽이면이라

하는 바의 말이 그림처럼 그려기도 할지니라

(장지) 말도 그 뜻을 알게 할지 내기 이름들은 그림으로 풀것이요 그림으로 말과 하기의 명들은 말

로 풀것이요 이 두가지로 풀 수 없음을 그림의 뜻을 말으로 할피어 볼지니라

(장지) 풀안은 임의들과 형의들과 남의들과 같이 풀을 그림이 한 그림의 뜻기는 그 우에 바피서 남
의게 풀이여 그림지니라

익힐드

一 풀이 푸르다 二 풀이 푸르니라 三 풀이 푸르고나 四 풀이 푸르오 五 풀이 푸르옵나 이
다 六 풀이 푸릅니다 七 풀이 푸르옵나 이가 八 풀이 푸릅니가 九 풀이 푸르옵더이다 一〇
풀이 푸릅데다 二 풀이 푸르옵더이가 三 풀이 푸릅데가 四 글을보아라 五 글을보오 六
글을보시오 七 글을보옵소서 八 글을보소서 九 먹이검다 一〇 먹이검으니라 一一 먹이검
으나 一二 먹이검고나 一三 먹이검오 一四 먹이검소 一五 먹이검으옵나이다 一六 먹이검옵니
다 一七 먹이검으옵나 이가 一八 먹이검옵니가 一九 먹이검는다 二〇 먹이검안앗다 二一 먹이
검안갓다 二二 먹이검안더이다 二三 먹이검안옵더이다 二四 먹이검안으옵더이다 二五 먹이
검안습더이다 二六 먹이검안올데다 二七 먹이검안올더이가 二八 먹이검안더이가 二九 먹이
검안습더이가 三〇 먹이검안올데가 三一 먹이검안나냐 三二 먹이검안앗나냐 三三 먹이검안
갓나냐 三四 먹이검안더냐 三五 먹이검안으옵나이다 三六 먹이검안으옵나이가 三七 먹이검
안옵니가 三八 먹이검안으시옵나이가 三九 먹이검안으심니가 四〇 먹이검안아라 四一 먹이

흔들림인술이 많은가 람물언덕에 밧겨섯다 ㅎ옥이길고이마가 높은저 두름이가가
 람우에 높이드어 멀게노래부르면서선들선들바람결에 떨어날아가네 ㅎ갑을주는
 대모문을받음과같이정성을쓰는대모버홍이늘나니라 ㅎ지극한성력으로공부를
 하면알지 못할것이 없으리라 ㅎ은희는공우에 들어가아마치의 단련을받아야귀한희
 가되고사 람은학 교에 들어가아스승의 가르침을들어야 좋은사람이되나니라 ㅎ스
 승이가르치는말을듣고그 뜻을알지안이하면얼음이 없으리라 ㅎ부수신예는지 뜻
 이 있어야그일이되나니라 ㅎ뜻이잇는사람은익이고뜻이 없는사람은지나니라

ㅎ중은그뜻에서는좋은일이나아오고 좋지안이한곳에서는 좋지안이한일이나아오
 나니라 ㅎ람의 밧을고이같이 좋은씨를시므로자조 잘다스리어주면서얼음이 잘얼
 기를바랄지니라 ㅎ웃을자조 밧아야 깨닫함과같이망도자조 닦아야 더럽어지지안
 이하나니라 ㅎ고됨을결경어하는사람은편안하고귀하게살것이요편안함을종
 아하는사람은고됨고천하게살리라 ㅎ나라사람이부지런하고알는일이늘어가면
 그나라는높아지지안이함이없나니라 ㅎ하날의 힘은스스로움은이에 배이르스
 스로움지안이하는이에서드어나나니라 ㅎ뜻이 없는사람은뜻이잇는사람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라 ㅎ남이하지안이하는일이라고하지안이하는사람은남의 일에부
 리어짐을 밧지 못하나니라 ㅎ적혈줄만알고공혈줄을모르며 흉내낼줄만알고가일

줄을 모르면서 지렵어 지나니라 二 뜻을 못하여 잊을지라도 뒤늦고 곧히 면을은 사람이
 되나니라 二 뜻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 답하기가 어렵지 안이 하리라 二 뜻기름사
 랑하는 사람은 붓기름을 붓그림어 하지 안이 하나니라 二 뜻기름을 붓그림어 하지 안이 하
 는 사람은 붓그림음이 없어 지리라 二 뜻기름을 붓그림어 하는 이는 붓그림음이 점점더
 하리라 二 뜻은 일에 듣지 에 비를 잘 하는 이는 랑 때 보는 일이 적으니라 二 편안할 때
 에 위린함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는 뜻밖에 변을 면하지 못하니라 二 름을 적음에서 찾
 는 이는 일어나고 어렵음을 쉬음에서 잊는 이는 힘어 지리라 二 착함을 착함으로 좋아
 하는 사람은 날이 알지 못할 때에 더욱 절기를 음을 얻나니라 二 힘을 들이지 안이 하고 살
 기를 파하는 이는 하날과 사람이 다 믿어 하나니라 二 뜻의 힘으로 살는 사람은 나무에
 좀파한 가지니라 二 뜻의 힘으로 살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가난하여 약하며 약하여 쇠
 하며 쇠하여 망하나니라 二 뜻자리가 높아 질수록 몸을 낮히고 질이 가 멀어 질수록 힘을
 고르게 하면 그 누림이 오래 가리라 二 뜻 사람의 첫 재질 겸은 일은 우에 도하날과 알 때로
 사람에게 배 붓그림음이 없이 살는 것이니라 二 착한 사람이 되고 자 하면서 착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몸을 정하게 하고 자 하면서 더럽은 것을 마들과 같으니라 二 뜻이 없으
 면 일도 없나니라 二 뜻 위린 할가 넘어 하 여 막기를 힘쓰는 짐에는 편안함이 나아 같 것이
 요 편안함을 알 고 질 겸어 만하는 짐에는 위린함이 들어 오리라 二 뜻 별은 적은 버러지

로되법을엄히직히거는사람으로엇지법이증할줄을모르나오 드법이운어진나라
 는불난집과같은니라 드때암아때암아높은가지서늘한그늘속에서때암때암노래
 만하면서때가늘이라할줄만알나가가을이되어서리가오고일이떨어지는날에엇
 지할고 드우리를거느리는이느귀짓기만하고웨뿌리지는말지니라 드말은기울
 과같은니몬지가얕으면답아야보이리라 드곳어리어서베호지한이하면크어서일할
 줄을모를것이요크어서일할줄을모르면높어서엇지할고 드일은시작이없으면곳
 도없나니라 드갓간게잇는것은가지기십다고심상이보다가있기십니라그러함
 으로붓우막에소급도집어넣어야짜다하나니라 드날이모를지라도올고리한일이
 면하는사람은남을부릴것이요남이알아주는일만찾아가는사람은남에게부리어
 지리라 드곳다락에엮은글이아모리많은나보지안이하면몇개의갑이나월가 드현
 한달에서고동게일하는이가편안한곳자리에앉으리라

이제 각 기의 난들을 알에 벌이니 한글을 쉬어 씀은 이미 이러하게 쓴
 것이 있어 다 삭이지 못함이요 씀거나 풀음을 가림이 함이라

기갈래의 난을

임의 갈래

一 제임 제임까지 온
의의의 이름

一 두로

一 몬 (본) 사람 깨 새 나 비 고 기 예 물 돌 붓 옷 바 담 번 개 (잡이) 성릭

과 같은 것은 나 몇이 덩이 된 이름이나
어기어 두고 마모 이름한 것지 한이함

一 열 (본) 뜻 열 아 춤 사람

一 홀로 (본) 생개 (말 이름) 돌며 (사람 이름)

一 대임 대임을 대표
하는 이름

一 사람

一 가르침 (본) 나 너 우리

一 언잇 언지 할지 잇어 쓰이는 것이라 그러함으로 이름을 언잇이라 함이
나 홀로 쓰이지 못하고 글이 느 언기 할지 잇어 쓰임을 이름이라

(본) 이 (꽃이) 큰이 큰은 언기요 어는 대임이 너 언기 할지
잇어 지지 한이 하고는 쓰이지 못하느 것

一 모름 (본) 누구 아모

一 행

一 웃음 (본) 한아 물 셋 넷

一 어림 (본) 더러 좀 다

一 모름 (본) 얼마

一 곳 (본) 여기 저기

一 문

一 언잇 (본) 것 바 좀 (풀이) 일하는 것 일하는 바 일하는 줄 일하는 줄 언기요 집과

마와 줄은 다 언기 알제 잇어지
지 한이 하고는 쓰이지 못하느것

一 행

一 웃음 (본) 한아 들섯

一 어림 (본) 더러 좀 다

一 모름 (본) 얼마

一 곳 (본) 여기 저기

一 모름 (본) 무엇

(잡이) 우에와 다르게 난홀 수도 잇고 더 적게 남홀 수도 잇고 더 많
게 남홀 수도 잇으니 이 할에 다른 난홀도 다 이려하니라

임의簡略한갈래

— 제임 대기 가지 문
과일의 이름

— 몬 (본) 사람 개 새 나비 고기 예 물 물 붓 옷 바람 번개 삼개 돌며

— 열 (본) 뜻 사람 일 아츰

— 대임 제임을 대표
하는 이름

— 몬 (본) 나 너 수리 이 누구 아모 한야 들 셋 더러 좀 열 마 것 무엇

여기 저기

— 일 (본) 것 (이것 저것 그것)

엇의 갈래

— 物品 이러 가지 온의 품이
엇더하다 이르는 것 (본) 품 무르 단단하 무겁 부드럽 질기 서늘하 덥차

— 物貌 이러 가지 온의 貌樣이
엇더하다 이르는 것 (본) 크적 허 좁 길

— 行品 이러 가지 行爲의 品性이
엇더하다 이르는 것 (본) 착하 어질 슬기롭 어리석

— 行貌 이러 가지 行爲의 貌樣
이엇더하다 이르는 것 (본) 재 게 르 답답하 굴굴하

— 대 대기 이엇하
다 이르는 것 (본) 이르 늦 오라 길

一 행 행이 잇더하
다 잇도난것

一 어림 (본) 많적 혼하

一 모름 (본) 잇더하

一 견중 이것을 다본것
오르것우난것 (본) 이러하 저러하 그러하

엇의簡略한갈래

一 품 여러가지 품의
가行의 잇더함 (본) 좋우르 단단하 무겁 부드림 질기 덜차 서늘하 착

하어질 어리석 술기름

一 貌 여러가지 품과
行品의 잇더함 (본) 크적 허좁길 제 게르 답답하 굴굴하

一 때 때의 잇
더함 (본) 이르느 오라 길

一 행 행의 잇
더함 (본) 많적 혼하

一 견중 이것을 다본것
오르것우난것 (본) 이러하 저러하 그러하

一 모름 몰어나지
안이란것 (본) 잇더하

(잡이) 엇의 갈래들이보다 더簡略하게 하라면 견중과 모름을 品貌

대행 네 갈래에 맞는 대로 가리어 붙일지니라

음의 갈래

一 음 뜻 음속의
는性質

一 제 음 세 음에서
죽이는것 (본) 자 날 잡히

一 남 음 남의 음에
죽이는것 (본) 잡 다리 먹 먹이

(잡이) 먹이와 같은 기는 남음에 特別한 것이니 남이 음죽이게 하라 고 음

죽이는 것이라

음죽임이 이 두 뜻의 밖에 또 힘으로 다름이 잇으니 알에와 같

음이라

一 음 힘

一 바로 음 自由로 음
죽이는것 (본) 다리 자 잡 날

一 입을 음 남의 음죽임과
이 음죽이는것 (본) 잡히

것의 갈래

一 단이 힘이와
의 힘과 음이 음의
다름 못 힘이와
의 힘과 못 힘이와
의 힘과 못 힘이와
의 힘과 못 힘이와
의 힘과 못 힘이와
의 힘과

一 임혹만

아무 다른 뜻 없이 單純하게 임이 되는 關係만 보이는 것

뜻 임기가 아무 關係 없이 임이 되는 關係만 있음을 보이는 것

(본) 가 이

(물이)

새가 날더라

이 말에 가가 임혹만이니 날의 움직임을 하는 것이 새라 할을 보임이요 곧 날의 움직임을 하는 것이 새가 짐을 보임이라 ○ 움직인 날은

대에서 되는 것이라 그러함으로 새는 움직인 날의 임연에 움직인 날을 하는 것 이 될뿐이요 아무 다른 뜻으로 關係함이 없음으로 뜻을 씀이 이 뜻을 보임이라

대가 푸르오

이 말에 가가 임혹만이니 푸르오의 뜻을 가진 것이 대라 할을 보임이요 곧 푸르오의 뜻을 가진 것이 대가 짐을 보임이라 ○ 멋이 할 푸르오는

대가 푸른 것이라 그러함으로 대는 멋이 할 푸르오의 임연에 대가 멋이 할 푸르오를 가진 것이 될뿐이요 아무 다른 뜻으로 關係함이 없음으로 뜻을 씀이 이 뜻을 보임이라

고양이가 나미요

이 말에 가가 임혹만이라

말이 뛰오

이 말에 이가 임혹만이라

물이 맑으오

이 말에 이가 임혹만이라

이것이 분이요

이 말에 이가 임혹만이라

(알이)

임혹만 짓기는 가와 이뿐이요 그 뜻은 한 가지니 가는 웃음소리

리 알에 쓰이는 것이요 이는 불음소리 알에 쓰이는 것이라

임혹만이라 하는 뜻기의 쓰는 뜻

아무 關係 없이 임이 짐을 뜻으로 쓰였다 함은 假令 새는 날더라 하면 새가

술독입술의 인식이 되며 이 말에는 다른 말과 關係함이 있어 그 關係는 말의 인식이 술독입과 서로 다름이 되는 술독입을 하는 인식이 서로 합을 논으로도 표현된 것이라 그 의 하나 세가 남다라 하는 것은 어떠한 關係가 없음으로써 뜻을 가르다로 뜻을 함이라

一 쓸웃만

아모 다른 뜻이 없이 單純하게 씀이 되는 關係만 보이는 것

곳 씀기가 아모 關係없이 씀이 되는 것 (본) 들을

(풀이) 저사람이 조히를 짐으로

이 말에 풀이 쓸웃만이 저 술독입을 말하는 것이 조히를 보임이라 ○ 술독입 정은 사람에서 나아가서 조히에게 됨으로 조히는 씀이

곳 술독입을 말하는 것인데 술독입 정에 아모 다른 뜻으로 關係함이 없이 씀이 곳 술독입을 말하는 것이 關係없이

사람이 말을 라오 이 말에 술이 關係만이라

(알이) 쓸웃만 짓기는 들과 울뿐이요 그 뜻은 한 가지니 들은

웃음소리 알에 쓰는 것이요 울은 불음소리 알에 쓰는 것이다

쓸웃만이라 하는 웃기의 쓰는 뜻 假令 저 사람이 조히는 정으로 하

한 이의 뜻한 바의 다른 것을 저 사람이 정지 못할 때 함인즉 울을 함은 이 때 關係가 없이 함이 眞實 보임이라 이 어함으로 이 뜻을 가르다로 웃

술을 함이라

一 명이 입만

언뜻이 겹쳐서 한 명이 몸소 (본)에서
모 입이 가 될을 보이는 것

(풀이) 우리나라에서 이기었다

이 말에 나라는 여러 사람이 한 명의 몸이 된 라도
그 슬독심 이기의 입이 가 된 이니 예서는 이러한 입

이가 될을 보
입이라

一 한 가지만

이 입이의 남자가 그 뜻한 러는 입이의 남이라 서로 많은 것이라 한이라 그
입이의 슬독심을 받음이 그 뜻한 러는 슬이 가 그 입이의 슬독심을 받음이라

모 감음을
보이는 것 (본)도

(풀이) 나도 가오

이 말에 도가 한 가지만 이니 나의 슬독심 가가 그 뜻한 러는 입이의 슬
독심 가와 서로 많은 것이라 한이라 한을 보이는 것이니 이는 입한만이라 (한

만은 곳 한가
되만이라)

별도 날더라

이 말에 도가
입한만이라

풀도 푸르오

이 말에 도가 한 가지니 슬의 벗이 할 푸르가 그 서로 파우어 뜻한 문의 벗
의 할 푸르와 서로 같은 입이 가 된이라 할을 보이는 것이니 이는 입한만이라

아기가 밥도 먹오

이 말에 도가 한 가지니 슬이 밥이 입이 아기의 남이 의의 슬독심
을 받음이 이와 파우어 뜻한 러는 문이 의의 슬독심을 받음이라

서로 같은 슬이 가 된이라 할을 보
이는 것이니 이는 입한만이라

이것도 나무요

이 말은 나무가
사람과 같고

一 다름만

이 말은 나무가 그 뜻만 다르니 사람이와 다른 것이라 함이 그 말이 (본)
의 술속임을 말함이 그 뜻만 다르니 사람이 그 사람이 술속임을 말함이라 다른 것

간

(꽃이) 나는가오

이 말은 나의 마음만이니 나의 술속임가가 그 뜻만 누구의 술속임과
다르다 함을 보이는 것이니 나의 술속임가는 그 뜻만 다른 이의 술속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을 하는 이라 함
을 보이는 것이니 이는 일과 같은 이라

아기가 젖을 먹으오

이 말은 나의 마음만이니 젖의 먹의 술속임을 말함이 그 뜻
한 이의 꽃의 먹의 술속임을 말지 함이라 다른 이의

것이라 함을 보이는 것이
니 이는 나무를 만이라

꽃은 푸르오

이 말은 나의 마음만이니 꽃의 젖어함 푸르가 그 뜻만 어느 꽃의
빛이 빛과 같고 다르다 함을 보이는 것이니 이는 나무를 만이라

一 다름한만

이 말은 사람이 한 사람이 함이 함에는 그 뜻만 어느 사람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의 함오라 여남자나 여 못함 분할 곳 같지 안의 함일이 잇다가 나쁜게 되는 것

은 서로 같음의
말아가는 것

(보) 「꽃이 인을」 라도 이라도

(꽃이)

장술을 예야 뵈겟나나

이 말은 「꽃이」 마음만이니 장술가 그 술속임의 함이
장술을 예야 뵈겟나나 여 못함 함이 잇으나 여 못함 함이

한 가지라 그 의 함으로 그 나쁜의 結果는 서로 같음의 말아가는
것이니 「꽃이」 술을 예야 한 뜻함 보이는 전현에 이는 나무를 만이라

아진들젓미야먹지 이 말에 스승이
다들한만이라

스승이라도모르오 이 말에 어라도가 다들한만이라 스승이 그 모를을 알라넌
學力이 疎遠한 사람오다 데하나 모르기에 이르어는 다 한

가지라 이리함으로 이 結果는
서도 같은데 몰아가는것이라

一한가림만 한남이제 임이나 임이가 됴이 不善
에서 이와 저를 가려지 한이하는것 (보) 든지 이든지 나 이나

(꽃이) 소든지말이든지물을먹는다 소나말이나 다물을먹는다 이 두말이
저이른저와 나

이나라가 한가림만이나 소와 말이 그남이 임이 임이가 됴이라
한가지오 저와 이와 다름이 없음을 보임이니 이는 한가림만이라

누구든지글을읽어라 이 말에 온지가 한가림만이나 저와 이를 가려지 한이
하고다 그남이 위와 임이가 됴을 보임이니 이는 한

가림만
만이라

개는밥이든지고기든지다먹소 개는밥이나 고기나 다먹소 이 두말
에이른저

온지와 이나라가 한가림만이나 밥과 고기가 임이 저의 남이 먹의
음독임을 말함어 저와 이와 다름이 없음을 보임이니 이는 한가림만이라

그학성이야모어론이든지공김하오 이 말에 이온지가
한가림만이라

(꽃이) 우엇이나 누구나 우모와 같은 임기 할때는
온지나 이온지가 한아만 쓰이어저나니라

一 낮됨만

한 밤이 되니 심이 나 풀이 가 풀만 한 데 몇 데의 그 한 야만 되는 것

(본) 나 이 나

(풀이) 내 나 가 겠다

이 말에 내가 낮됨만이니 밤이 가에 임이 풀이 가에 몇 데서 내가 풀로 임이 가 풀이 함을 보임이니 이는 낮됨임만이라

나는 밤이 나 먹 겠다

이 말에 이 나 가 낮됨만이니 풀이 먹힐 터라 본에서 풀로 풀이 가 풀을 보임이니 이는 낮됨임만이라

一 두별함만

한 밤이 세 이 가 지는 나 임이 나 풀이 가 풀수 가 없으되 그 한 이는 두별이 풀수가 잇는 것

(본) 야 이 야

(풀이)

그 사람이 야 알지 이 말에 이 야 가 두별함만이니 다른 사람이 풀은 다 그 남이 알지 임이 가 풀 수 없으나 그 사람은 두별이 임이 가 풀 수 잇음을 보

임이니 이는 풀 별함임만이라

야 모 같이라 도 조히야 배지 이 말에 야 가 두별함만이니 조히 가 남이 깨지 함이 가 풀이 두별함을 보임이니 이는 두별함임만이라

一 홀로만

아름이 는 아 있는 남이 함이 임이 나 풀이 는 풀로 잇는 것

(본) 만

(풀이)

나만 가 오 이 말에 만이 홀로만이니 다른 사람은 다 이 남이 가 없으되 나는 풀로 잇음을 보임이니 이는 홀로임만이라

나는 밤만 먹으오 이 말에 만이 홀로만이니 밤이 그 남이 먹지 함이 가 풀이 풀로 잇음을 보임이니 이는 홀로함만이라

一 부름만

부름을 심은 임이

(본) 아 야 의 의

(풀이)

돌아 글을 읽이라 이 말에 아 가 부름만이니 부구의 부름을 심거 그 남이 읽지 함이 가 되는 것이라

이른 것
이라

一 몬금

술독인 것 몬에서
침을 보모치는 것

(본) 에 에서

(본) 먹이 버 두에 있다

이 말에 내가 몬금이니 술독인 것의 되
자라가 몬이 두에 잇을 줄 모이는 것이라

향기가 꽃에서 나오

이 말에 내가 몬금이니 술독인 나의 되
는 자라가 몬 꽃에 잇을 줄 모이는 것이라

一 대금

남이가 때에서 된
술가 모이는 것

(본) 에 로 호로 에서 까지 쯤

이 술이 밤에 오오 이 말에 내가 대금이니 술독인 오의
침이 때 함에 잇을 줄 모이는 것이라

꽃이 아춤에 새롭다

이 말에 내가 대금이니 첫머함 새롭의 나
라 남이 때 아춤에 잇을 줄 모이는 것이라

리치는 예로 지금까지 한가지요

이 말에 모라 까지가 대금이니 리치가 첫머
한 것이라 리는 한가지의 대를 모이론 것이라

그 사람이 저너 때 품오 겠다

이 말에 짐이 대금이니 술독인 오의 짐이
있을 하는 때 저너 때 잇을 줄 모이는 것이라

내가 아춤에서 저너까지 글을 읽으오

이 말에 내가 대금이니 술독인
외의 짐이 아춤으로 저너까지 잇을 줄 모

이는 것
이라

(잡) 이

모라 호모라 서라 에서 하는 아
한 가지로 쓰이는 것이라

(잠이) 때금이눈 울파 잇과 입으로 된 남이애 다 금이노듯함잇

나니라

一 행금

울죽임의 數量의 輕重을 가로치는것

(본) 에 로 으 로 에서

(풀이)

한아예 불을더 하오

이 말에 내가 행금이니 울죽임에 화의 輕이 輕한아예 잇음을 보이느것이카

내가 모시한것으로 두루막이 불만들었다

이 말에 으 로가 행금이니 울죽임만 들켜 輕이 輕한것을 輕이 잇음을

보임이라

내가 실네 꾸리로 한것을 짜았다

이 말에 으 가 행금이라

얼에서 셋을 더러라

이 말에 으 가 행금이라

너는 물로 더섯을 난 호아라

이 말에 으 가 행금이라

(잠이)

로나 으 로는 울죽임의 이느 輕을 부러이 輕을 가로치어 내는것이카

一 부림금

울죽임의 이느 輕을 부러이 輕을 가로치어 내는것

곳 본이아 일의 일이가 그 말에 의 울죽임의 부러이 輕이 輕을 가로치어 내는것

(본) 로

으 로

(풀이) 내가 광이로 밧을 따오

이 말에 으 가 부림금이니 울죽임과 가 광이를 부러이 輕을 보이느것

— 음돈금 음돈금이 음돈하는 돈에 (본)에서 서에게 게에게서 다려

(풀이) 우리의몸이 어버이에게서 나왔나 이 말에 제게서가 음돈금이니 음돈금 나가

네가 소의 젖을 아기에게 주어라 이 말에 제게가 음돈금이니 음돈금 주라

네가 그 사람 다려오라고 말하여라 이 말에 다려가 음돈금이니 음돈금 말

잘 때 호도 못 배움이 스승에게 잇소 이 말에 제게가 음돈금이니 음돈금 잇소

(알이) 저는 제게의 제를 음돈것이요 나는 제게의 제를 음

인 것이요 다려는 제게와 한가지로 쓰이는 것이라

— 일금 음돈금이 일금기에서 된 (본)에에서

(풀이) 큰일이 큰뜻에서 나오 이 말에 제게가 일금이니 음돈금 나가

일의 일음이 뜻에 잇소 이 말에 제가 일금이니 음돈금 잇소

— 낮한금 음돈금이 권이 일파나나 돈마 (본)마다

(풀이) 봄에는 꽃이 곳마다 피오 이 말에 마다가 낮한금이니 음돈금 피

꽃이 볼아 다 피오 이 말에 마다가 달한금이니 울추임 피
의 짐이 볼음에 잇음을 보이는 것이라

一 까담금 남이까담을가
프리아 내는것 (본) 에 토 으 로

(꽃이) 볼이된까담에꽃이피오 이 말에 마다가 까담금이니 까담
임기 까담피
라지 울추임 피라 피는 까담을 보이는 것이라

볼이됨으로꽃이피오 이 말에 으모가
까담임이라

볼됨으로꽃이피오 이 말에 으모가 까담금이니 고는 漢文
故의 말인故도 임기로 쓰는 것이라

(잠이) 까담금은 엇기로 된 남이의 금이 됴도 잇나니라

一 함께금 이 잠이가 어느 임이로이풀어 한 가지
울추임이 잇음을 가로치어 내는것 (본) 와 파

(꽃이) 내가너와가갓다 이 말에 마다가 함께금이니 내의 울추임가
가 너와 한 가지가 됴를 보이는 것이라

一 다름한금 그 남이내 금이가 됴 됴의 됴는 그
한 임이로 마다가 나름의 됴는 됴를 서로
잇음을 가로치어 내는것 (본) 연을

(꽃이) 그리하게큰고기야가칼연을잇겠나노 이 말에 연을이 다름한금이니
가 칼이
그 남이 잇의 금이가 됴만한 됴로 잇

마가 나름의 그리한 고기가 잇기는
내와 서로 잇음을 가로치어 내는 것이라

(잠이) 갓기만 가지고 금이 못익기로 풀지 못할 것이요 그 우역 임기까

치아우르어야금이 곳엿기로 풀어지나니 이 뜻이 잠음같그림에
보이엇나니라

것갈래를 簡略하게 가르다하면 알에처럼 여러 갈래의 뜻을 따르어 다 이
몇가지에 돌아 가는대로 불일지니라

것의 簡略한 갈래

一만이

一임이만

一삼이만

一금이

一몬금

一일금

잇의 갈래

一명이 한명이거나 여러개만 하
라고 사익에 두는것 (본)와 파고

(풀이) 비루와먹이잇소 붓과먹이잇소 입교먹기만바라지말아라

그 말은 희고 크고 네 말의 희고 크음이 내 말과 비슷하다 이 말들의 차과 고가 열이 있이니 先後와 別圖

係가 없기 한 열이 되거나 하라고 사기에 두는 것이라

一 잇어함 連히어 行함을 이룸이니 實도 곧 때로는 疊속임을 次第로 하는 것

一 한일 본지 순과 나름을 이가 한가지 일의 되는 것이라 (본) 아 어 아서 어서

(풀이) 모기를 열어 내소 이 말에 이가 한 열이 있니 본지 순 열의 열은 나름을 띠을 하 라고 하는 것이니 열의 열은 덕을 열에 붙어 한 가지의 일의 되

는 것 이라

(잡이) 일어디를 한 열의의 남기로 줄기도 하고 열이 줄금이 곳 덕기도 줄기도 할 것이라

(잡이) 아 아 사의 어 사가 엇기 알에 있기에 열 때에 는 금이 곳 덕기도 줄 것이라

一 다른일 본지 순과 나름을 이서 모야도 圖係 없이 다른 가지의 일도 그 본지와 나름의 次序만 있는 것 (본) 고

(풀이) 글을 읽으 고 받을 띠겠다 이 말과 고가 다른 열 것이니 본지 순 열은 나름을 띠을 하 기 후하여 疊속임이 안이요 다만 是는 위에야 띠 것을

오도 是은 然지 是의 非고 是은 나 품을 이 是을 고가 是을 아 품이라

一 그침 한 줄을 띠다가 띠 못하 고 다른 줄을 띠는 것 (본) 다가

(풍이) 근을 읽다가 자오 이 말의 유가가 그립거나 그립는 열을 다
맞히지 못하고 다른 손자를 하는 것이다

— 함께 두 손을 한 (본) 면서 으면서

(풍이) 그 사람이 가면서 노래하오 이 말의 면서와 함께나 그을가
자 노래하를 한때에 하는 것이다

— 풀이 이 때 말한 것을 아 (본) 데 는데 인데 으네 으니 이니
시 풀이 말하는 것

(풍이) 한새가 저나무에 있는 데 빛은 누르고 노래는 아름답다 이 말의 는데가 풀이니
새가 있다고 이 때 말한

것을 그 빛의 누를로 그 노래의
아름답음을 두서 말하는 것이다

해가 돋으니 사람이 일어나고 새가 짹짹 하오 이 말의 으니가 풀이니 해가 돋는
다고 이 때 말한 것을 해가 는음에

엇대라고도 하는 사람이 일어나와 새가 짹짹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마땅히 기로 풀기도 하고 때 빛기로 풀기도 할 것이다

(장이) 그러한데와 같은 말은 한 말을 다 맞히고 다시 잇는 것이다 이러

한 것도 풀이니 금이 꽃 억기몸으로 풀기도 할 지니라

— 까닭 한 말이 한 말에 마
다오로 잇어지는 것 (본) 니 으니 때 으매 아어 아서 어서

(풍이) 풀이 되니 꽃이 피오 이 말의 니가 마땅이니 후의 마의 풀이 피가 알의 마
의 꽃이 피의 마땅을 한 노라고 잇어지는 것이다

바람아 불대 배가 가오

이 말과 배가 바람이 불

(장미)

그때문에 그파답에 그파답으로 그러하여 그러하여서 그러함으로
그러한고로와 같은 말은 한 말을 다 맞히고 다사 잇는것이니 이러
한것들도 파답 잇기다 그러하나 금이 못억기름으로 물기도 할것
이다

一 뒤집힘

한 일의 그와 對稱의 일의 뜻과 뒤집힘은

(본) 나이나 으나 외아도 어도 라도 이라도 거

늘 어늘 이어늘 고도

(풀이)

그늘을 배호나 그뜻은 모르오

이 말에 나가 뒤집힘이니 배호면 알는것이 하로게 되는 일인데 배호고오 모름은 마름에 뒤집히는 일

의라

(잡이)

마는 그러하나 그러하되 그러할지라도와 같은 말들은 한 말을 다
맞히고 다시 다른 말을 잇는것이니 이러한것들도 뒤집힘이라 그러
하나 금이 못억기름으로 풀기도 할것이라

一 뜻밖

이 일의는 나지 안이한

뜻밖 다른 일이 나는데 (본) 나데 는데 인데 는데

(풀이)

저사람이 오음은데 왜나물하오

이 말에 음의가 뜻밖이니 그사람 이 음으로 나물함은 뜻밖의 일이라

그사람이 글을 배호는 데 왜 부르오

이 말에 손대
가 뜻밖이라

날이 찬대 그사람이 솜옷을 입지 안이 하였더라

이 말에 손대
가 뜻밖이라

날이 맑은대 비가 오나

이 말에 손대
가 뜻밖이라

이것이 나 물레 불이 안타오

이 말에 손대
가 뜻밖이라

이것이 고운 물인데 큰 고기를 못보겠다

이 말에 손대
가 뜻밖이라

一 거짓 저 말에 이르러 화가 되면 이 말이 뜻의 (본) 면이 면거든 어든 이거든 이 어든

(풀이) 비가 오면 물이 잘 자라오 이 말에 편이 거짓이 나 비가 오면 거짓 뜻하는 일인데
우의 아뢰가 이르한 거짓의 일로 알되 따외에 잊이 저

하는 것이
면이라

그것이 나무면 불에 타겠다

이 말에 편이
거짓이라

그것이 얼음이면 녹겠다

이 말에 편이
거짓이라

(말이) 거든 꼭 어든은 면 꼭 한 가지니라

一 홀로 외의 일에서 정것은
한 가지에 안 잊는 것 (본) 아야 아야

(물이) 보아야 알 것이다 이 말에 아야가 돌보니 알지말 알지 어했이나 할수 없고 보지 알모란 알지 되는 것이다

(알이) 이를 홀로 거짚이라 하든지 낮뜻이라 할만한것이라 홀로 거짚이라 할은 의의 알에서 온

또한 일로 짚었이라 할이오 낮뜻이라 할은 짚음으로 뜻하는 일이 의의에서 짚음을 한낱 뜻인 줄로 뜻하는 것을 이름이라

一 하라함 이 문저 음을 하는것은 지 나음을 하라고 하는것 (본) 러

(물이) 글을 배호러가오 이 말에 러가 배라함이니 문저 음 자는 나음을 배호를 배라고 하는것이라

언의 갈래

一 가르침 가르치 내는것 (본) 이 저 그

(물이) 저 나무가 푸르오 이 말에 저가 가르침언이라

(알이) 이 저 그는 빗연이니 다른 기가 박구이어 언물이 된것이 안이오

그 몸외 빗이 언이라 함이라

一 物品 여러 가지 본의 품이 벗어남 (본) 좋은 기한 무른 무겁은 부드림은 연한 질김은

(물이) 내가 좋은 붓을 사앗다 이 말에 좋은이 物은언이라

一 物貌 이러 가지 본의 (본) 큰 한 적은 정한

(품이) 나는 큰 말을 띠오 이 말의 본의
物貌인이라

一行品 이러 가지 行爲의
品성이 있는한 (본) 착한 슬한 강한 품은

(품이)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사달하오 이 말의 착한 이
行品인이라

一行貌 이러 가지 行爲의
貌樣이 있는한 (본) 전 비론 것 본 중궁한 반갑은 답답한 섬섬한

(품이) 나는 것 본 남이나오 이 말의 것 본 이
行貌인이라

一 대 이러 가지 것 (본) 이름 밝은 오달

(품이) 나는 이름 아름 예 일어나오 이 말의 이름
대인이라

一 행 이러 가지 것 (본) 한 두 세 네 일곱 많은 적은 혼한

(품이) 두 세 가 날아가오 이 말의 두 세
행인이라

一 것 중 이것을 따 본 것 오
도 인 것이 있는한 (본)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품이) 이러한 것이 절기오 이 말의 이러한
이건 중 인이라

一 모음 음기나지 안이한 (본) 잇도한

(꽃이) 잇더함꽃이질기오 이 말제 잇도오도한 이 모음연기오

一 음 음기오연 기가편것 (본) 간 먹은 가는 먹는 갈 먹을 가던 먹던 설잇던 가앗던

(꽃이) 길도가는저사람이누구요 이 말제 가는 음연기오

(잡이) 음기로 언기가 되는것은 다 때가 잇나니라

一 임 임기가 언기노 못하는것 (본) 돌집 이 말제 돌이 임연기이 돌은 임기나 그 집은 무엇으로 짓은 정이라오 하는것이 돌연기도 돌은 집의 임기도 쓰여어린것 이라

(잡이) 임기가 우알에도 자리를 잇어지는것은 우예 임기는 알에 임기의 언기가 되나니라

우예 임기에 의을 더하는것은 잇기가 외계하는것이라 (본) 나의

갈 나기가 갈의 언기나 風格이라 하는것이라

어의갈래

一 잇덤 음과 잇의 說樣 음갈하는것 꽃 음과 잇의 잇의합 (본) 잘 천천이 따르게 가만이 모질게 착하

계 순하게 응대 길게 크게 적게 굵게 휘어 남하 돌아 씬어

(꽃이) 저말이 따르게 가오 이 말에 따르거나 벗어남이나 응축인
가외로이 벗어남이나 하는 것이라

一 자리 응축이든
파리 (본) 이리 저리 그리 길로 들에 들로 들에서 들에는 들에도

들에야 들에만 들에든지 들엔들 들에라도 들이라도 들에나 곳곳이

(꽃이) 그 사람이 저리가 오 이 말에 저리가 자라거나 응축인
가외로하는 곳을 모이는 것이라

그 사람이 길로 가오 이 말에 길로가 자라거나 응축
임가외로하는 곳을 모이는 것이라

一 때 남의
외대 (본) 꽃을 잇다금 일즉이 번서 따르게 오려 늦게 길이 이제 약

가 아춤에 밤에 어적게 때때로 날날이 달달이 이내

(꽃이) 그 사람이 늘근을 의소 이 말에 늘이 때연이나 응축
임외로 때를 말하는 것이라

(알이) 의제와 알은 거가 연물로 쓰이니
지는 것은 다 때를 털어 쓸인 것이라

一 행이 나 길 남의의 數量이나
度數를 말하는 것 (꽃) 다 거진 겨우 때우 좀 혼이 넉넉이 가득이

많이 크게 적게 넘어 첫째 온전이 들에 들에서 들에는 들에야
들에도 들엔들 들에나 들에만

(물이) 그사람이거진가았다 이 말에 지경이 갈라지니 술을
심가의 程度를 모이는 것이라

一 막이 막은 懸絶의 뜻이라 그 남이를 막는 것이니 뜻 그 남이를 許諾하
지 안이 하는 것이요 그 남이가 그리하지 안이 하여 하는 것이라 (본) 안이 못 다

만 그러하나 마는 후별이

(물이) 내가 밥은 안이 먹겠다 이 말에 안이가 밥이 먹이니 그
남이 의의 일을 하는 것이라

一 그림 그림은 穩定의 뜻과 같이 함 (본) 참글씨 와연

(물이) 글을 배호기가 참 어렵소 이 말에 참이 그 글을 배호지 아니 호되 화하
라는 남이 어렵을 許諾하는 것이라

一 아아 아아를 疑心의 뜻과 같이 함 (본) 아아 글씨 가림

(물이) 아마비가 오겠다 이 말에 아파가 아파있으니 그
남이 오를 肯定하지 못하는 것

(알이) 이 아파라 하는 것은 혼
이 假想하는 것이라

一 모름 그 남이 의 모르
본 비가 있는 것 (본) 왜 잊더 하게

(물이) 네가 글을 잊더 하게 배호았나 이 말에 잊어 화제가 모름이 아니 그 남이 배
호자 잊어 한지 알지 못할을 모이는 것이라

一 견중 그 남이 의 잊어 화를 그 화 남
은 짐으로 견주어 알하는 것 (본) 이러하게 저러하게 그러하게 이같이 이

만하게 이 처럼

(풀이) 너는 이리하게 서어라 이 말에 이르러서가 전술이니 그 남의 서를 잊지 않게 성의 같이 하라 하는 것

— 몬 입기에 짓기가 때와 이 익기로 쓰이는 것 (본) 나무에 들에 소에 소에게 붓에서 붓에는 붓에야

붓에만 붓에든지 붓엔붓 붓으로 붓마다 나와

(풀이) 붓에먹을 찍어라 이 말에 붓에가 몬이니 그 남의 찍이 몬에 물을 말하는 것이라

붓으로그림을그리어라 이 말에 붓으로가 몬이니 그 남의 그리가 몬 붓을 부러어 물을 말하는 것이라

붓마다먹을찍어라 이 말에 붓마다가 몬이니 그 남의 찍이 몬 붓과 붓에 물을 말하는 것이라

내가너와가갓다 이 말에 너와가 몬이니 그 남의 가가 몬 너도여울어 함께 물을 말하는 것이라

— 일 일 일기에 짓기가 때와 이 익기로 쓰이는 것 (본) 뜻에 일에 글에 달에 아흔에 적음에 엮어함에

일에서 일에는 일에야 일에만 일에는지 일엔글 일로 일마다 일과

(풀이) 그사람의말이늘일에잇소 이 말에 일의가 일의이니 그 남의 것이 한 일에 물을 말하는 것이라

(잡이) 입기에 짓기가 더하여 여가로 쓰이는 것은 그 갈래들몬일두

가지로만 난호앗으나 글개 난호라던 짓기의 난글과 견주어 풀

면 알기가 어렵지 안이하리라

(잡이) 억의 갈래를 簡略하게 하라면 열 문 두 가지로 난훈 수가 있나

니라

(잡이) 억기에 序分表가 있으니 보시게들이어다 하는 말에 보시게가

억기요 그 시는 높이는 表로 물이니 이 시와 같은 것들이라

꽃의 갈래

一 이름

이르는 말로
꽃말은 정

(본) 다 나 다 논다 앓다 었다 겻다 리라 으리라 앓으리라

엇으리라 앓겻다 었겻다 요이요 오 오 오 소 앓소 었소 겻소 앓겻

소 었겻소이다 오이다 용나이다 읍나이다 이용나이다 으용나이다

습나이다 더라 이더라 더이다 이더이다 용더이다 읍더이다 읍더이

다 으용더이다 습더이다 시용더이다 앓읍더이다 시더라 지 이지 지

요 이지요 읍지요 읍지요 심지요

(꽃이) 우리나라가름다

이 말제 다가 이름꽃이니 이
르는 말로 꽃말은 정이라

一 꽃음

꽃은 말로
꽃말은 정

(본) 나 으나 이라 뇨이 뇨 으 뇨 나나 앓나나 었겻나나 나

노라 으라 나 인가 은가 야 이야 지 이지 요 이요 오 으오 소
 앓소 엿소 겹소 앓겹소 엿겹소 지요 미지요 시오 으시오 효이가 오
 이가 읊나이가 읊나이가 이 읊나이가 읊나이가 으 읊나이가 습나이가
 더이가 이더이가 읊더이가 읊더이가 습더이가 으 읊더이가
 시 읊더이가 앓 읊더이가 앓 습더이가 더냐 이 더냐 더뇨 시 더뇨 이 더
 뇨 시 더냐 시 더뇨 읊 지요 습 지요

(풀이) 네가 두엿을 배호나나 이 말에 나나가 붙음 뜻이니
 뜻은 말로 뜻 맺는 것이라

一 시김 시김은 말로 (본) 아라 어라 오 으오 시오 읊소서 소서 으소서 읊소서

시 읊소서 오시 읊소서 시 읊시오 심시오 으시오

(풀이) 글을 읽어라 이 말에 이라가 시김 뜻이니
 시김은 말로 뜻 맺는 것이라

一 홀로 홀로 하는 말로 (본) 다 이다 나 다 논다 앓다 엿다 리다 겹다 으리라 앓
 겹다 엿겹다 앓으리라 엿으리라 로다 이로다 으리로다 고나 이고나
 는고나 앓고나 엿고나 겹고나 리로고나 이로고나 도다 이도다 논도
 다 앓도다 엿도다 겹도다 지 이지 앓지 엿지 겹지 앓겹지냐 야 나
 나 나 인가 뇨 이 뇨 으 뇨 라 으라

(꽃이) 우리나라가 곱구나 이 말에 고나가 곱고 꽃이 나 곱
또 하는 말로 뜻있는 것이냐

(잡이) 홀로하는 말에는 스스로 이르는 것과 스스로 못는 것이 있나
니라

임기의 性類 天賦의 性으로 類가 있는 것

一 수 (陽性) 陽性의
있는 것 (본) 아미 오람이

一 암 (陰性) 陰性의
있는 것 (본) 어미 누의

一 普通性 陰陽性을 가리지
않고 陰性에도 있고 陽性에도 있는 것 (본) 사람 중승 소말새 고기

一 無別性 成性이 있는 것과 體質이
있는 일도 體質이 있는 것 (본) 나무 풀 들 풀 흙 불 및 뜻 일 이 제 아 침

본

(잡이) 대임은 제임의 性을 다르어 그 類를 남흔지니라

(잡이) 우리 나라 말에 임기의 性類를 남흔은 感覺性이 있는 본 곳 움
몬만 陰陽性을 가르는데 사람만 特別히 陰陽性을 가르어 그 이
름을 다르게 만들었고 그 남아 음본은 通用性의 이름으로 부르
며 陰陽性을 分別하여야 할 境遇에는 陰은 암이라 陽은 수라 함

으로 우에 무어 다르게하니 본으로 수소라 암소라 합과 같이 하며 풀과 나무 같은 것은 陰陽性을 다르게하여 부음이 혼하지 안이하나 이도 가를 때에는 암수를 쓰어 다르게하니 본으로 암은 힘나 무수 은 힘나 무라 암 들에 나무 수 들되나 무라 합이요 일 임기는 陰陽性이 없음으로 陰陽을 다르게하여 말합이 없나 니라

(잡어) 가심은 임기니 시는 높임으로 더함이라 이러함으로 높임의 뜻 이 잇는 임기니라

것기의 쓰이는 곳

一 기결어의 알에 어느 기결어의 알에 쓰이는지 말하는 것

一 임기 알에 모든 것기는 다 임기 알에 안 쓰임 (본) 소가 벼루를 벼루에 빚에 봉에

一 소리 알에 웃음소리와 물음소리의 아음을 아로기 쓰이는 것을 가르는 것

一 웃음소리 알에 (본) 가 물로는

一 물음소리 알에 (본) 이 을 으로는

一 웃음소리든지 볼음소리 알에 웃음 볼음 무소리 (본) 도에

잇기의 마티 잇기도 잇는 마티의
길예를 가르는 것

一 기잇 기화기를
잇는 것 (본) 소와 말 차는 잇기 소여
잇기 말을 잇는 것 길고 크다 고는 잇기 길에서
잇기 크를 잇는 것 가며 노래

하오 떠는 음기 자에서 음
기 노라함을 잇는 것

一 모잇 모와 모를
잇는 것 (본) 현조히와 검은덕 차는 모 현조히에서
모 검은덕을 잇는 것

一 드잇 드와 드를
잇는 것

一 못맞은 드잇 (본) 바람은 가법고구름은 허오 고는 못맞은 드
맞은 가법에서 드 구름을 허오를 잇는 것

一 맞은 드잇 (본) 날이 좋다 마는 나는 가갓다 마는 온 벗을 드
이 좋다에서 드 나는 가갓다를 잇는 것

잇기 쓰이는 곳

一 기별예의 알에 이노 기별예의 알을
쓰이는 지 알하는 것

一 음기 알에 (본) 덕으면 스면의 잇기나
기별 알에 쓰인 것

— 잇기 알에 (본) 짐으면 오면이 잇기나 잇
기감 할에 쓰인것

— 임기 알에 (본) 돌이면 이런이 잇기나 잇
기감 할에 쓰인것

— 소리 알에

— 웃음소리 알에 (본) 와 면 ㄴ데 나

— 볼음소리 알에 (본) 파 으면 인데 이면 으네 으너 이니

— 웃음소리 든지 볼음소리 알에 (본) 는데 다 가 고 그러함으로

(알이) 맛은 말을 잇는 잇기는 다 한 가지의 품으로
웃음소리 든지 볼음소리의 알에 쓰이니라

잇기의 때

— 이 때 (본) 가 나 가는데 먹 으니 먹는데 나와 으니와 는데는
다 잇때의 잇기라

— 간 때 (본) 가 앓 으니 가 앓는데 먹 앓 으니 먹 앓는데 앓으니와 앓는데가 앓으니와 앓
는데는 다 간때의 잇기니 앓이

나 앓은 다 간
때를 보임이라

— 올 때 (본) 가 겠 으니 가 겠는데 먹 겠 으니 먹 겠는데 겠으니와 겠는데가 올때의
잇기니 겠은 올때를 보임이라

(잡이) 나 와 으니와 는데와 같은 잇기들의 때를 밝게 다시 말하면 이

때에 되는것이요 앓으니와 앓는때와 앓으니와 앓는때와 같은
잇기들은 때를 밝게 다시 말하면 다 되어 앓고것이요 겹으니와
것은때와 같은 잇기들의 때를 다시 밝게 말하면 이담에 될것이
니 곳 되리라고 거짓 뜻하는것이요 가더니의 더는 지난 때에
맞지 안이한것이니 곳 지난 때에 되어 가는것이라

잇기의序分

一 돌음

推稱하는것

(본) 가시니

시니가 돌어는 잇기니 시는 돌임이라

一 갈음

추稱하는것이니 돌음이 없음이 없음이

(본) 가너

(참이) 돌이어 말함으로 가음시니 할 때도 잇으니 음서가 돌임이요 가
시오니 할 때도 잇으니 시오가 돌임이요 가오니 할 때도 잇으니
오가 돌임이라 그러하나 시만 두어 돌임을 삼음이 몇몇합이라

꽃기의 쓰이는 곳

一 기결에의알에

一 잇기알에 (본) 김다

아까 꽃기니 잇기김알에 쓰인것

— 울기 앞에 (본) 먹는다 놀라기 웃기나 울기 먹기 앞에 쓰인 것

— 임기 앞에 (본) 먹이다 이따가 웃기나 임기 먹기 앞에 쓰인 것

(잡이) 엇과 울과 임기 앞에 다 한 가지로 쓰일도 잇고 엇과 울기 앞

에 한 가지로 쓰일도 잇는데 엇과 울기 앞에 쓰이는 것은 서로

거진 다 같으며 임기 앞에 쓰이는 것은 엇과 울기 앞에 쓰이는

것과 서로 거진 다 다르니라

— 소리 앞에

— 웃음소리 앞에 (본) 가오 오가 웃기나 웃음소리 가 웃길 가가 앞에 쓰이는 것

— 불음소리 앞에 (본) 먹으오 오오가 웃기나 불음소리 가 (잡이) 오오의 代로 소를 쓰어 혼히지 먹소

라라나 니라

— 웃음소리든지 불음소리 앞에 (본) 가리라 먹더라 먹라가 웃기나 웃음소리 가 웃길 가와 불음소리 가이

웃길 먹 앞에 라한가 지 먹로 쓰이는 것이라

꽃가의序分

長初章句의 마름을 가르는 것

모든
것이
라

—올때 그 남자가 이 (본) 비가 오겠다 비가 오거나 또는 올때 보일거나 하는 그

(장이) 올때를 표하는 것은 거짓 뜻함을 보이는 것이라

(알이) 그 남이의 되고 못 됨으로 말하면 이때라 함은 그 남이가 이때에
되어 가는 것이니 되는데라 할 것이요 간때라 함의 가앗다라 하는
앞과 같은 것은 그 남이가 다 맞아 잇는 것이니 이때 맞음이라 하든
지 맞아 잇음이라 할 것이요 설엇었다라 하는 잇엇과 같은 것은 그
남이 설이다 맞아 잇다가 없어진 것이니 간때 맞음이라 하든지 맞
아지남이라 할 것이요 올때라 함의 오겠다라 함에 것과 같은 것은
그 남이 오가 이담 때에 될 것이니 올때 됨이라 할 것이라 그러하나
이는 오가 되리라고 뜻하는 것이니 또한 거짓뜻하는 때라 할 것이
라 뜻이 피엇겠다 하면 엇것은 잔때표 잇세 올때표 것이 더한 것
이니 피가 되었다고 거짓 뜻함이라 이를 잔올때라 하든지 거짓맞
은 때라 할 것이니 漢字로 삭이면 過去將來라 하든지 過去假想時
라 할 것이라

(잡이) 그 사람이 가오 하면 오는 이때를 아우른 곳기너 이는 어려하게
 풀이 말할것이요 때를 보이는 표가 따로 잇는것은 곳기에 아우르
 어 한 곳기로 삼고 이를 풀 때에는 다로마로 말할지니라

기름박죽

어느기든지 서로 박구어 쓰지 못하면 말다_二을 공할 수가 없음으로 각 기
 의 곁에를 서로 박구어 쌓이 잇으니 이를 기름박죽이라 이름이라

어스본임

엇음을 잇음을
 의지하는것

헛 헛은 엇음이요 口는 그 혀에 의하여 잇음으로 박 검음 검은 엇음이요 음은 그 검에 의하여
 구어지거 박는것이라 그어함으로 립음 임이라 림음 림음으로 박구어 지게 하는것이라 그어

함으로 립음
 이 임이라

(잡이) 웃음소리가 갓진 엇기에는 口만 더하여 림음으로 박구로 불음
 소리가 갓진 엇기에는 음을 더하여 림음으로 박구너 이알에 다
 른것도 이를 밀어 풀지라

(잡이) 불음소리가 갓진 알에도 口만 더하지 안이하고 口 우에 으를 더
 하여 쌓은 불음소리 둘이 함께 잇으면 그 소리를 다 내기가 어

림고 또 그 소리가 박구어짐이 잇음을 막고 자음이니 두 불음소
 과 사이에 웃음소리가 들어 가면 그 불음소리가 따도 나는 까닭
 이라

(알이) 엇기 길 알에는 口을 바로 더하여 임음이 되게하니 이는 口과

口의 소리를 함께 낼수 잇고 그 소리가 함께 나되 박음이 없이

제 소리 대로 나는 까닭이라 (본) 김 (알이) 정의 불음 기로 잘르면
 이리하여 할것이 안이리

그러하나 알에는 불음소리를
 바로 붙이어 임이 혼히나카

히지 김지 지는 웃음소리든지 불음소리 알에 한 가지로 더하여 임음 되게
 하는것인데 그 남이는 한 뒤집 (反順)은 뜻이 짐의 쓰는것이러

히기 김기 지는 웃음소리든지 불음소리 알에 한
 가지로 더하여 임음 되게하는것 (알이) 지외 기외 다름을 가르코자

하면 기를 더함은 두루 쓰이는 것이라 할지라

임음본임 임음의 임음 되코자
 시 임음 되게하는것

(정합) 정은 漢字 讀法 讀法 讀法 우리 나라 말에 漢字 讀法을 섞어 씀이 잇으되 다 임음으로만 씀으
 모그 임음이 되는것에 다름이 하여 잇음을 안을고 다시 口을 더하여 임음이 되게한것

음본니임 음음을 임음
 되게하는것

의제하
의정

〔알이〕 **허름** 허름은 漢字 術의 音轉의 음운 **사람스럼** 인공 사담에 스럼을 더 하여 인공을 의미하는 것 **사람담**

담은 스럼과 한 가지나 인공사 **먹을직하** **쓸만하** 이 두 말의 품어 韓公은 韓의 먹하의 뜻을 의미하는 것 **마가뜨기** 김이서 말하리

한 의하지나와 이 둘은 多것들은 보 쓰는 것

이 우에는는 인공을 퇴계하는 것

임인인임 인공을 음운 퇴계하는 것

일하 인공 일과 화를 이루 **말하** 인공 말과 화를 더하 **나무하** 인공 나무의 화를 더하 **동하**

동은 漢字 動의 음인라 動字는 純漢文으로 음운이나 우의 나라 말에는 漢字音을 더 인공으로

모란 같은 것도 그 인공을 보인 動에 화를 더하여 비로소 음운으로 쓰이니 하는 인공 품어 韓의 음운 퇴계

한 옛말 한말은 한말의 옛말

다 하 다 하의 음운 퇴계하는 것 **다 하** 다 하의 음운 퇴계하는 것 **잔 하** 잔 하의 음운 퇴계하는 것 **못 하** 못 하의 음운 퇴계하는 것

우울로 하는 것
몸이 가벼운 것

(한이) 더와 다취 임금이 되 쓰면 것이라

임양가 귀양
시
우울로 하는 것
몸이 가벼운 것

자게하
다시
우울로 하는 것
몸이 가벼운 것
덜게하
다시
우울로 하는 것
몸이 가벼운 것

정양가 귀양
시
우울로 하는 것
몸이 가벼운 것

히게하
다시
우울로 하는 것
몸이 가벼운 것
덜게하
다시
우울로 하는 것
몸이 가벼운 것

임양가 귀양
시
우울로 하는 것
몸이 가벼운 것

일하게하
다시
우울로 하는 것
몸이 가벼운 것
동하게하
다시
우울로 하는 것
몸이 가벼운 것

은 것은 우부
한가 되라

임양가 귀양

정하게하
다시
우울로 하는 것
몸이 가벼운 것

이 우에는 **음용이 되게 하는 것**

크기 는 하

음용 크게 거를 위하여 음용을 만들므로 다시 만이 것이 는을 위하여 한 임이음을 일우
 더그 만이의 뜻이 있게 하므로 다시 화를 위하여 한 음용이 되게 한것이라 또 크기를 인
 이모로고 화를 남이모 모든지 크기는을 한음으로 모모 화를 남이모 모다 들수가
 잇다 할지나 그 뜻을 들기가 번지 못하니 글하의 이례하게 들것이 한이오 크기는하
 를 만이 는의 뜻이 잇는 한
 음으로만 음이 들스니하

크기도 하 크기야 하 크기만 하 정하기는 하 보기 는 하

음용 모제 거를 여
 하여 음용을 만들므로
 다시 만이 것이 는을 위하여 한 임이음을 일우
 더그 만이의 뜻이 있게 하므로 다시 화를 위하여 한 음용이 되게 한것이라 또 크기를 인
 이모로고 화를 남이모 모든지 크기는을 한음으로 모모 화를 남이모 모다 들수가
 잇다 할지나 그 뜻을 들기가 번지 못하니 글하의 이례하게 들것이 한이오 크기는하
 를 만이 는의 뜻이 잇는 한
 음으로만 음이 들스니하

크게 는 하

음용 크게 거를 위하여 음용을 만들므로 다시 만이 것이 는을 위하여 한 임이음을 일우
 더그 만이의 뜻이 있게 하므로 다시 화를 위하여 한 음용이 되게 한것이라 또 크기를 인
 이모로고 화를 남이모 모든지 크기는을 한음으로 모모 화를 남이모 모다 들수가
 잇다 할지나 그 뜻을 들기가 번지 못하니 글하의 이례하게 들것이 한이오 크기는하
 를 만이 는의 뜻이 잇는 한
 음으로만 음이 들스니하

크게도 하 크게야 하 크게를 하 크게만 하 정하게만 하

가게 는 하

음용 가게 거를 위하여 음용을 만들므로 다시 만이 것이 는을 위하여 한 임이음을 일우
 더그 만이의 뜻이 있게 하므로 다시 화를 위하여 한 음용이 되게 한것이라 또 크기를 인
 이모로고 화를 남이모 모든지 크기는을 한음으로 모모 화를 남이모 모다 들수가
 잇다 할지나 그 뜻을 들기가 번지 못하니 글하의 이례하게 들것이 한이오 크기는하
 를 만이 는의 뜻이 잇는 한
 음으로만 음이 들스니하

든사람 와엿던사람 같거고 리을식 고갈마를 농을와臥 누을와臥 누
을와臥 농와臥 업을부외 짓을작작 지을작작 절작작

임본언

임본이 언본
외가외는것

모시웃면유웃면유이불베이불야기웃오리알비단웃물오리솜웃겉웃
속웃갑오리대갓고기국고기국떠나무어젯날가루되벼루을채
동새무리바닷물수수밤햇빛햇빛보리술벼루상외외집유리창대갈
석유롱쉬파리담배합산나를산골 말에 우에 임에 스음 언달 우에 임에 스 삼하력
스 산물 산봉을리 우에 임에 스 보섬솜 우에 임에 스 비단실 우에 임에 스 우산자루 우에 임에 스
떡국장작나무 흙담만국력사떡보호박설기약저술떡물떡합밀가루 우에 임에 스
우에 임에 스 이잇는것 우에 임에 스 돌기동갈날술나무소나무물죽 우에 임에 스 돌다리 마리 우에 임에 스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기 돌집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관힘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얼음물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밤자루 우에 임에 스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금고리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벌나비 우에 임에 스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그믐달 우에 임에 스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밤선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이잇는것

오르게 올름 오르며 세를 더한 것 (게르게는 겹이로 줄여 삼이 잇으되 오르게는 올이로 줄

여 쓰지 안아함) 솟게 (뜻게 뜻게) 덮게 (덤게 덩게) 쌓게 (싸게 쌓게)

박게 (팍게 싸게) 붉게 (불게) 삼게 (삼게 삼게) 락게 (락게 락게) 얹게

(알게) 벗게 (버게) 믿게 (밋게) 말게 (말게 맞게) 찢게 (찢게) 없게 (업

게) 앉게 (안게 안게) 돌아 올름 올며 잇기 하를 더한 것 적어 올름 적게 잇기 하를 더한 것 (저거) 가르어

갈르어 (갈아 갈라 갈나) 두르어 돌르어 (돌어 둘러 둘러) 따르어 (따아

따라) 이르어 (이들어) 돌아 (도아 도와) 놓어 (누어 누워) 믿어 (미어 미

워) 가어 (기여) 가아 (가) 그리어 (그리) 짓어 (지어 지여) 젖어 (저) 길

어 (것) 쌓아 (싸하 싸하) 서어 (서) 쓰어 (써) 질하어 (질하여 질하야 질

하야 질하야) 씻어 (씨서 씻서) 믿어 (미더 믿어 믿더) 말아 (마라 말하

맛타) 찻아 (차자 찻자 찻아) 좃아 (조차 좃차 좃아) 얹어 (어퍼 얹히 얹

어) 쉬어 (서기 서게 성세) 원어 (얼거) 뵈아 (발바) 삼아 (살마) 입어 (일

히 일어 이터) 앉아 (안자 안자 안저 안저) 없어 (업서 업서 업씨) 슬어

(으려) 올피 (올어) 찹아 (찰라)

이 우는 풀이 말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나니라

제음이 남음 되게 하는 것 (잡이) 제음은 自動이라 함이요 남음은 他動이라 함이요

줄이 제음을 줄에 이음이라
제 남음이 되게 하는 것

(잡이) 돌이 제음을 돌의 이름을 띠하여 남음이 되게 한 것인데 그 밑의 소리를 押韻의 줄로
대는 것이라 낮 단 음 무 단 두르는 押韻의 證據는 날아가라고도 하고 날라

가라고도 할라 모래라고도 하
고 물레라고도 하는 것들이라 줄어지 줄어지라 시를 띠한 것이나 줄라 한 가지

돌우 제음을 돌의 우를 띠하
여 남음이 되게 하는 것

(잡이) 돌아지 돌계 아와 시를 띠한 것이나 돌라 한 가지
모 쓰임이요 아오 락구임이 없는 것이라 없어지 없이하

(잡이) 일우 제음을 일의 우를 띠하여 남음이
되게 함이니 돌우와 한 가지라 일어나 일과 한 가지
모 쓰이는 것 건우 제음을 건
우를 띠

하여 남음으로 쓰이는 것인데 押韻의
잇따갈 건을 남음으로도 쓰는 것 건어지 건과 한 가지
모 쓰이는 것

묵히 제음을 묵의 이름을 띠하
여 남음이 되게 하는 것

(잡이) 줄 줄어지 줄 돌아지 일 일어나 건 건어지 묵은 다 바로 입음 힘
으로 두로 쓰되 줄어지와 돌아지와 일어나와 건어지를 혼이 입
음 힘으로 삼이 버릇이요 줄어지와 돌우와 묵히는 다 바로 힘으로

쓰는 것이니 남용은 의례 바로움이 되나니라

남용이 제음 되게 하는 것

쓰이 남용을 쓰게 이룰 때 하
의 제음이 되게 하는 것

(잡이) 의 쓰와 이룰 한
것과 내는 것

같이 남용을 정역 이룰 때 하
의 제음이 되게 하는 것

(잡이) 같이 팔할 때에 같이 쓰어 같아 하면 그 말을 한 단의 소리로 내외 그 같게 이
를 내하여 제음의 되게 할 것이라 단 소리는 두 단도 같이 비릇된 것이라

(잡이) 같이 내는 것

남용에 이를 더하여 제음을 삼은 것의 근은 말하는 버릇에 거진
다 두 근 소리로 내나니라

같이 어지 같이 어지 지를 더한 것이나 같과 한 가지
또 쓰임이요 아모 막구임이 없는 것이라

정히 남용을 정역 이룰 때 하
의 제음이 되게 하는 것

(잡이) 같이 어지

같이 남용을 정역 이룰 때 하
의 제음이 되게 하는 것

(잡이) 같이

엇기의 몸

一 낮음(본) 크김 차 착하 혼하

一 모힘음(본) 겹복

것기의 몸

一 낮음(본) 의

一 모힘음(본) 에는

그 남아는 다 이리함

기뜻박음

둘절 둘은 십인계 절을 의하여도 입어라 그러하나 둘과 둘절은 그 뜻이 한 가지가
한이니 이 절은 그 뜻을 막구락고 의한 것이라 이차 같은 것이 많으니라

이온글의 잡이

一 이 글은 우리나라 말의 들을 말하는 것이요 뜻을 말하는 것은 안이나 엇

지하였든지 말을 배호는 글이라 이리함으로 아모조록 우리나라 말을 혼

이 쓰었노라

一 줄이어 쓴 말과 서로 이용하여 쓴 말은 잡시의 눈으로 보시는 이는 이

상이 여기심이 잇겟으나 글에는 이러하게 안이할 수 없을 뿐더러 外國의 文字를 符號로 쓰는 일도 잇거늘 엇지 어는 혼도 글으다 하리오 또 이를 漢字로 짓지 안이함은 그 漢字의 뜻으로만 풀라하고 그 일의 뜻은 뜻하지 안이함을 덜고자함이라

— 이 글은 그 말과 그 소리에 음음을 가리어 쓰노라 함이다 그러하나 이러하게만 쓰기도 명한다 함이 안이요 더 좋은 길은 잇으면 그 길을 말을 지라 그러하나 혹은 쪽만 보고 그 음고 글음과 利하고 害함을 가리지 못하는 말이야 엇지 다 가리리오 또 바르게 쓰라하면 그 까닭을 알아 보기가 무렵하지 못한 것과 複雜한 것은 俗에 혼한 버릇(習慣)대로 아직 쓰고 초음마르케 하기를 바라는 바라

— 이 글은 수 世界에 무로 쓰이는 文法으로 웃음을 삼아 꿈임이라 그러하나 우리 나라 말에 맞게하노라 함이라

— 이 글이 적으나 우리나라 말들을 모도에 우게 꿈이노라 함이라

— 이 글은 우리나라 말에 맞게하노라 함이라 더 좋은 길은 잇으면 반듯이 그들 따를지라 그러하나 그 참 뜻은 깨지 못하고 만 곳을 파는 말이야 엇지 다 가리리오

이 글은 광무 이년 무술에 다 만들었든 것을 이제 얼마쯤 덜고 더 함연
데 이름을 漢字로 朝鮮語文法이라 함은 그때의 이름대로 됨이라

이 글은 다 漢文을 섞어 만들었던 것인데 이제 다 우리나라 말로 곧히어
만들고자 하나 박문을 말미암아 다 곧히지 못함으로 음름이 漢文이 있
음은 이 까닭이라

이 글은 기난갈의 사이에 등은 이러하게 하여야 그 뜻을 알기가 쉽겠다 함
이라

이 글은 課目을 밝게 난호지 못하고 그 남아도 가초지 못함이 많으나 그
일은 어서 시작되게 하고자하여 이러한 대로 박음이라

그러하나 그 程度는 高等以上으로 쓸 것이라

이 글은 우리나라에 글 다스리는 일을 맡으신 이들과 우리나라 말에
이름이 높으신 이들과 우리나라에 자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맡으신 이들
과 우리나라 말을 바르게 쓰어 좋은 글이 되고자하시는 이들과 우리나라
말의 字典을 만들고자하시는 이들과 그 남아 우리나라 말을 發達하게 하
고자하시는 뜻이 있으신 이들에게 감히 이 글을 들이노니 이 글이 우리
나라 近來 돌아 다니는 文法들과 다름이 있다고 이리 그 뜻이 쓰리라 하

여 입에 갖잡게도 안이하시고 못 버리시지 말으시고 研究하실 한 길이도
삼아 교이 섭어 그 속까지 맛보시고 그 잘못됨은 다 논하여 그 맛을
고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어리석은 뜻을 감히 말함이로이다

隆熙三年十月 日 周時經

周時經先生遺稿卷三

말의 소리

의 말 소리

한 협생 周 時 經 著

소리의 남

몬의 음죽입이니라

소리의 펴어짐

노의 결이니라

소리의 빛

그 소리가 나는 몬의 바탕을 따르어 서로 다름이니라

고나

말의 소리의 뜻이니 입의 짓으로 소리가 다르게 됨을 이룸이니라

우리 고나

다

(잡이) 이 잡이는 이 알외 홀 소리와 닷 소리의 잇는 일을 견

주어 풀을것이라

홀 소리와 닷 소리의 거듭하는 일

홀 소리의 거듭하는 일

홀 소리는 다 몇 거듭하나나 같은 소리가 거듭하면 한 소리가 되나
니라

(풀이) ㅏ는 ㅑ가 몬저 되요 ㅓ가 나종 되어 거듭함이오

ㅕ는 ㅗ가 몬저 되요 ㅛ가 나종 되어 거듭함이오

ㅖ는 ㅒ가 몬저 되요 ㅜ가 나종 되어 거듭함이오

ㅚ는 ㅓ가 몬저 되요 ㅝ가 나종 되어 거듭함이오

새는 ㅖ가 몬저 되요 ㅞ가 담되요 ㅟ가 나종되어 거듭함이니

그 남아는 다 이러하니라

ㅑ에 ㅓ를 거듭하면 ㅓ가 되요 ㅕ에 ㅗ를 거듭하면 ㅓ가 되요

ㅖ에 ㅒ를 거듭하면 ㅓ가 되나니 그 남아는 다 이러하니

라

닿 소리의 거듭하는 열

닿 소리는 석이어 거듭할과 덧하여 거듭할과 짝하여 거듭할의 세 가지
가 있나니라

그러한데 석이어 거듭하는 소리를 석임 거듭 소리라 하고 덧하여 거듭
하는 소리를 덧거름 소리라 하고 짝하여 거듭하는 소리를 짝거름 소
리라 하노라

(보기) 크 큰 포 초 노 큰 22 22 22 의 다 위 들은 다 석임 거듭 소리니라

석임 거듭 소리는 석이는 거듭 소리를 이름이니 덧거름하지 아니하
고 몬저 됨과 나종 의의 다름이 없게 석이어 한 덩이로 나는 것이
니라

(잡이) 석임 거듭 소리는 흥가 어느 닿 소리와 거듭하여 나는 것이
니 이는 흥가 석임 만한 바탕이 되는 가닥이니라

(풍이) 막히를 잊이 나이면 마키와 한 가지오 풍고를 잊어 나이면
조코와 한 가지니 이는 기가 몬저 되고 흥가 나종 됨이나 흥
가 몬저 되고 기가 나종 됨이 그 거듭하여 나는 것은 다 크라
이런으로 이는 몬저 되고 나종 됨이 없게 한 가지로 나니 석

가) 업는 가답이니라

흔 소리와 닷 소리의 잇는 일

흔 소리의 잇는 일

흔 소리가 서로 맞아 날 때에는 거듬하기가 쉽니라

(풀이) 그 사람이 오아 나를 보더라 할 말을 그 사람이 와 나를 보

라 하는 것은 오와 아가 서로 맞으며 거듬하여 와 가 됨이오

(풀이) 나가 그림을 그리었다 할 말을 흔하게 나가 그림을 그렸다 하

는 것은 리의 1와 잇의 어 뜻이 가 거듬하여 렷의 1가 됨이오

(풀이) 그 사람이 오오 할 말을 흔하게 그 사람이 오하는 것은 오와

오가 서로 맞으며 거듬하여 한 오가 됨이니 이다위를 보면 흔

소리가 서로 맞아 날 때에 거듬하기가 쉬운 바 망인 줄을 알 것

이니라

(잡이) 그러나 이는 흔 소리가 서로 맞아 날 때에 이를 거듬하여 나임

으로 거듬함이요 반듯이 저로 거듬함은 아니니라

(잡이) 흔 소리가 서로 맞아 거듬하여 날 때에 들어 날 만큼만 들어 나

고 열마든지 거듭하는 데도 다 들어나지는 못 하나니라
 덧 소리의 잇는 일

덧 소리가 서로 맞아 날 때에는 열마든지 다 거듭하고 마로 나지 못
하나니라

(풀이) 막히라 함의 막과 흥을 잇어 나이면 막의 ㄱ과 ㅎ의 흥가서
로 맞으며 ㄱ 흥가 한 덩이의 거듭 소리로나야 막히가 마키와
한 가지니 이는 ㄱ와 ㅎ가 흥 소리 ㄴ와 ㄹ의 사이에서 남으로
말로는 ㄱ가 마의 ㄱ 소리오 흥가 ㄹ의 첫 소리나 소리로는 막
과 ㅎ가 잇어 날 때에 ㄱ와 흥의 사이가 떨어져 지지 아니하고
잇어 나는 가닥이니라

(풀이) 갖집이라 함의 갖과 집을 잇어 나이면 갖의 ㄱ와 집의 ㄱ가서
로 맞으며 ㄱ ㄱ가 한 덩이의 거듭 소리로나야 갖집이 가뻥
파한 가지니 이는 ㄱ와 ㄱ가 흥 소리 ㄴ와 ㄹ의 사이에서 남
으로 말로는 ㄱ가 가의 ㄱ 소리오 ㄱ가 남의 첫 소리나 소리로
는 갖과 집이 잇어 날 때에 ㄱ와 ㄱ의 사이가 떨어져 지지 아니
하고 잇어 나는 가닥이니라

(물이) 넓고라 함의 넓과 고를 잊어 나이면 2 남 1 가 한 명이라도 나
나니라

(잡이) 이렇으로 여러 소리가 맞음을 다 나이가가 어렵은 것은
덜고 나이지 아니함도 잊으며 들어 나게 나일 수가 업
는 것도 있나니라

(보기) 넓더라를 넓더라라 하여 근를 덜기도 하고 널
더라 하여 남를 덜기도 하니 이는 2 남 1
를 다 한 명이라도 나이가가 어렵음으로 이러하게
합나라 그러나 이는 다 들어 나게 나일 수가 잇
는 것이오

(보기) 막 곳이라 함은 막 곳과 한 가지로 한 1 는 들
어 나일수가 업나니 이는 두 1 만 거듭하여도
단단할만큼 다 단단하여 다시 1 들 더하여도 더
들어 날 수가 업는 가닥이라

(잡이) 다른 것도 다 이와 한 가지로 거듭하는 대로 일마든지
다 들어 나지 못하고 들어 날 만큼만 들어 나나니라

덧 소리의 잇어 박구임

덧 소리가 서로 잇어 날 때에는 저도 박구이어 절이 잇으니 이는 그 잇어 나는 일로 박구이어 지는 것이다

ㄱ가 ㄴ ㄹ ㅁ ㅎ의 우에서는 ㅎ도 박구이나니라

ㄴ ㄹ ㄱ 그 몬저와 나음을 잇더하게 서로 잇든지 ㄴ가 ㄹ로 박구이거나

ㄹ가 ㄴ로 박구이나니라

ㄴ가 ㄴ ㄹ ㅁ ㅎ의 우에서는 ㅁ도 박구이나니라

ㅁ ㄷ ㅈ ㅊ ㄹ가 ㄴ ㄹ ㅁ ㅎ의 우에서는 ㄴ로 박구이나니라

(잡이) ㅈ ㅊ ㄹ는 ㅎ의 박에 ㅈ ㄷ가 ㄴ로 박구이나니라

ㄷ ㅈ ㅊ가 ㅎ의 박에 모든 덧 소리의 우에서 잇어 날 때에는 서로 한

가지니라

ㄹ가 ㄴ ㅁ ㅎ의 박에 모든 덧 소리의 알에서는 ㄴ로 박구이나니라

(잡이) ㅁ의 알에서는 ㄴ로 박구이지 아니할 때도 잇나니라

ㄱ ㄷ ㄴ ㅁ ㅈ가 서로 잇더하게 잇든지 알에 것의 소리는 단단하니라

삼귀를 혼하게 삼귀라 하고 손가락을 더러 송가락이라 함의 다위로 ㅁ

나 ㄴ 들 ㄱ 의 우에서 ㅎ 도 박구어 나임과 샷 갖을 혼하게 샷 갖이라 하여 ㅅ 울 ㄱ 의 우에서 ㄱ 도 박궁과 팻 밥을 혼하게 팻 밥이라 하여 ㅅ 들 ㅂ 의 우에서 ㅂ 도 박구어 나임이 잇으니 이는 다 저의 소리대로 나일 수가 잇는 것이라 그러나 이도 얼마큼 이러하게 박구일 만한 일이 잇음이니라

(잡이) 저의 소리 대로 나이면 얼마큼 떨어 지외 박구면 잘 잇어 지니라
이름으로 박구는 것은 잘 잇어 지게 하라함이니라

홀 소리와 닷 소리의 바탕의 다름

홀 소리가 서로 잇어 거듭나는 사이에 닷 소리가 들어 가면 그 홀 소리가 떨어 지어 따로 나니라

(보기) ㄴ 와 ㄹ 의 거듭하여 나는 니라도 그 ㄴ 와 ㄹ 의 사이에 ㄱ 가 들어 가면 ㄴ ㄱ ㄹ 로 ㄴ 와 ㄹ 가 서로 떨어 지어 나나니 이러함은 이름이니라

어 지어 따로 나게 하지 못하 있어 나일 때 되 홀 소리가 들어 가면 그 닷
소리가 반듯이 따로 떨어져 지어 나나니라

(보기) 말 굵을 잇어 나이면 그 ㄹ ㄱ 가 거듭하여 나나니 그 사이에 한
ㄱ 들 더하여 말 ㄱ 굵을 만들코 이를 잇어 나이면 ㄹ ㄱ ㄱ 가 다
거듭하여 한 덩이로 그 ㄹ ㄱ 들 따로 나게 하지 못하 있어 나일 때
외 홀 소리 ㄱ ㄱ 의 들 그 사이에 더하여 말 ㄱ 굵이라 하면 그
ㄹ ㄱ 가 반듯이 따로 떨어져 지어 나나니라

닷 소리에 첫과 굵이 다름

닷 소리에 첫으로 남과 굵으로 남의 다름이 있으니 첫으로는 저의 소리
대로 나되 굵으로는 서로 한 가지가 되거나 들어 나지 못함이 있나니라
이문아 나는 첫을 첫 소리라 하고 잇이어 나는 것을 굵
소리라 하나니 첫이라 할과 굵이라 함이 어를 이룸이라

ㅅ ㄷ 스가 첫으로도 남과 굵으로도 남의 다름이 있으니 첫으로는 저의 소리
대로 나되 굵으로는 서로 한 가지로 나나니라

(풀이) ㅅ ㄷ 들 첫 소리로 비롯아 사 다 자라 할 때에는 저마다 저의

소리 대로 들어 나되 굿 소리로 맞히어 ㅅ ㅅ는 ㅅ이라 할 때에는 서로한 가지니 이는 ㅅ ㄷ ㅈ의 소리를 나이라고 허를 불힐 때에는 다 한가지로 하고 드일 때에는 다 다르게 하는지라 사 다 자 의 ㅅ ㄷ ㅈ는 첫 소리로 불히었던 허를 그 답에 잇는 ㅅ 들 나 이라고 드일 때에는 서로 다 다르게 함으로 사 다 자의 다름이 이 함 열에 잇고 ㅅ ㅅ는 ㅅ의 ㅅ ㄷ ㅈ는 허를 불히기만 하고 드이지는 아니함으로 서로한 가지가 됨이 이 가답이니라

타 차의 ㅅ ㅅ도 저의 소리 대로 나되 ㅅ ㅅ의 ㄷ ㅈ는 그 ㅎ는 들어 나지 못하고 그 남아의 ㅅ ㅅ은 우에 물이와 한 가지로서 로 다름이 없게 나나니라

(장이) ㅅ ㅅ는 ㅅ ㅅ는 ㅅ의 앞에 홀 소리가 맞으면 저의 소리 대로 나나니 이는 굿 소리로 맞히던 일이 없어 지고 그 앞에 홀 소리를 맞아 잇어 나눈 가답이니라

딱 소리는 첫으로는 들이 다 들어 나되 굿으로 맞히는 것은 호 소리로 나나니라

(공이) 딱의 ㅅ ㅅ는 다 잘 들어 나되 뒤의 ㅅ ㅅ는 ㅅ와 한 가지로 나나

니 다른 딱 소리를도 다 이리하니라

(잡이) 그가 굿 소리로 맞히는 것은 알외 억음으로 훗근도 딱

근 푸민물이
로 나이나니라

낮내

소리의 낮으로 나는 도막을 이음이니라

(풀이) 홀 소리 깃아듣지 홀 소리가 닷 소리와 더불어 남이듣지 훗으로 남이듣지 거음으로 남이듣지 한 낮의 도막 꽃한 명이로 나는 소리마다 이르는 것이니라

(풀이) 대가 푸르다라 하면 대와 가와 푸와 르와 다가 저마다 낮내니 이는 모도 다섯 낮내니라

홀 소리의 때

소리가 나는 동안의 이름이니라

(잡이) 홀 소리는 길고 자음과 높고 낮음과 세고 여림과 넓고 좁음의 다

름이 잇으니

길고 자름은 소리가 나는 때의 동안을 이름이오

높고 낮음은 소리가 나는 문의 울리는 생을 이름이오

세고 여덟은 소리의 나는 힘을 이름이오

널고 좁음은 입을 쓰는 것을 이름이라

홀 소리에 이네 가지의 다름이 잇으나 때로 쓰는 말을 적는

글에는 소리가 나는 때의 동안을 길고 자름의 두 가지로만 가르

어 그 서로 다른 바만 알게 함이 넉넉하니라

(잡이) 널고 좁음도 이에 아우르어 가름이 또한 줄으리라

(잡이) 닳 소리에 이네 가지의 다름이 없나니라

말의 익음 소리

말의 익음으로 박굴과 나이지 아니함이 잇으니

르를卜나 卜下 一의 첫 소리로 비롯아 나일 때에는 르로 박구나 卜의

첫 소리로 비롯아 나일 때에도 르로 박구나니라

나 르를 一의 첫 소리로 비롯아 나일 때에는 그 르를 나이지 아니

하나니라

(잡이) ㄴ은 ㄷ의 첫소리로 나이기도 하나니라

ㄹ을 ㄱ소리로 맞힐 때와 ㅎ ㄴ ㄹ의 박에 모든 닷소리의 우에서는 두 ㄹ로 나이나니라

(잡이) 이런 때에는 ㅎ ㄹ로 나이가 어렵고 오히려 두 ㄹ로 나이가 쉽은 가다이나니라

ㄹ을 ㅎ 소리의 우에서나 앞에서 두 ㄹ로 나일 때가 잇으니

(보기) 나로를 날로라 함과 날아가를 날라가라 할 때도 잇음의 다위니라
ㄷ을 ㄷ의 첫 소리로는 ㄹ로 박구나니라
ㄹ을 흔하게 ㄷ로 박구나니라

ㄹ을 ㄷ의 첫 소리로는 ㄷ로 박구나니라

ㄴ ㄷ ㄹ ㄱ을 ㄴ ㄷ ㄹ ㄱ의 첫 소리가 됨은 ㄴ ㄷ ㄹ로 박구나니라

ㄴ ㄷ ㄹ ㄱ을 ㄹ로 첫 소리가 됨도 ㄴ ㄷ ㄹ로 박구나니라
ㄹ ㄱ 소리를 그 앞에 무슨 소리와 잇을 때에는 흔하게 나이지 아니함이 잇으니

(보기) 울지말아라든 우지말아라도 함의 다위라

(보기) 울는아기라 하지 아니하고 우는아기라 함의 다위니라

(잡이) 이럼으로 그 몸을 울피 우의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잇는
것이라 할 만하니라

(보기) 닭도를 흔하게 닭도라 함 이는 닭 소리가 한의 잇하 지어 마 나이기라 여림
음으로 그 몸을 떨어 버리는 일이라도 할 만하니라

의 다위라

(잡이) 이런 것도 그 몸을 닭피 닭의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잇는
것이라 할 만하니라

님 곳 소리를 그 알에 무슨 소리와 잇을 때에는 흔하게 나이지 아니함이
잇으니

(보기) 밭지말아라든 흔하게 밭지말아라 함 이는 닭 소리가 한의 잇하 지어 마
나이지가 이럼음으로 그 몸을 떨어

여림이러도
할 만하니라 의 다위라

(잡이) 밭지라 할 때도 잇음

(잡이) 이런 것도 그 몸을 밭피 밭의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잇는
것이라도 할 만하니라

(보기) 총으면의 짐을 나이지 아니함의 다위라

(잡이) 추면이라도 하니 흉 소리의 우에 짐을 나이지 아니함은 닷 소리가 굿치지 아니한 것과 한 가지로 토를 씹이니라
(잡이) 이런 다위도 그 몸을 총과 추의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잇는 것이라 할 만하니라

(잡이) 총으면의 다위를 보면 짐을 흉 소리의 우에서도 덜지 아니함이 잇으니 이를 보기도 삼아 총으면의 짐을 나이지 아니하는 다위는 그 짐가 잇음으로 저의 몸을 삼음이 바른 일이라 할 만함 것이라

스 굿 소리를 그 할에 무슨 소리와 잇을 때에는 나이지 아니함이 잇으니

잇으면의 스를 나이지 아니함의 다위라

잇은 잇의 뜻과 한 가지의 짐을 이음이라

(잡이) 이런이라도 하니 흉 소리의 우에서 스를 나이지 아니함은 닷 소리가 굿치지 아니한 것과 토를 씹이니라

이런 다위도 그 몸을 잇과 이의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잇는 것이라 할 만하니라

스 굿 소리를 그 할에 무슨 소리와 잇을 때에 나이지 아니함이 잇으니

(보기) 땅도를 따도라 할 때가 잇음이라

(잡이) 이런 것의 몸을 따과 따의 두 가지로 잠을 수가 잇는 것

이라 할 만하니라

스 굿 소리를 더러 르로 박구어 나임이 잇으니

(보기) 갓모를 갈모라 함이라

스 굿 소리를 더러 그로 박구어 나임이 잇으니

(보기) 샓갓을 샓갓이라도 함의 다위라

비 첫 소리를 더러 그로 나임이 잇으니

(보기) 조밥을 조밥이라도 함의 다위라

기 첫 소리를 더러 그로 나임이 잇으니

(보기) 암개를 암개라도 하고 수개를 수개라도 함의 다위라

(잡이) 암이든지 수의 알에 흥들 둠이라도 할 만하니라

디 첫 소리를 더러 그로 박음이 잇으니

(보기) 약담을 암담이라도 하고 수담을 수담이라도 함의 다위라

(잡이) 암개와 수개의 잡이와 한 가지라

스와 초와 드를 굿 소리로 두로 씀이 잇으니

(보기) 수술이라도 하고 수술이라도 하고 수술이라도 함의 다위라

(잡이) 울이라 하는 로를 홀로도 씀이 있다 하면 이런 다위는 ㅅ

ㅈ ㅊ 들 무로 씀이라 할 것이라

(잡이) 울을 홀로도 쓴다 하는 다위는 ㅅ ㅈ 소리가 엮는

것과 ㅎ가 로로는 무로 쓰는 것이라 처고 말함이

라

(잡이) 이런 다위에서 좋은 몸을 가리다면 ㅎ의 다위를 잡을지

니라

ㅅ와 ㅎ를 첫 소리와 ㅈ 소리로 무로 씀이 잇으니

(보기) 셈 한글서다위
의음어음 이라도 하고 험이로도 함의 다위라

(보기) 닳고 맛은맛의동파
한가지의말 라도 하고 닳고라도 함의 다위라

ㄱ와 ㅈ를 첫 소리로 무로 씀이 잇으니

(보기) 길삼 은삼을만
도는일 이라도 하고 길삼이라도 함의 다위라

ㄱ 첫 소리를 잇던 대에서 ㄱ로 나일 때가 잇으니

(보기)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오 할 말의 고를 꼬다 함의 다위라

ㄱ ㅈ 소리를 ㅈ로 나옴이 잇으니

(보기) 마루를 닦아라 할 말의 닦을 닦이라 함의 다위라

(잡이) 이런 것들은 ㅈ 소리가 ㅈ라도 할 만하니라

ㄷ 첫 소리를 잇디함 대에서 ㄷ로 나일 때가 잇으니

(보기) 내에 물이 넘도록 비가 오았다 할 말의 도를 또로 나옴의 다위라

ㄴ와 ㄷ를 ㅈ 소리로 두로 씀이 잇으니

(보기) 남의 돈을 말으면 쓰지 말아라 하는 말과 남의 돈을 말꼬 그 돈

을 쓰지 아니하기로 말을 먹었다 하는 말과 말의 다위라

(잡이) 말의 다위는 홀 소리의 우에 쓰는 것이오 말의 다위는 닷

소리의 우에 쓰는 것이라 할 만하니라

이런 다위도 그 몸을 말과 말의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잇

는 것이라 할 만하니라

(잡이) 으면이라 하는 다위의 로를 잇다음 음면의 다위로도 씀이

잇다 하면 ㄴ와 ㄷ를 씀이 잇다 할 것이 업고 어느 때는

지 ㄷ라 할 것이라

(잡이) 말으면의 말으로 그 몸을 한 가지로만 잡고 자하여 말고

라 함도 말고도 쓰면 말고 못 함고의 고는 말의 억음으
로 나이지 아니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고와 남을 곳 소리로 두로 쓰이 잇으니

(보기) 메가 높으면 노가 서늘하다 하는 말과 메가 높고 물은 맑다 하는

말의 높과 높의 다위라

(잡이) 높의 다위는 흥 소리의 우에 쓰는 것이오 높의 다위는 닷

소리의 우에 쓰는 것이다 할 만하니라

이런 다위도 그 몸을 높과 높의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잇

는 것이라 할 만하니라

(잡이) 높으면의 높으로 그 몸을 한 가지로만 잡고 자하여 높고

라 함도 높고도 쓰면 높고 못 높고의 고는 말의 억음으

로 나이지 아니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잡이) 으면이라 하는 다위의 도를을 잇다금 호면의 다위로도 쓰

이 잇다하면 고와 남을 두로 쓴다 할 것이 업고 어느대

든지 남라 할 것이다

고와 남을 곳 소리로 두로 쓰이 잇으니

(보기) 남알에 오는 닭을 쫓아라 하는 말과 남알에 오는 닭을 쫓더라 하는 말의 뜻과 쫓의 다위라

(잡이) 쫓의 다위는 홀 소리의 우에 쓰는 것이오 쫓의 다위는 닭 소리의 우에 쓰는 것이라 할 만하니라

(잡이) 아라라 하는 다위의 토를을 잇다금 하라의 다위로도 씀이 잇다 하여 쫓하라 쫓더라 하면 大와 小를 두로 씀이라 할 것이 엄고 어느 대든지 大라 할 만하니라

(잡이) 쫓차라로 쓰는 다위의 차라는 이런 다위의 토가 잇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남와 ㄴ들 곳 소리로 무로 씀이 잇스니

(보기) 많으면이라도 하고 만으면이라도 함의 다위라

(잡이) 초면과 으면 곳 남와 ㄴ를 로로 두로 씀이라 하면 남와 ㄴ를 두로 씀이라 할 것이 엄고 어느 대든지 ㄴ라 할 만 하니라

(잡이) 만로 곳 많고라 함의 다위는 말의 의음으로 크게 함이

라 하여 안고를 말외 익음으로는 안포라 하나 이를 글로
는 바른 길을 잡아 안고로 씀과 한 가지로 안고로 쓸 것
이라 할 만하니라

(잡이) 안고로 쓰면 많으면이나 만흐면으로 쓸 가닥은 없나니라

(잡이) 이 우에 잡이한 일을 이 한 말만 이음이 아니오 이와 한
가지의 말은 다 이 보기 대로 물을 것이니라

관와 근가 무로 씀이 잇으니

(보기) 읍으면이라도 하고 실으면이라도 함의 다위라

(잡이) 많으면과 만으면의 잡이들과 한 가지니라

관와 관을 곳소리로 무로 씀이 잇으니

(보기) 읍으면이라 함과 읍고라 함의 다위라

(잡이) 말외 익음으로 안포라 하나 쓰기는 안고로 함을 보면 이
도 읍으면으로 쓸 만한 것이라

(잡이) 관와 〇를 도로는 무로 쓴다 하면 이를 포라 할 바는 업

나니라

(잡이) 읍으면이라 할 때도 잇고 읍으면이라 할 때도 잇나니라

준와 리를 굿소리로 두로 씬이 잇으니

(보기) 할으면이라 함과 할고라 하는 것이라

(잡이) 말에 할으면이라도 하니 이를 보면 할으면이라 할고라 씬
이 좋으니라

(잡이) 흥 〇를 로로는 두로 쓴다 하면 어느 대든지 할이라 할
것이라

臥와 님를 굿소리로 두로 씬이 잇으니

(보기) 없으면이라 함과 업고라 함이라

(잡이) 업고는 없고로 쓰어도 그 소리의 들어 남은 한 가지니라
(잡이) 말의 억음으로는 안고라 하되 씬에는 안고로 함을 보면

없으면 못업으면이라 함은 말의 억음의 그릇이라 하고
씬에는 업으면으로 할 것이라도 할 만하니라

(잡이) 로로 흥 〇를 두로 쓴다 함을 따르고 흥 스가 말에 두로
쓰임을 가지고 보면 업스면이 토라도 할 만하니라

스와 리를 굿소리로 두로 씬이 잇으니

(보기) 못고라 함과 들으면이라 함의 다위라

(잡이) 스는 닷 소리의 우에 쓰고 르는 홀 소리의 우에 씀이니라
스외 글들 굿 소리로 두로 씀이 잇으니

(보기) 쌍지라 합과 썼지라 합외 다위라

(잡이) 이런 다위는 홀 소리의 우에서는 흥 굿 소리로만 쓰고 ㄴ의
우에서는 스 굿 소리로만 쓰고 ㄴ의 밖에 모든 닷 소리의
우에서는 흥 스를 두로 쓴다 할 만하니라

(보기) 으면의 우에는 쌍글 쓰어서 쌍으면이라 하고 는외 우
에는 쌍을 쓰어서 썼은이라 하고 ㄴ의 밖에 모든 닷
소리의 우에는 흥 스를 두로 쓰어서 쌍고 썼고 쌍디
라 썼더라 쌍지 썼지라 하나니라

(잡이) 종고 종더라 종지라 합은 좃고 좃더라 좃지라
하면 듯기에 서루르니 이러함은 이 한 말뿐이
니라

(잡이) 말에 굿 소리로 쓰이는 이 다위의 흥글 홀 소리의 우에서
는 혼하게 나이지 아니하니

(보기) 쌍으면을 혼하게 써으면이라 합외 다위라

(잡이) 싸면이라도 하나 이는 홀 소리의 우에서
 나이지 아니 함으로 닷 소리가 굿지 아니한 것
 파한 가지로 도를 씀이나라

(잡이) 이럼으로 이 다위는 그 몸을 쌓 앓 싸외 세 가지로
 잡을 수가 잇는 것이라 할 만하니라

○ 꽃 소리가 넘는
 것을 이룸이라

와 스를 도로는 더러 두로 쓴다 할 만하니

(보기) 갑이라 갑을이라 하는 것을 갑사라 갑술이라고 함이 더러 잇음의
 다위라

갑외 소리의 굿

말의 소리의 곳에 두는 말

사람의 나아 감이라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을 사람이 알기에 심고 쓰기에 단
게 함을 이음이니 저로 자란 나무는 하늘이 오 먹 줄을 차어 다듬는 것은
사람이라 그 다듬는 길을 따르어 사람의 나아 감이 덜하고 더함을 일나니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할 버릇은 저로 자란 나무와 한 가지라 그 버
릇이 된 바를 아조 돌아 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겠으되 엇지 의음에만
어리어서 나무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그 대로 짐을 짓겠다 하리오

한글로 한지훈남

말의 소리를 만드 한 현생 씀

말의 소리 附

訓民正音

國之語音異乎漢土與其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新創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

ㄱ 音牙 如君字初發聲並書如斟字初發聲

ㅋ 音牙 如快字初發聲

ㆁ 音牙 如業字初發聲

ㆁ 音舌 如斗字初發聲並書如覃字初發聲

ㄴ 音舌 如吞字初發聲

ㄷ 音舌 如那字初發聲

ㄹ 音唇 如陶字初發聲並書如步字初發聲

ㅁ 音唇 如漂字初發聲

口

如彌字初發聲

丌

如即字初發聲並書如慈字初發聲

大

如侵字初發聲

人

如成字初發聲並書如邪字初發聲

舌

如挹字初發聲

舌

如虛字初發聲並書如洪字初發聲

舌

如欲字初發聲

舌

如闕字初發聲

△

如積字初發聲

一

如吞字中聲

丨

如即字中聲

上

如侵字中聲

卜

如單字中聲

丁 如君字中聲

十 如業字中聲

止 如欲字中聲

卜 如標字中聲

可 如成字中聲

斗 如鸞字中聲

終聲復用初聲。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初聲合用則並書終聲同、一上丁止可附書初聲之下、卜斗十斗斗附書於右凡字必合而成左加一點則去聲二則上聲無則平聲入聲加點同而促急

〔內藏本〕

訓蒙字會例

諺文字母

俗所謂反切
二十七字

初聲終聲通用八字

丁 其 尼 乙 池 己 乙 口 照 甘 非 人 時 〇 疑

⊙⊙兩字只取本字之釋但語爲聲

凡字高低皆以字傍點之有無多少爲準平聲無點上聲二點去聲入聲皆一點平聲哀而安上聲厲而舉去聲清而遠入聲入而促謹解亦同

龍飛御天歌에 出항

海東 六龍이 느르사 일아다天福이시니古聖이同符하시니

海東 六龍飛莫非天所扶古聖同符

右第一章

물취기은남근말르래아니월씨꽃도크여름하느니

시미기은르른크모래아니그출씨내히이러바르래가느니

機深之木風亦不抗有灼其華有賈其實

源遠之水旱亦不竭流斯爲川于海必達

右第二章

世宗御制月印釋譜에 出항

月印印千江之曲第壹一號

부귀부인億萬世에 境界에 化身신공야 教化 化身사미 드리 드문 드문 때 비취 요미 곧
고니라

釋義詳字節例第一卷

御製訓民正音序

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
之道而後世不能易也然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蓋外國之語有其聲而無其
字假中國之字以通其用是猶枘鑿之鈕銛也豈能達而無礙乎要皆各隨所處而安不
可強之使同也吾東方禮樂文物侔擬中夏但方言異語不與之同學書者愚其旨趣之
難曉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昔新羅薛聰始作吏讀官府民間至今行之然皆假字而
用或造或空非但鄙陋無稽而已至於言語之間則不能達其萬一焉癸亥冬我殿下創
制正音二十八字略揭例義以示之名曰訓民正音象形而字倣古篆因聲而音協七調
三極之義二氣之妙莫不該括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簡而要精而通故智者不崇朝
而通愚者可浹旬而學以是解書可以知其義以是聽訟可以得其情字韻則清濁之能
辨樂歌四律呂之克諧無所用而不備無所往而不達雖風聲鶴唳雞鳴狗吠皆可得而

書矣遂命臣等詳加解釋以喻諸人庶使觀者不師而自悟若其淵源精義之妙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恭惟我 殿下以天縱之聖制度施爲超越百王正晉之作無所祖述而成於自然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而非人爲之私也夫東方有國不爲不久而闢物成務之大智蓋有待於今日也歟

禮曹判書臣 鄭麟趾謹序

말의 소리夾入

訓民正音은 世宗朝御製니 二十五年癸亥冬에成하고 二十八年丙寅에 中外에頒布되니라 訓民正音이成한癸亥로今甲寅年까지四百七十一回에至하니라

(訓民正音에 있는漢字音의잡이) 君은 諱의 快의 業인 斗우 覃을 吞은 那나 跨는 步로 漂도 彌이 卽 卽 慈 及 侵 疋 會 邪 及 掘 虛 也 洪 等 欲 用 國 의 體 也

龍飛御天歌는 議政府右贊成權隄右參贊鄭麟趾工曹器判安止等이 李朝의 穆翼皮桓太祖太宗兩朝의 盛德神功을 讚頌하고 後世子孫의 繼述保守를 規戒하여 一百二十五章의 歌詩를 作하여 世宗朝 二十七年四月에 上箋하니 世宗朝에서 此를 覽하고 嘉之하사 龍飛御天歌라 名을 賜하시고 그 所述의 事蹟이 史編에 載在하엿으나 編閱에 難함을 惟慮하사 集賢殿應教崔恒副校理申叔舟副校理李賢老修撰成三問李壇吏曹左郎辛永孫等을 命하사 註解를 加하여 觀覽을 便하게 하시니 共一十卷이니라 歌詩를 우리말로 作하고 此를 漢文으로 譯하여 其次에 並載하니 由來로 朝祭饗宴에 用하니라

月印千江曲은 世宗御製니 上下卷이라 釋佛의 事를 言하여 作한 歌曲인대 그 노래와 註釋을 다 우리말로 쓰시었나니라

龍飛御天歌는 事體를 依하여 上箋된 바 오 그 制作은 世宗朝 御意에 出하지 안이 함이 無하니 何謂오 世宗朝에서 親制하신 月印曲의 措詞制法이 龍飛御天歌로 더불어 一談에 出함과 如하게 酷似하니 此로 可히 知할 바 오 訓民正音은 世宗朝에서 一生의 大業으로 그 精力을 極하여 制作하신 이라 此正音의 實用으로 首出하는 文字는 龍飛御天歌니 世宗朝에서 엇지 一畫의 制와 一字의 書인들 無心하게 看過하시 었으리오 此로 可히 龍飛御天歌를 世宗朝에서 其臣으로 더불어 未어 制作하신 이 明確한 證을 알 마라

世宗朝에서 訓民正音을 制하고자 하실새 當時 重臣들 中에 不可하오 이 다 하는 者가 多하고 集賢殿 學士들도 不可하오 이 다 고 抗疏極諫하는 者까지 有하였으나 世宗朝에서 聖明하신 이 絕世하시 天道人事의 至理를 達觀하시고 우리 가 우리 의 言을 斷斷히 舍이 天理에 順通하며 國計人生에 便利함이 莫大함을 밝게 살피시고 衆議를 廢斷하시 正音을 制하시고 또 此를 實用하여 龍飛御天歌와 月印于江曲을 作하시 나 이 뜻은 正音 우리 의 言과 우리 의 말로 못만 들 바 가 얼다 하심을 보 이심 이라 何謂 오 言의 가 聲高尙하고 가 聲이 淸은 바 는 노래 詞詩를 짓는 것이 다 노래 도 帝王家의 偉業 神功을 頌詠함과 宗教의 奧旨를 歌揚함이 더 옥 高尙하고 어 淸은 것이 라 龍飛御天歌를 作하여 國朝 創業의 偉功을 오 이 고 月印于江曲을 制하여 釋佛의 深旨를 이 르심이 可우리

가음오긔 고기행들것낼유어 열막음소긔 스승일의 것말일을 것말을아라긔 스승일이 것
 이르슬는 것말을 것다 힘적 유어라긔 적 것은 것다 라 힘가 것그림일을 것그리음오긔
 종 것은 것맞일에서 것종 것은 것일일이 것나을나니라긔 씨 임들 것심 유어야 열열음일을 것
 락을나니라긔 나 임는 것뜻임을 것사을고 것너 임는 것막임을 것사을자긔 아 임말서 임몸일
 이 것되 것여 임버 들 임빛임어 것푸르 것고나긔 나무 임들 것다 들 유어 것집일을 것짓을소긔
 말일을 것다 스리 유어 것근 일을 것쓰을오긔

만다오 할게을날 한 힘 셈것

DIOS NI MI TI SI MAH LHL I7810

TH IS I 8H22 HE ICF2H DAL IS TI TH
 IS I 8H22 HE TI DAL MI LHLI2
 THAF6 XIS THE AF2I 2H2 BH2I DAL THAF6
 XIS TI AF2 IS H2 OFLH2 TI CII LHLI2
 TH AF2I 2H2 THAF6 XIS TI 2 2 IS HL
 BHCHAZ 8H22 H2 CCF2HD TI IA LHLI2
 I CCF MI T TI AF2H MI 782I BHCF TH
 TI SI BIZIA T TI SI LF LHL ALBI TI IA
 T TH OF I CII YAHJI I LHL 8H22 I2
 AF2H I TH AF2I 2H2 THAF6 XIS THE
 OFLH2 TI BHCHAZ IA TI CII 2
 TH HL THE I2I2
 AF2H MI 782I TI TI OFCF THE H2
 TH ALBI TI OF TI OFLH2 T MAH
 TI 8H22 HE CCF2H LHL IS I2I2
 OF2 HL BHCHAZ OF2H TI XIS TI
 OF2 HE I2I TI XIS TI OF2 HE X7I TI
 XIS TI THE I CII LHLI2
 THE MI THAF6 XIS TI TH HL TH THAF6
 OF2 OF2H TI OF2 H2 X7I TI TH IA
 CCF I 2H2 TI SI MAH LHL TH I2I2
 TI SI THE HL AF2I TI BIZI TI
 BHJI TI THAF6 XIS HLI2

... SHL SILANIO MAH

...

四十四

47565

昭和八年十一月五日印刷
昭和八年十一月十日發行



發行及販賣所

京城府水標町四十二番地

著者
行作人
發行人
申
明
均

京城府安國洞一五三番地

印刷人
崔
學
俊

印刷所
中央
印刷
所

京城府安國洞一五三番地

中央
印
書
館

電話二二二七八

定價壹圓
書價送料十六錢



